

이봐 공주, 좋아부여 답사왔나봐!



2013 연세대학교
사학과 가을정기답사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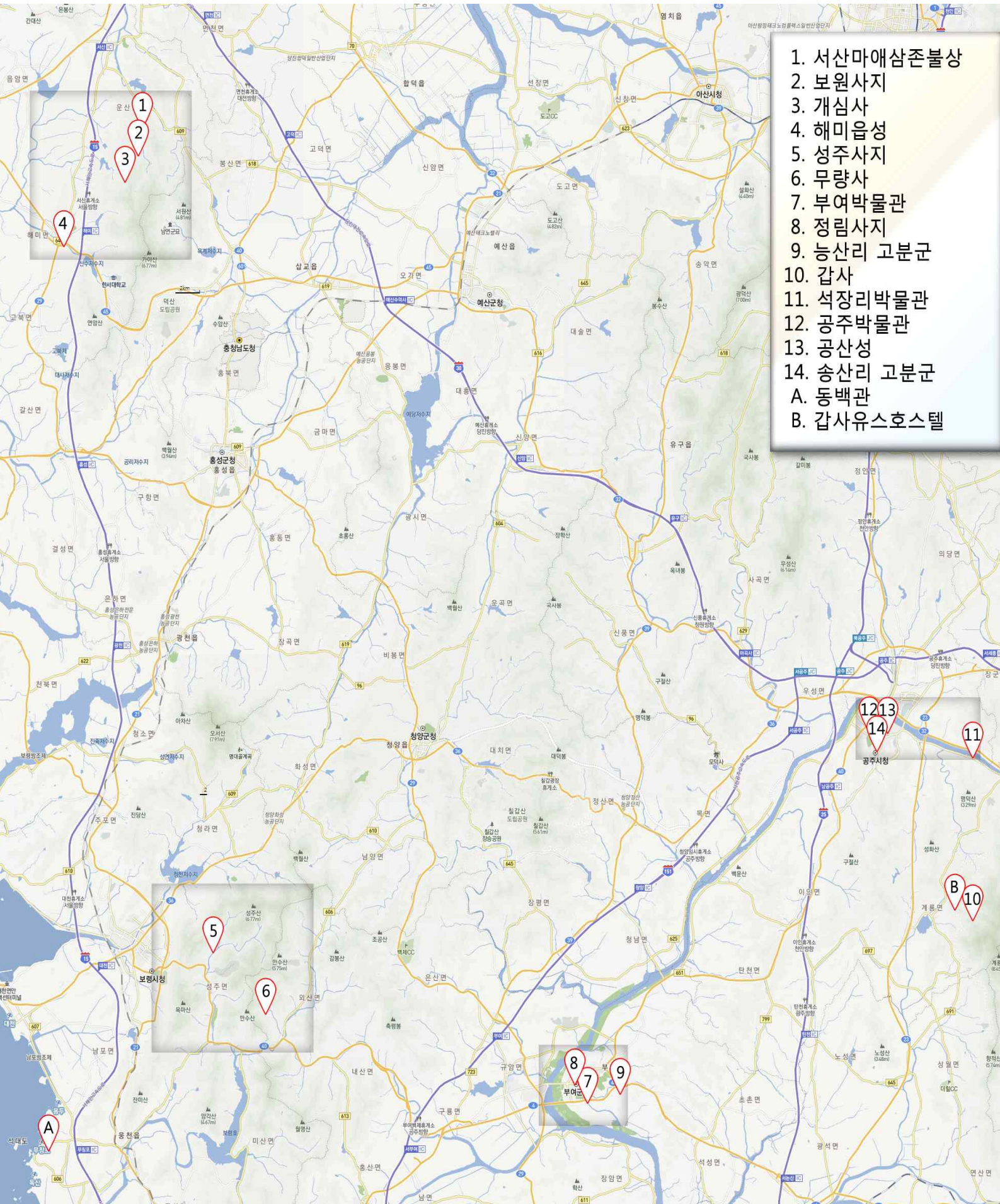
지도 및 일정표	4
백제사 개관	8
서산	
서산마애삼존불상	12
보원사지	14
개심사	15
해미읍성	17
보령 및 부여	
성주사지	20
무량사	22
국립부여박물관	25
부소산성	27
정림사지	29
왕흥사지	30
궁남지	31
능산리 고분군	32
공주	
갑사	34
석장리 박물관	38
국립공주박물관	41
수촌리 고분군	44
장선리 유적	48
우금치 고개	52
공산성	54
송산리 고분군과 무령왕릉	57

지도 및 일정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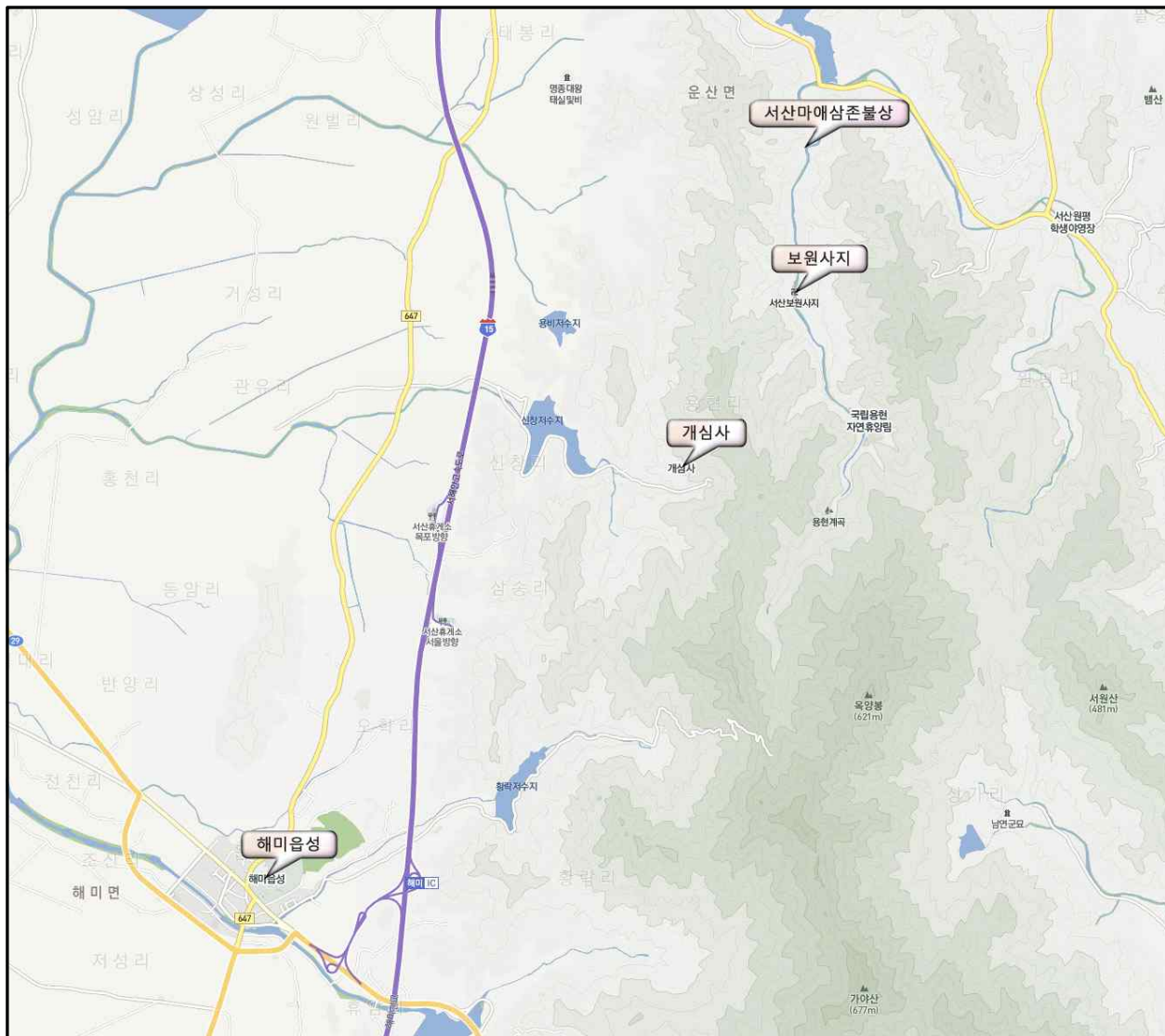
9월 26일 (목)		
8:00~ 8:30	연세대학교 출발	
10:00~10:30	행담도 휴게소	
11:30~12:25	점심 식사 (강당이 식당)	
12:30~13:10	서산마애삼존불상	(12쪽)
13:20~13:50	보원사지	(14쪽)
14:30~15:00	개심사	(15쪽)
15:20~16:20	해미읍성	(17쪽)
17:20~	동백관	

9월 27일 (금)		
8:00~ 9:00	기상 및 아침 식사	
09:30~10:10	성주사지	(20쪽)
10:30~11:20	무량사	(22쪽)
12:10~13:10	점심 식사 (별교 식당)	
13:20~14:20	국립부여박물관	(25쪽)
14:25~14:45	정림사지	(29쪽)
15:00~16:00	능산리 고분군	(32쪽)
17:00~18:00	계룡산 갑사	(34쪽)
18:05~	갑사 유스호스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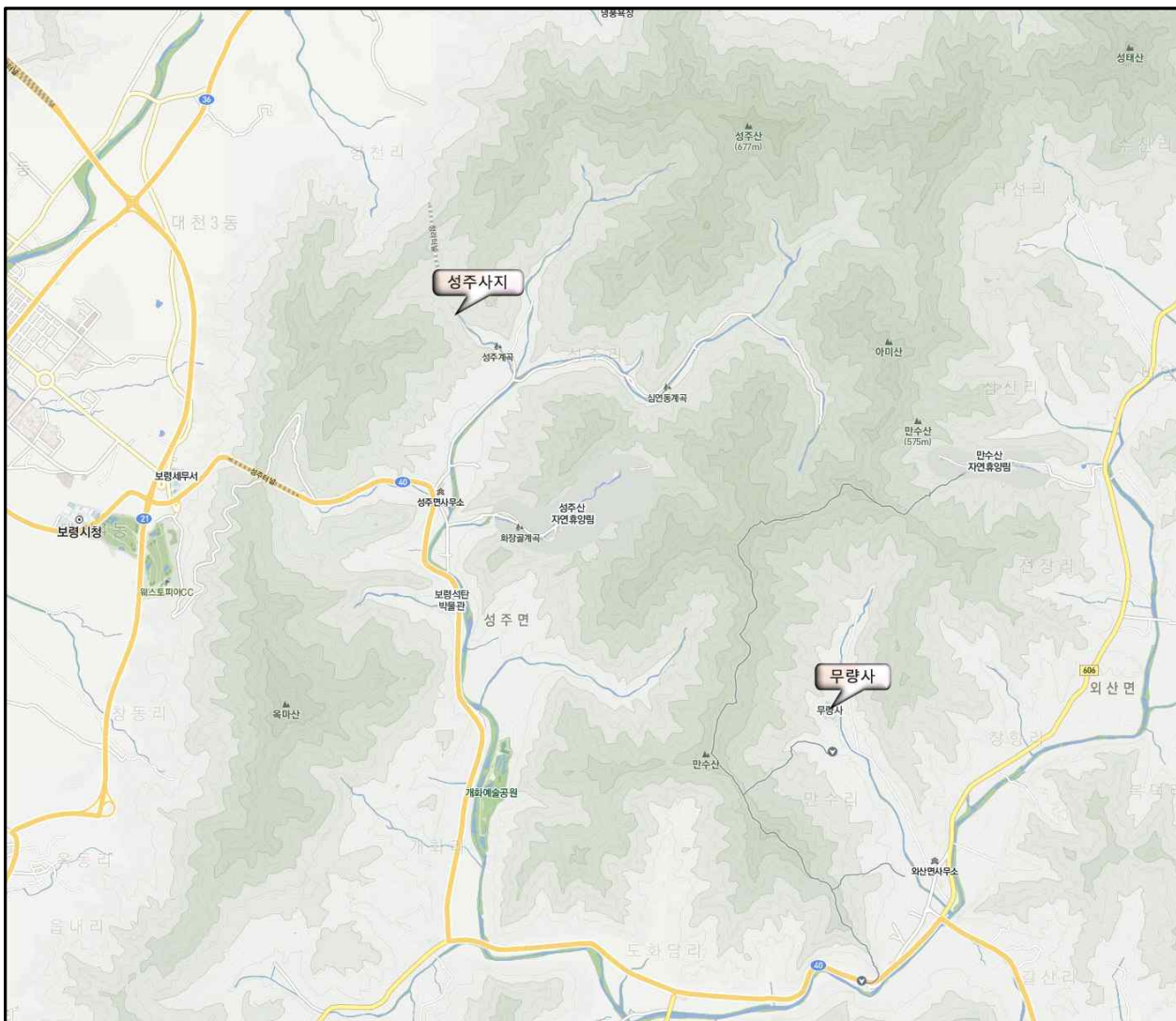
9월 28일 (토)		
8:00~ 8:50	기상 및 아침 식사	
9:15~10:05	석장리박물관	(38쪽)
10:20~11:10	국립공주박물관	(41쪽)
11:20~12:10	공산성	(54쪽)
12:20~13:10	송산리 고분군과 무령왕릉	(57쪽)
13:15~14:15	점심 식사 (도성 갈비)	
14:15~16:45	연세대학교로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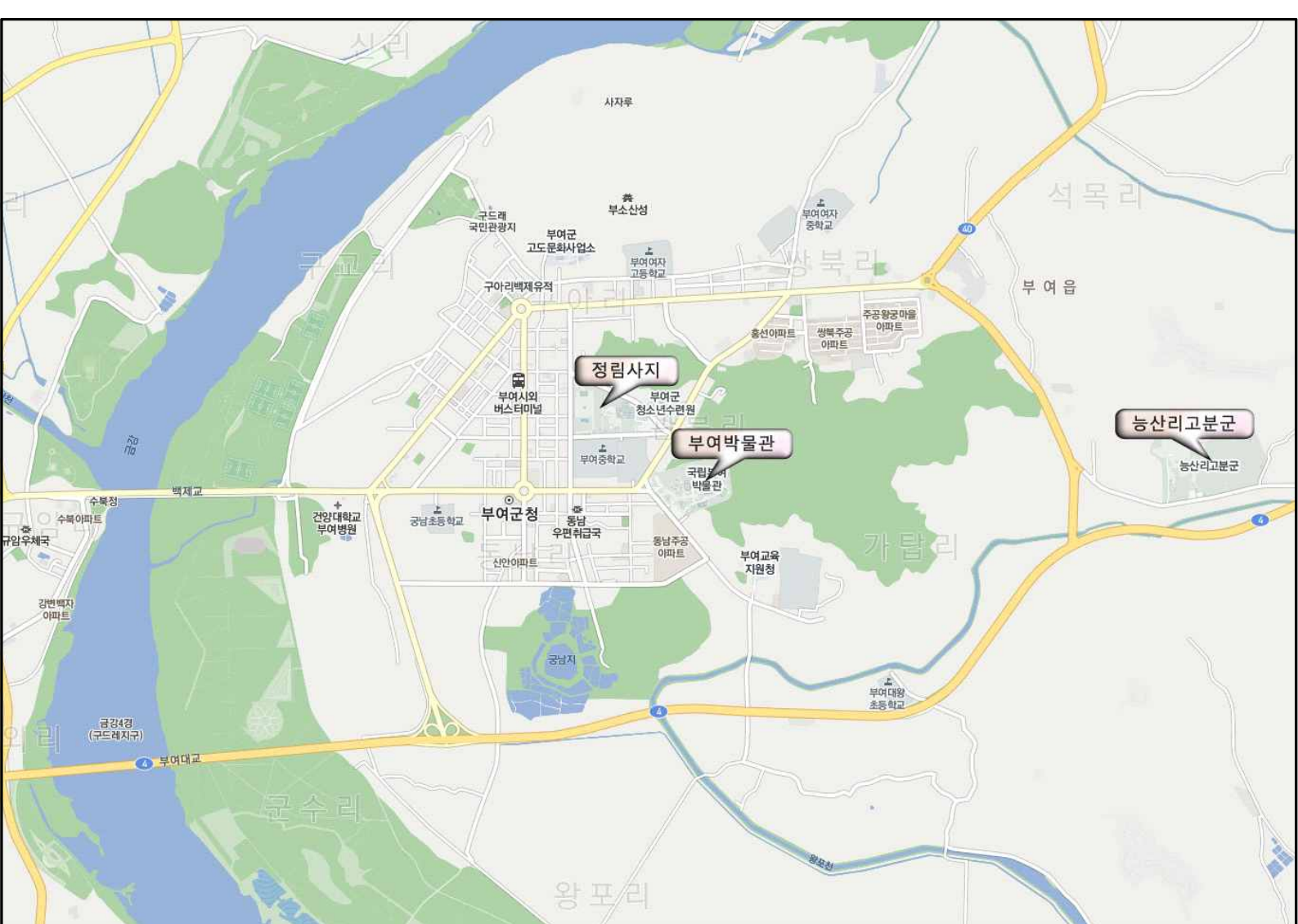
1. 서산마애삼존불상
2. 보원사지
3. 개심사
4. 해미읍성
5. 성주사지
6. 무량사
7. 부여박물관
8. 정림사지
9. 능산리 고분군
10. 갑사
11. 석장리박물관
12. 공주박물관
13. 공산성
14. 송산리 고분군
- A. 동백관
- B. 갑사유스호스텔



서산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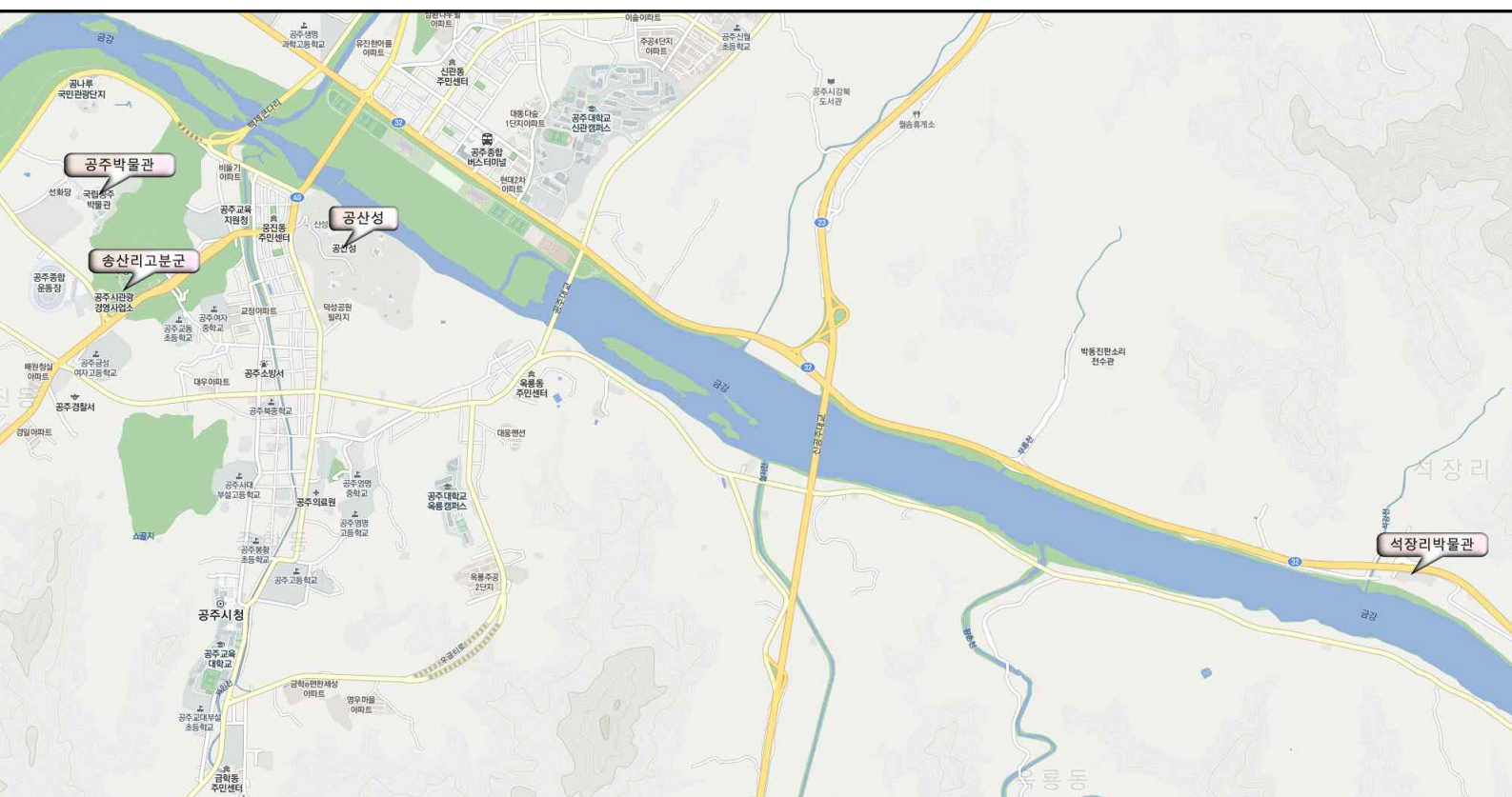


보령일대



부여일대

공주일대



백제사 개관

6조 김석진, 이지영, 윤창민

백제의 역사

백제는 한반도의 역사에서 삼국시대에 존재했던 고대국가들 중의 하나이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백제는 서기전 18년에 건국되어, 660년에 신라와 당나라에 의해 멸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678년간 존속한 백제의 역사를 국가체제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시조 온조왕에서 사반왕까지의 소국연맹,

고이왕에서 계왕까지의 5부체제, 근초고왕 이후의 중앙집권적국가체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소국연맹 시기는 지방 분권적 성격이 강하게 남아 있던 시기이며, 5부체제 시기는 연맹단계에서 중앙집권적체제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백제는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지면서 종래의 국읍(國邑)과 읍락(邑落)을 기반으로 한 사회 단위가 새롭게 재편되어 성(城)과 촌(村)이 사회 편제의 단위로 자리 잡게 된다.

백제사는 한성 시대 전기(근초고왕~아신왕), 한성 시대 후기(전지왕~개로왕), 웅진 시대(문주왕~무령왕), 사비 시대(성왕~의자왕)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백제는 부여족 계통의 한 집단인 온조세력이 북쪽에서 내려와 오늘날의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성립되었다. 건국 초기에는 직산의 목지국 중심의 마한 연맹체의 한 구성원이었다. 그 후 백제는 마한의 여러 국들을 병합하면서 한강 유역의 새로운 지배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고이왕 때에는 관제를 정비하면서 고대국가로서의 기반을 갖추었다. 근초고왕 때에 이르러 중앙집권체제를 완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활발한 정복

활동을 전개해 북으로는 황해도 신계까지 남으로는 전라도 지역까지를 백제의 영향력 아래에 두었다. 그러나 이후 백제는 고구려의 팽창 정책으로 군사적 압박을 받다가 개로왕 시기에 고구려군의 공격을 받아 수도 한성(漢城)이 함락되고 개로왕이 죽는 등 시련을 겪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제의 문주왕은 475년에 수도를 웅진성(熊津城 : 공주)으로 옮겼으며, 이후 무령왕에 의해 정치적 안정을 이룰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성왕은 16년(538)에 다시 사비성(泗歷城 : 부여)으로 천도하였다. 이후 백제는 관제의 정비와 중국 남조 및 일본과 문화 교류를 확대하면서 중흥을 꾀하였다. 그리고 한 때는 신라나 가야와 연합해 고구려에 빼앗긴 한강 유역을 회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신라가 백제와의 동맹을 깨뜨리고 한강 하류지역까지 점령하게 된다. 이후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에 의해 백제의 성왕이 전사하면서 백제는 큰 타격을 입게 되고, 귀족들의 정치적 발언권이 강해지면서 동성왕 이후 강화되었던 왕권이 동요되고 국왕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게 된다. 이러한 정치 구도를 깨기 위해 백제의 무왕은 즉위 후 익산 천도를 추진하는 등의 왕권 강화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후 백제의 의자왕은 즉위 초에 친위 정변을 일으켜 반대세력들을 대거 제거함으로써 어느 정도 왕권을 안정시켰지만, 의자왕은 후반기에 이르러 신라와 극심하게 대립하면서 무리한 전쟁을 계속하면서 국력을 낭비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백제는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의 공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고 마침내 멸망을 맞이하고 만다.

백제의 대외관계

삼국간의 관계

백제의 대외 관계는 고대 국가 성립 이후 낙랑·대방군의 멸망으로 고구려

와 접경을 하게 되면서 본격화되었다. 대외 관계는 삼국간의 관계와 중국·왜와의 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삼국의 대외 관계는 기본적으로 실리와 세력 균형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전개되었기 때문에 정세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대략 6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기(4세기 초~4세기 말)는 남하하는 고구려에 대항하기 위해 신라와 화호 관계를 맺은 시기이다. 백제는 평양성 전투에서 고국원왕을 전사시키는 승리를 거두어 고구려의 남하를 저지하면서 힘의 균형 관계를 유지했다.

제2기(4세기 말~5세기 중)는 백제에서 이탈한 신라가 고구려에 접근하자 백제는 왜군과 가야군을 동원해 신라를 공격하였다. 이 시기에는 백제·왜·가야 연합 대 고구려·신라 연합의 대결이라는 양상이 나타났다.

제3기(5세기 중~6세기 중)는 고구려 장수왕의 평양 천도에 위협을 느낀 백제가 신라와 공수동맹을 맺은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나제 동맹 대 고구려의 대결이라고 하는 양상이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을 받아 개로왕이 전사하고, 수도 한성이 함락되는 비운을 맞이하였다.

제4기(6세기 중~6세기 말)는 웅진 천도 후 혼란을 겪었던 백제가 사비 천도 후 중흥을 이룩하게 되자 신라·가야군과 동맹해 고구려에게 빼앗긴 한강 유역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신라가 백제에서 이탈해 고구려와 연결되면서 한강 유역을 점령해버렸다. 이에 성왕은 신라에 대한 보복공격을 단행했으나 관산성 전투에서 도리어 신라군에게 전사하였다. 이로써 나제 동맹이 깨어지고 백제는 신라·고구려와 대결하게 되었다.

제5기(6세기 말~7세기 초)는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되찾기 위해 신라에 압력을 가하자 이전의 여라(麗羅) 관계가 깨지고 관산성 전투 이후 신라와 백제의 관계도 구수(仇讐) 관계에 빠져 삼국이 상호 대립, 항쟁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백제와 신라는 각각 수나라나 당나라의 힘을 이용해 고구려를 견

제하려는 개별적인 대중국 외교 정책을 추진하였다.

제6기(7세기 초~7세기 중)는 중국에서 당나라가 위세를 떨치고 고구려가 대중국 강경 노선을 취하고 백제도 친고구려 외교로 기울어지자 신라는 당나라와의 접촉을 적극 추진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는 고구려·백제로 연결되는 남북 진영과 신라·당나라의 연결로 이루어진 동서 진영이 대립하게 되었다.

대중·대왜 관계

대중 관계에 있어, 백제와 중국과의 관계는 조공·책봉·견사·청구·전쟁·회맹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조공과 봉책이 주류를 이루었다. 당시의 조공은 중국적 질서 속에 예측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내에서의 역학 관계를 중국과 연결함으로써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던 외교 행위였다.

대왜 관계에 있어, 백제와 왜와의 관계는 현재의 사료에는 대립적인 것보다 우호적이고 상호 원조하는 형태로 나온다. 이는 왜 지역으로 이주한 백제계 사람들이 왜정권의 핵심에 자리한 것과도 일정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일본서기』의 백제와 왜의 관계에 대한 기사는 왜를 중심으로 왜곡되게 서술되어 있어 이를 백제 중심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백제의 대왜 관계는 근초고왕 대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당시의 양국 관계는 백제왕이 왜왕을 후왕(侯王)으로 대우하면서 보낸 칠지도(七支刀)에서 엿볼 수 있다. 이는 백제는 왜에 학술·기술 등 선진 문물을 제공하고 대신 왜는 백제의 요청에 의해 군사 원조를 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백제의 사상과 신앙

유학

고대 국가 형성 이후 백제는 귀족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회의 도덕으

로서 유교를 중시하였다. 그리고 박사제도가 있었던 것을 보면 유학 교육 기관의 존재를 짐작할 수 있다. 유학의 확대, 보급으로 경(經)·자(子)·사(史) 등 유학 관계의 서적이 많고, 특히 성왕 때는 양(梁)나라에 모시박사(毛詩博士)·강례박사(講禮博士)를 청하기도 하였다.

한편, 백제는 유교를 일본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였다. 한성 시대에는 왕인(王仁)과 아직기(阿直岐)가 『천자문』과 『논어』를 전하였다. 또한 무령왕 대에는 오경박사(五經博士) 단양이(段楊爾)와 고안무(高安茂)를, 성왕 대에는 오경박사 왕유귀(王柳貴)를 일본에 파견하기도 하였다. 한자가 사용되고 유교 교육이 확대되면서 국사도 편찬되었다. 근초고왕 대에 처음으로 박사 고흥(高興)이 『서기 書記』를 편찬하였다. 또 『일본서기』에 의하면 『백제기 百濟記』·『백제신찬 百濟新撰』·『백제본기 百濟本記』 등 이른바 ‘백제삼서(百濟三書)’가 편찬되었다고 한다. 이 삼서는 본래 백제 조정에 의해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백제의 멸망 전후로 일본에 전해지면서 내용의 일부가 고쳐져 『일본서기』에 인용된 것으로 보인다.

불교

백제의 불교는 384년(침류왕 1)에 호승(胡僧) 마라난타(摩羅難陀)가 동진으로부터 들어오자 왕이 그를 예경(禮敬)함에서 시작되었다. 이듬해 침류왕은 한산(漢山)에 불사를 이룩해 승려 10명을 거처하게 하였다. 아신왕은 불법을 숭신해 복을 구하라는 하교를 내리기도 하였다.

백제의 불교는 사비 시대에 크게 성행하였다. 성왕은 겸익이 인도에서 갖고 온 범문율부(梵文律部)를 명승 18명으로 번역하게 하고, 담욱(曇旭)·혜인(惠仁) 등 고승으로 하여금 『율소 律疏』 36권을 저술하게 하였으며, 스스로 「비담신율서 毘曇新律序」를 지어 계율(戒律)의 역행(力行)을 강조하였다. 그리

고 양나라로부터 열반(涅槃) 등 경의(經義)와 공장(工匠)·화사(畫師) 등을 청해왔다. 그리고 법왕은 호국의 영장(靈場)으로 왕흥사(王興寺)를, 무왕은 익산에 다 거대한 미륵사(彌勒寺)를 창건하였다. 나아가 백제는 일본에 불교를 전수하고, 승려와 예술가들을 일본에 보내 일본의 불교문화 융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도가사상

도가 사상의 전래에 관한 기록은 없지만 신선 사상 혹은 방술(方術)은 일찍부터 존재했고, 도가적인 잡술(雜術)도 이른 시기에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근초고왕대의 장군인 막고해(莫古解)가 “지족불욕 지지불태(知足不辱 知止不殆)”라는 노자(老子)의 『도덕경』의 구절을 인용하고 있어 이미 4세기 중엽에 도가 사상이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무왕이 궁남지(宮南池)를 축조하고 못 속에 섬을 만들어 이를 방장선산(方丈仙山)에 비기었다든가 와전(瓦散) 중에 산경문전(山景文壇)이 제작되고, 능산리 제6호분에 사신도(四神圖)가 그려진 것은 신선 사상 내지 도가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왕 초에 관륵이 일본에 전해준 문물 중에 둔갑방술(遁甲方術) 같은 도교적인 잡술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도교적인 문물이 상당히 성행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백제의 예술

건축

백제의 건축인 고분·절터·탑·불상 등을 통해 백제의 예술성을 짐작할 수 있다. 우선, 백제 고분은 적석총과 봉토분으로 크게 나누어지고, 봉토분은 다시 석실분·석관묘·토관묘·옹관묘로 구분된다. 절터로는 전북 익산시 금마면 소

재의 백제 최대의 미륵사지가 있고 이곳에 남아 있는 미륵사지 석탑은 동양 최대의 것으로 목조탑(木造塔)의 형식을 모방한 석탑으로 유명하다. 또한 정림사지 5층석탑은 우아하고 세련되어 안정감을 주는 것으로 평가받는 대표적인 삼국시대 백제의 석탑이다.

백제의 분묘는 복장(複葬)이 가능한 석실묘의 전통과 현실(玄室) 벽화의 내용면에서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으며, 동시에 중국 남조의 전실(塹室) 고분의 형태까지 받아들인 것으로, 당시 대륙과 활발한 문화교류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백제 한성시대의 고분은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것이 대표적인데, 이는 졸본 지방의 고구려 초기 고분과 유사한 적석총(積石塚)이며, 웅진시대의 공주 송산리 고분은 굴식 돌방 고분이다. 또한 무령왕릉과 같은 전분(塹墳)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특히 무령왕릉을 통해서 백제의 국가상, 사회생활, 양(梁)나라와의 문화교류, 장법(葬法)은 물론이고, 삼국간의 문화교류, 문화의 특수성과 공통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가 높은 고분이다. 한편, 사비시대의 부여 능산리 고분은 횡혈식 석실고분으로 송산리 고분보다 규모는 작으나 건축기술과 연화문·운문(雲文), 사신도의 벽화가 세련되었다.

현존하는 백제의 대표적인 건축물은 석탑이다. 석탑은 목탑(木塔)에서 비롯되었는데, 대표적인 석탑으로 정림사지 오층석탑과 미륵사지 석탑을 들 수 있다. 이들 석탑은 모두 백제 후기에 건립된 것으로 목조 건축의 세부 양식을 충실히 모방하고 있다. 초층(初層) 탑신의 부재(部材)는 목조건물의 부재를 모방해 모두 다른 돌을 사용했고, 기둥 위의 3단 층개(層蓋)받침은 공포를 번안한 것이고 옥개석이 넓게 퍼져 추녀 끝이 들려 있음도 목조건축의 추녀와 같다.

백제의 불상으로는 금동불과 석불·납석상(蠟石像) 등이 남아 있다. 금동불로서는 금동보살입상·금동보살상·금동석가여래입상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부

여에서 출토된 금동보살입상은 북위(北魏) 불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특색 있는 미소는 '백제의 미소'라고 부를 수 있는 정도이다. 그리고 부여 부소산에서 출토된 금동석가여래입상은 광배(光背)에 정지원(鄭智遠)이 죽은 처를 추복(追福)하기 위한 명문(銘文)이 있어 유명하다. 석불로는 서산 태안면의 마애삼존불과 운산면의 마애삼존불이 있다. 운산면의 삼존불은 높이 2.8m의 거대한 여래입상을 주존으로 오른쪽에 보살입상을, 왼쪽에 반가사유상을 배치한 삼존불이며 두 눈을 크게 뜨고 활짝 웃는 미소가 '백제의 미소'의 전형적인 것이다.

미술

백제의 회화는 공주 송산리와 부여 능산리에 각각 1기의 벽화 고분이 있다. 그리고 공주 무령왕릉에는 왕비 두침(頭枕)에 세화(細畵)가 그려져 있다. 송산리 제6호분은 전축분으로 벽화를 그릴만한 자리에 진흙을 칠하고 면회(面灰)한 위에 사신도를 그렸다. 지금은 회가 떨어지고 색이 퇴색되어 거의 형태를 알아보기 어렵다.

능산리 석실분에는 네 벽에 사신도와 천장에 연화와 구름무늬가 그려졌으나 현재는 거의 없어져 백호(白虎)의 머리 부분과 연화문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연화는 백제 특유의 부드러운 형식이고 운문은 비운(飛雲)인데 꼬리가 길게 끌린 양식이 연판(蓮瓣)의 형식과 더불어 고구려와의 연관을 느끼게 한다.

무령왕릉의 세화는 두침 표면을 옷칠한 다음 귀갑문(龜甲文)을 치고 그 안에 비천(飛天)·어형(魚形)·조형(鳥形)·연화 등을 그렸는데, 어느 것이나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면서도 생동하는 기운을 나타내고 있다. 이밖에 『일본서기』에 의하면 백제의 아좌태자(阿佐太子)가 일본에 건너가 쇼토쿠태자상(聖德太子像)을 그렸다고 한다

음악

백제의 음악에 대한 기록은 매우 적은 편이다. 그러나 5~6세기에 중국 남송과 북위에 백제음악이 소개된 것이 있고, 『일본서기』에 보면 백제의 음악가가 교대로 일본에 건너가서 음악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있다. 백제에는 고(鼓)·각(角)·공후(箜篌)·쟁(箏) 등의 악기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7세기 초 백제의 미마지(味摩之)가 중국 오나라에서 배운 기악(伎樂)을 일본에 전한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

공예

백제의 공예는 주로 고분출토의 장신구 및 토기·기와·전 등이다. 장신구에는 무령왕릉에서 금제관식·금제귀걸이·은제팔지·은제탁잔(銀製托盞)·두침·족좌(足座) 등이 출토되었다. 나주 반남면 신촌리 제9호분 옹관에서 발견된 금동관은 내관과 외관으로 구성되었고, 신라금관의 형식과 비슷하나 보다 고식으로 보인다. 그리고 근초고왕대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칠지도(七支刀)는 일본의 이소노가미신궁(石上神宮)에 있는 것으로 상감된 명문(銘文)은 한일 고대 관계사 연구에 중요한 유물이다.

토기는 고구려·신라의 토기와 뚜렷이 구별되는 부드러운 곡선과 정교한 문양, 그리고 때로는 회백색의 기표(器表)·색조(色調)에서 오는 온건한 조형이 특징이다. 초기에는 흑도(黑陶) 같은 토기가 생산되기도 하였고, 중기 이후에는 삼족기(三足器)가 만들어졌고, 후기에는 청록색 또는 황갈색의 유약을 바른 시유(施釉)토기가 제작되었다. 이들 시유토기는 신라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와당(瓦當)은 목조 건축의 성행과 더불어 발달하였다. 처음에는 낙랑계의 영향을 받았으나 6세기 중엽에는 높은 수준에 도달해 3명의 와박사(瓦博士)를

일본에 파견하기도 하였다. 와당에는 연화문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그 표현은 다양하고 온화하다. 서울 광장동에서 발견된 고식의 연화문 와당을 비롯해 모든 연화는 모가 없이 우아한 표현이 특징이다. 미륵사지·금강사지 등에서 발견된 연화문 연목와(椽木瓦), 부여 가탑리 출토의 귀면문 연목와 등은 다른 두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극히 아름다운 표현이다. 또 미륵사지에서 최근에 녹유를 시유한 와당이 발견되었는데 매우 주목되는 와당이다.

전(塼)은 묘실 축조로 사용되고 있다. 전의 표면에는 기하학적 문양과 연화·인동문(蓮花忍冬文) 등이 조각되었다. 표현 수법은 다른 유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온건, 우아한 품위가 나타나 있다. 형식은 중국 남조의 연화문이 있는 구형전(矩形塼)과 통하며, 이러한 전으로 축조한 묘실의 내부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밖에 부여에서 발견된 연화·인동문의 상형전(箱形塼)과 부여 규암면 출토의 방형문양전(方形文樣塼)이 유명하다.

참고문헌

이도학, 2003, 『살아있는 백제사』, 휴머니스트.

이기동, 2006, 『백제의 역사』, 주류성.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3, 『한 권 백제』, 로도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디지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서산 마애 삼존불

1조 박지혜

서산 마애 삼존불은 충남 서산군 운산면 용현리, 가야산 계곡 안쪽 화강암

벼랑에 새겨져 있다. 1959년 학계에 알려진 후 1962년 국보 제 84호로 지정되었다. 연대는 600년경부터 600년대 중반 사이로 추정되며, 양식은 북제와 남조의 영향을 받았으나 백제의 고유한 특징을 보여준다. 독특한 배치와 함께 부드럽고 유연하면서도 온화하고 인간미가 느껴져, 백제 불상의 진수라는 평가를 받는다.

절벽이나 동굴에 불상을 조각하는 마애불 형식은 기원전 2세기경 인도에서 시작되어 중국에 전래된 후, 삼국 중에서 백제에 가장 먼저 들어왔다. 서산 마애불의 조성 배경은 지리적 조건과 관련이 깊다. 우선 마애불 형식 자체도 태안 반도로 유입되어 태안에서 가장 먼저 시도되었다. 조성된 위치 또한 중요하다. 중국과 교류하는 교역항과 공주, 부여를 잇는 길목으로서, 교통과 경제, 문화의 요지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방의 사찰과 함께 안녕을 비는 장소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¹⁾ 근방에 절터가 많다는 점, 주변의 보원사가 통일신라 시대에 화엄사찰 중 하나였다는 점이 이 견해를 뒷받침한다.²⁾

6~7세기에 동북아시아에서 유행했던 삼존불 형식을 따르고 있지만, 서산 마애불은 구도가 독특해 단연 눈에 띈다. 삼존불 양식에서 본존불 양 옆 협시보살을 대칭으로 조성하기 마련인데, 이 불상의 경우 우협시는 구슬을 들고 있는 봉주보살입상이고, 좌협시는 반가사유상이기 때문이다. 바위의 오른쪽 면이 더 좁다는 점도 고려되었겠지만, 백제인의 독창적인 개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본존불입상은 이목구비가 큼직하고, 어깨가 넓어 체구가 큰 편이다. 꽃잎이 뒤집힌 연꽃 위에 맨발로 서있는데, 발가락이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다. 광

배는 연꽃 바깥에 불꽃이 화려하게 표현된 형태이다. 두려움을 물리쳐준다는 시무외인(施無畏印)과 소원을 받아준다는 여원인(與願印)을 합친 통인(通印)을 하고 있고, 여원인 끝의 두 손가락을 구부리고 있다. 은행알 모양의 눈과, 양 어깨를 모두 덮은 통견(通肩)가사가 통인과 함께 삼국시대 불상의 전형적 양식을 보인다. 본존불의 얼굴은 불상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부각되어있어 명암이 뚜렷한데,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있다. 넉넉한 인품과 인간미가 느껴져, '백제의 미소'³⁾로 유명하다. 두 보살상 역시 미소를 짓고 있으며, 화관을 쓰고 있다. 본존불보다 크기가 작고 덜 두드러지지만 형태는 비슷한데, 두광(頭光)의 불꽃이 단순하다는 점이 다르다.

삼존불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반가사유상의 정체는 비교적 명확하다. 출가 이전의 싯다르타나 도솔천의 미륵보살 중 하나를 나타내는데, 전자(태자사유상)가 본존불을 협시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미륵보살이라 할 수 있다.⁴⁾ 본존불이 석가불이라는 데에도 큰 이견이 없지만, 봉주보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법화사상의 수기삼존보살을 나타냈다고 해석해 제화갈라 보살로 보는 설이다. 수기 사상에서 미륵은 미래불, 석가는 현재불이기에 과거불인 제화갈라가 되어야 자연스럽다는 것이다.⁵⁾ 다른 의견은 손에 구슬을 들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불상의 특성상 경전의 어려운 도상보다 쉬운 배치를 택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당시 인기 있었던 관음보살이라고 보는 것이다.⁶⁾

1) 문명대, 1999, 「百濟 瑞山 磨崖 三尊佛像의 圖像 解釋」, 『韓國佛敎學研究叢書 36: 百濟佛敎篇: 百濟佛敎 6』, 불함문화사, 166쪽

2) 최완수, 「한국 불상의 원류를 찾아서 1」, 대원사, 2006, 283쪽

3) 김원룡 교수가 처음 사용했다는 표현.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3」, 창작과 비평사, 1997, 20쪽

4) 문명대, 1992, 「百濟彫刻의 美意識」, 『韓國佛敎學研究叢書 36: 百濟佛敎篇: 百濟佛敎 6』, 불함문화사, 469쪽

5) 문명대, 위의 논문, 469쪽

6) 유홍준, 앞의 책, 18쪽

보원사지

1조 백선영

역사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105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서산 보원사지(사적 제 316호)의 창건연대는 명확하지 않다.⁷⁾ 그러나 문헌에서 확인되는 보원사에 대한 기록을 통해 통일신라시대에는 이미 창건되었고, 고려시대에 변창하였으며, 조선시대까지 법맥이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⁸⁾ 한편, 서산 보원사지와 인접한 곳에서 서산마애여래삼존상(국보 제84호)가 확인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인접해 있는 보원사지에 대해서도 보원사의 창건시기가 백제 시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사적기에 따르면, 백제 의자왕 14년(654)에 창건됐다고 한다.⁹⁾ 1968년에는 보원사지 사역 내에서 백제금동여래입상이 출토되기도 했다.¹⁰⁾

보원사지의 창건연대는 명확하지 않으나 최치원의『법상화상전』에 화엄십찰 중 하나로 기록되어 통일신라시대부터 화엄종의 법통이 계승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고려 광종26년(975)에 법인국사 탄문이 보원사에서 입적할 무렵 보원사는 최전성기를 누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신증동국여지승람』권19 서산군 불우조에 "보원사가 상왕산에 있다"고 하였고 조선 광해군 때 편찬된『호산록』에도 강당사로도 불렸던 보원사 관련 기록이 있어 보원사지의 법통은

조선시대 중기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¹¹⁾ 그러나 이후 법등이 끊기면서 근래까지 민가가 들어서 사용되었다.¹²⁾

보원사지의 유물

보원사지 오층석탑(보물 제104호)

보원사지 오층석탑의 건립연도는 법인국사보승탑비와 비슷한 시기인 고려 초기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보원사지 오층석탑은 고려시대에 건립된 백제계 석탑건립의 시초라는 점에서 의미있다.

보원사지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 오층석탑은 법당 바로 앞에 동향하여 건립되어 있다. 오층석탑의 높이는 총 9m로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전면 해체 복원이 있었으나 원래의 위치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 석탑의 형태는 2층 기단 위에 5층의 탑신을 형성하고 중앙에 상륜¹³⁾(주석으로 설명을 넣기보단 문장내에 넣는게 좋을듯함)을 올린 일반형 석탑이다.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¹⁴⁾ 하층기단의 면석에 기둥 모양을 새겨 형식적으로 칸을 나누었고, 각 칸마다 사자상을 새겨 총 열두 마리의 사자상이 새겨져 있다. 각기 다른 자세를 한 사자는 발 모양이나 표정들이 매우 생생하게 표현되어 이 부분은 통일신라시대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¹⁵⁾ 이에 대해 몇 가지의 사실로 보아 사자상이 아니라 12지상을 새겨 넣은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¹⁶⁾ 상층기단에도 기둥모양을 새겨 칸을 나누고 한 면에 둘씩 팔

7)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2, 『瑞山 普願寺址Ⅱ』, 국립부여문화재 연구소 학술연구총서 제68호, 23쪽.

8)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2, 위의 책, 33쪽.

9)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2, 위의 책, 31쪽.

10)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9, 『백제문화를 찾아서(2008)』, 90쪽.

11)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2, 앞의 책, 23쪽.

12)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9, 앞의 책, 90쪽.

13) 불탑(佛塔)의 맨 꼭대기에 있는 기둥 모양의 장식 부분.

14) 정영호, 2005, 『특집논문 : 서산지역의 백제문화 : 보원사지(普願寺址) 5층석탑(層石塔)의 고찰(考察)』, <백제문화> 34권0호, 51쪽.

15) 신광섭, 2005, 『백제의 문화유산』, 주류성, 115쪽.

부중¹⁷⁾을 새겨 넣었다. 그 중 서쪽면의 아수라상이 유명하다. 기단부나 탑신 부에 모두 중층의 갑석 위에 몸돌을 받는 받침대를 설치한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옥개석¹⁸⁾(역시 주석보다는 본문으로)이 얇고도 넓게 펼쳐져 백제계 석탑의 특징을 보여준다.¹⁹⁾ 전체적으로 처마는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네 귀퉁이 전각의 반전도 뚜렷하여 전체적으로 경쾌하고 안정감이 있어 보인다.

법민국사 부도와 탑비

고려 경종3년(978)에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법민국사 부도는 전형적인 팔각원당형으로 높이는 4.7m이다. 이는 부도 중에서 매우 규모가 큰 편이다. 팔각기단부 안에는 안상을 조각하고 그 안에 사자상을 도드라지게 새겼다. 중대석 고임에는 눈, 코, 입, 비늘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용이 구름을 휘감고 있다. 상대석에는 연꽃이 화려하게 조각되었다. 탑신 전후면에는 우주를 표현했고, 좌우면에는 사천왕상을 새겼다. 남은 2면에는 인물상이 조각되어 있다. 넓은 옥개석은 귀퉁이 솟아 있다.

법민국사 부도비에는 법민국사의 행적에 관한 기록이 소상히 적혀 사료로서 매우 귀중한 유물이다. 4.25m로 비로서는 큰 편에 속한다. 상부에 용이 사방에서 모이도록 조각한 것이 특이하다. 거북이 비를 받치고 있으며 거북의 두 발이 땅에 굳건히 버티고 있다. 비문에는 법민국사 탄문의 생애와 화엄종이 강력한 전제정권을 수립하는 사상적 배경과 함께 법민국사가 고려왕실의 정신적 지주였음을 서술하였다.²⁰⁾

16) 정영호, 2005, 앞의 논문, 51쪽.
17) 불법(佛法)을 수호하는 여덟 신(神).
18) 석탑(石塔)이나 석등(石燈)의 지붕돌
19) 신광섭, 2005, 앞의 책, 115-116쪽.

참고문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2, 『瑞山 普願寺址Ⅱ』, 국립부여문화재 연구소 학술연구총서 제68호.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9, 『백제문화를 찾아서(2008)』,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정영호, 2005, 『특집논문 : 서산지역의 백제문화 : 보원사지(普願寺址) 5층석탑(層石塔)의 고찰(考察)』, 백제문화 34권.
신광섭, 2005, 『백제의 문화유산』, 주류성.

개심사

1조 민예지

창건과 연혁

개심사(開心寺)는 충남 서산시 운산면 신창리 상왕산(象王山) 자락에 자리하고 있다. 백제 의자왕 14년(654년)에 해감국사가 창건하면서 개원사(開元寺)라 칭했지만 고려 충정왕 2년(1350년) 치능대사가 중건할 때 개심사로 이름을 고쳤다. 이후 성종 6년(1475년) 화재로 전소한 후 성종 15년(1484년) 새로 건립했고, 조선 영조 16년(1740년)에 전체적으로 다시 정비했다. 지금의 모습은 1955년 전면 보수를 거치고 난 것이다.

입지와 건축 특성

20) 신광섭, 2005, 위의 책, 116-117쪽.

북쪽에는 상왕산, 남쪽에는 가야산이 개심사를 감싸고 있는 데다 경사가 급한 구릉에 자리한 까닭에 개심사는 비교적 좁고 가로로 길쭉한 입지 위에 지어졌다. 그러나 주변에 깎아지른 절벽이 없고 서해로 향하는 온화한 산세에 둘러싸인 개심사는 그 주변 지형에 걸맞게 아담하면서도 기품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기둥을 만들 때도 나무의 본래 모양을 최대한 살린 채 사용하는 등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방법으로 지어졌다.

입지 조건상 세로로 충분한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개심사는 가람들을 좌우로 길쭉하게 배치하였고 특히 일반적인 사찰의 산문 체계를 간소화, 상징화 하였다. 사찰의 첫 관문인 일주문은 최근에 지어진 것으로, 본래는 길 왼편에는 세심동(洗心洞), 오른편에는 개심사입구(開心寺入口)라고 새긴 비석이 일주문을 대신했다.²¹⁾ 이어지는 돌계단, 연못의 외나무다리, 다시 이어지는 좁은 계단들 역시 금강문, 천왕문 등을 대신하여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을 상징한다.²²⁾ 사찰의 마지막 관문인 해탈문은 안양루 옆에 셋문처럼 놓였다. 이처럼 입구에서 대웅보전까지 오르는 길이 일직선으로 곧고 넓게 뻗은 것이 아니라, 굽어 있거나 좁고 상징성을 함축한 채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 있는 것이 개심사의 특징이다. 그러나 유홍준이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에서 우리나라 5대 명찰 중 하나로 꼽았을 만큼, 개심사는 작지만 자연스럽게 주변 풍광과 어우러지며 나름의 고즈넉한 기품을 지닌 천수백년의 사찰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안양루(安養樓)²³⁾

21) 우리사찰답사회, 2005 「개심사」 『충청도로 떠나는 사찰기행』, 116쪽.

22) 서병진, 이일형, 양상현, 2008 「사찰 개심사(開心寺)의 함축적인 배치 계획에 관한 연구」 『순천향산업기술연구소논문집 제14권 1호』, 12~13쪽.

23) 불교에서 안양(安養)은 극락세계의 다른 이름이다.

안양루에는 전후로 두 개의 현판이 있는데, 사찰로 오르는 쪽에서 보이는 현판에는 ‘상왕산개심사(象王山開心寺)’²⁴⁾라고 써어 있으며 글자들은 그 의미 그대로 코끼리를 닮은 모양을 하고 있다. 강당으로 사용하는 안양루 안에는 불교 의식이나 집회에 사용하는 불구사물(佛具四物) 중 법고, 운판, 목어가 보관되어 있다. 나무와 소가죽으로 만든 법고는 땅 위에 사는 중생을 위해 두드리며 구름 모양으로 만든 청동판인 운판은 공중의 중생을 위해, 나무로 된 물고기 모양의 목어는 물 속 중생의 제도를 위해 두드린다.²⁵⁾(굳이 주석으로 뽐 필요가 있을지)

대웅보전(大雄寶殿)

대웅보전은 개심사의 본당으로, 대웅(大雄)이란 부처를 의미한다. 이 건물은 사찰 건축사에서 특별히 의미가 있는데, 고려시대까지 주로 사용한 주심포(柱心包)양식²⁶⁾에 조선시대에 주로 사용한 다포계(多包系)양식²⁷⁾(주심포나 다포계 양식 등을 설명하는 그림이 있으면 훨씬 이해가 쉬울 듯)을 절충한 형태로 지어져 과도기인 조선 전기 목조건축의 일면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즉, 개심사 대웅보전은 다포 양식이지만 팔작지붕이나 우진각지붕이 아닌 맞배지붕

24) 근대 서화가 해강(海岡) 김규진(金圭鎭)의 글씨이다.

25) 불구사물은 범종, 법고, 운판, 목어를 가리키는 말이다. 개심사의 범종은 경내로 들어가는 왼쪽에 위치해 있으며 범종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의 제도를 빌며 타종한다고 한다.

26) 처마의 무게를 받치는 공포(栱包)가 기둥 위에만 위치하는 양식. 주로 책을 편 것처럼 생긴 맞배지붕, 천장의 서까래가 드러나 보이는 연등천장, 배흘림 기둥과 함께 사용된다.

27) 공포가 기둥 위 뿐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위치하는 양식. 외형이 화려해진다. 주로 전/후면에서는 사다리꼴, 측면에서는 삼각형 모양인 우진각지붕이나 우진각지붕 위에 맞배지붕을 올려놓은 형태의 팔작지붕과 함께 사용된다. 천장에는 반자를 설치한다.

으로 지어졌고 이를 위해 다포 구조도 건물의 앞뒤에만 사용하였다. 또 천장 역시 내부 구조가 드러나 보이는 소박한 연등천장이다.²⁸⁾

대웅보전 삼존불상

대웅보전의 본존불인 목조아미타불좌상(木造阿彌陀佛坐像)은 현존하는 목조 불상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최근 불상의 제작 기법을 알기 위해 X선 촬영을 하려고 불상을 옮기던 중 내부 밀폐용 뚜껑이 빠지며 아미타불상을 보수한 년도를 적은 뚜껑 안쪽의 먹글씨가 발견되었는데 고려 충렬왕 6년(1280년)인 것으로 밝혀졌던 것이다. 실제 불상이 조성된 연대는 이보다 앞선 12~13세기로 추정된다.

한편 작고 짝 다문 입에 날카로운 코, 길게 찢어진 불상의 얼굴은 전형적인 고려불상의 모습이다. 본존불과 좌(左) 협시보살인 관음보살, 우(右) 협시보살인 지장보살 모두 엄지와 가운데 손가락을 마주 댄 구품인(九品印)²⁹⁾의 수인(手印)을 하고 있다.³⁰⁾

대웅보전 탱화

삼존불 뒤에 모셔진 탱화는 아미타불이 극락세계에서 설법하는 광경을 묘사한 아미타후불탱화로 극락도라고도 한다. 아미타여래 삼존이 여러 보살과 함께 설법하는 모습이 중앙에 위치했으며 아래쪽엔 연못을 통해 왕성한 사람들이 그려졌다.

28) 이 절의 용어 설명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의 해당 제시어 부분을 참고하였다.

29) 아미타불이 중생들의 성품을 아홉 가지로 나누어 각 단계에 따라 설법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인. 손의 높낮이와 어떤 손가락이 엄지와 맞닿아 있는지로 구분한다.

30) 우리사찰답사회, 2005, 앞의 책, 133~134쪽.

아미타후불탱화 좌측에는 칠성신앙을 표현한 칠성탱화가 걸렸다. 중국 도교에서 북두칠성을 섬기던 것이 불교와 합쳐져 칠성신앙이 되었고, 우리나라에는 고려 시대에 들어왔다. 우측에는 불법(佛法)을 수호하는 여러 선신(善神)을 그린 신중(神衆)탱화가 자리한다.³¹⁾

심검당(尋劍堂), 명부전(冥府殿)

심검당은 스님들의 생활공간으로 쓰는 곳으로 대웅보전보다도 7년 앞서 중창되어 역시 건축사적 가치가 상당하다. 단청을 하지 않은 데다 굽기가 일정치 않거나 흰 목재들이 그대로 사용된 모습이 자연의 본래 모습을 최대한 살려 지은 개심사의 일면을 보여 준다.

지장보살을 모신 명부전 역시 서까래 등에 자연목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였다. 지붕 측면에는 비바람을 막기 위한 풍판(風板)이 설치되어 있다. 지장보살상 좌우에는 명부를 관장하는 시왕상이 있고 학과 사자를 든 동자상이 역시 좌우로 모셔져 있다.

해미읍성

1조 김지은, 정승주

해미현 지역과 미륵불

31) 이 절은 우리사찰답사회, 2005, 앞의 책, 135~137쪽을 주로 참고하였음.

해미현의 유래

해미현(海美縣)은 서산의 옛 지명으로 정해현(貞海縣)과 여미현(餘美縣)을 합한 서산 지역이다. 정해현과 여미현은 각기 다른 유래를 지니는데, 정해현은 고려시절, 태조가 몽웅현(夢熊縣)의 아전 한씨의 공을 높이 사 대광(大匡)의 작호를 내리고 홍주(洪州)의 속현이던 고구현(高丘縣)을 분할해 그의 본관으로 삼게 했다는 곳에서 유래했다. 여미현은 원래 백제의 여촌현(餘村縣)이었지만 757년(경덕왕 16)때 여읍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혜성군(鳶城郡)의 속현이 되었다. 이후 고려 초에 여읍은 여미로 명칭이 바뀌었고 1407년(태종 7)에 정해와 여미 두 현을 합해져 해미현이 되었다. 그리고 1895년(고종 32), 해미현은 행정 구역 개편 시 현에서 군으로 고쳐져 해미군이 되었다.

해미의 미륵불

해미현에 위치한 해미읍성 사방에는 읍성을 비보하기 위해 장군석으로 세워진 비보 장승 4개가 서있다. 비보 장승들은 읍성을 기준으로 보아 동서남북에 세워져 있는데, 남쪽에는 조산리 미륵, 서쪽에는 반양리 미륵, 동쪽에는 산수리 미륵, 그리고 북쪽에는 황락리 미륵이 서있다. 의아한 사실은 읍성, 즉 치소성이 미륵에 의해 다시 비보 받는다는 점인데 이는 해미현의 풍수지리로 설명 가능하다.

풍수지리는 주산을 장소(명소)를 의미 있게 해주는 일차적, 근원의 상징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보자면 해미현의 진산, 주산은 현 동쪽 4.4km에 있는 가야산이며 이 산의 맥은 상왕산, 문수산까지 이어진다. 이처럼 해미현 역시 명당의 일차적 요소인 주산이 존재하지만 해미읍성은 넓은 구릉에 위치하여 배산임수를 이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해미읍성의 부족한 지세를 보완하기 위해 사람들은 동서남북으로 4개의 장승을 세웠다.³²⁾ 그 4개의 장승이 바로 앞

에서 언급한 비보 장승이다.

4개의 비보 장승들 중 북쪽과 서쪽의 황락리, 반양리 미륵은 고려 시대 때, 남쪽과 동쪽의 조산리, 산수리 미륵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졌다고 추정된다. 각각의 미륵들은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북쪽의 황락리 미륵은 얼굴과 볼의 윤곽이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남겨져 있으며 259cm로 길쭉한 형태를 이루며 입은 굳게 다물고 있어 마을 보호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 서쪽의 반양리 미륵은 할아버지 미륵으로 불리기도 하며 상체에 비해 하체가 좁고 빈약하며 머리에 화엽문(花葉文)의 보관(寶冠)을 쓰고 있고, 목에는 삼도(三道)가 표현되어 있다. 남쪽의 조산리 미륵은 할머니 미륵이라 불리기도 하며 얼굴이 전체에 비해 작게 표현되고 머리에는 고깔을 쓴 것 같은 돌이 각을 치고 선각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동쪽의 수산리 미륵은 지금까지의 미륵 중 190cm로 가장 작으며 산수리 미륵처럼 모자를 씌운 것처럼 표현되어 있으나 그 모양이 다르고 몸통에 만자(卍字)표시가 새겨져 있다.

읍성의 유래

읍은 문명과 유통경제의 발달에 따른 인구 집중화 현상으로 나타난 도시에 성벽을 둘러쌓은 곳을 의미했다. 읍성은 이러한 도시 읍과 그 성벽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읍성의 존재는 고려 말 때부터 존재했지만 그 용어는 조선시대에 이르러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그 이유는 시간에 따른 치소성과 읍성의 구분 때문이다. 고려시기에는 읍성을 대신하는 치소성이 존재했다. 치소성은 대부분 산성이었으며 대몽항쟁기와 원 간섭기를 경과하면서 방어처 역할을 상실하였다. 그러나 조선초기부터 이전과 달리 평지에 세워지고 왜구의 침입에 방어하는

32)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신앙사전(마을신앙편)

치소성들이 활발히 축조되었다. 이후 이러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는 성들을 지칭할 새로운 용어가 필요했고 그 결과 ‘읍성’이 새로운 성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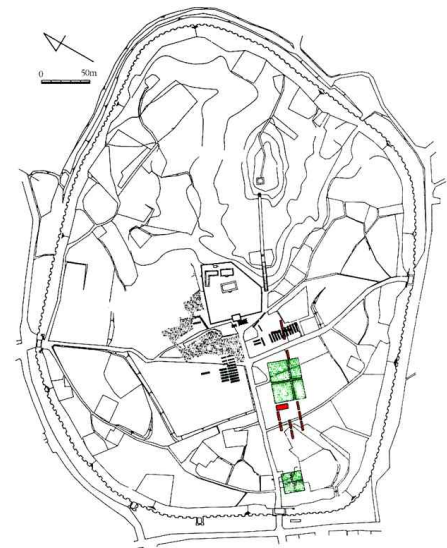
읍성 내에는 군, 현 주민들의 거주지와 행정을 담당하는 관아시설들이 존재했다. 읍성의 거주주체는 왕이 아닌 군, 현의 주민들이었기 때문에 읍성은 주로 지방 주민들의 보호라는 군사적 기능과 지방행정의 기능을 수행했다. 특히 조선 초기에 이르러서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읍성은 빈번한 왜구의 침입을 방어하는 기능을 주로 도맡았다.³⁴⁾

해미읍성의 유래와 기능

해미는 서해안 지역의 군사요충지로서 왜구를 방어하는 데에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다. 이에 따라 태종 17년(1417)에 군사적인 기능과 더불어 행정적 기능을 동시에 갖춘 읍성 축조를 시작하였고 세종 3년(1421) 해미읍성의 축성이 완료되어 종2품에 해당하는 병마절도사영이 관할하게 되었다. 이후 중수작업이 계속 되어 성종 22년(1491) 조선 후기의 읍성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헌종 13년(1847) 해미 검영장으로 부임하였던 박민환이 읍성을 중수하여 지금의 읍성 형태가 남아있게 되었다.

해미읍성은 외적의 공격을 방해하기 위해 성 외곽에 탕자나무를 심어 탕자성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당시 서해안 지역에서는 왜구의 출몰이 잦았다. 왜구의 주된 목표는 조창이었고 이로 말미암아 관료들의 녹봉지급에 차질이 생기기도 하였다. 해미읍성은 왜구의 침입을 막는데 효과적이었고 이러한 방

어 기능과 더불어 연안 조운의 기능까지 하는 군사·행정 읍성이었다.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당초 해미읍성은 보통의 읍성과는 달리 고을의 치소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읍성이 아니었고, 국방상 요충지에 쌓은 충청도 병마절도사의 집무처인 병영성(兵營城)이었다. 이후 충청 병영이 청주에 이설된 조선 후기에도 해미읍성은 고을 치소로서의 기능과 더불어 진영성(鎭營城)으로서의 기능이 매우 중시되는 읍성이었다.³⁵⁾ 해미읍성은 현재 남아있는 성곽들 중 가장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어 1963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 116호로 지정되었다.



해미읍성의 투사도

해미읍성과 천주교

해미읍성은 천주교의 순교 성지이다. 1790년대부터 시작해서 1880년대까지, 거의 100년 간 100여 명 이상의 천주교 신자들이 이 곳에서 처형당했다. 해미읍성의 첫 순교자는 정사박해(1800)에 순교한 인언민(마르티노)와 이보현(프란치스코)이다.³⁶⁾ 병인박해(1866년) 때 다블뤼 주교를 비롯한 선교사들이

33) 최종석, 2007, 「조선초기 "읍성(邑城)" 용어 출현의 배경과 읍성의 유형」 『동방학지』 138, 9~11쪽.

34) 김진우, 2011, 앞의 논문, 9쪽.

35) 임선빈, 2011 「조선시대 ‘海美邑城’의 축성과 기능변천 : 충청병영성에서 호서좌영으로」 『역사와 담론』 58(湖西史學會), 74쪽.

36) 차기진, 2007 「해미 지역의 천주교와 순교사 연구」 『교회사학』 4(수원교회사

이 곳에서 가까운 합덕성당의 신리공소로 피신 왔다가 붙잡혀 심문을 받다 처형되기도 하였다. 순교자들은 주로 생매장, 교수형, 참수형 등의 형벌을 받고 순교하였다.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탄압은 1886년 조선이 프랑스와 조약을 맺어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기 전까지 계속되었다.

해미읍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 천주교 순교 성지가 조성되어 있다. 천주교 신자들을 수장시켰던 ‘진돗병’이라는 못과 생매장시켰던 ‘여숫골’이라는 구덩이가 대표적이다. 또한 해미읍성의 남문에는 300여년 된 회화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이 회화나무 아래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철사로 묶여 고문을 당하였다. 이 회화나무 바로 뒤에 천주교 신자들을 가두어두었던 옥사가 현재 복원되어 있고 옆에는 1982년에 세운 ‘해미읍성 천주교 순교기념비’가 있다.

참고문헌

- 허경진, 『한국의 읍성』, 서울 : 대원사, 2001.
최종석, 2007 「조선초기 "읍성(邑城)" 용어 출현의 배경과 읍성의 유형」 『동방학지』 138.
차기진, 2007 「해미 지역의 천주교와 순교사 연구」 『교회사학』 4(수원교회사연구소).
임선빈, 2011 「조선시대 ‘海美邑城’의 축성과 기능변천 : 충청병영성에서 호서좌영으로」 『역사와 담론』 58(湖西史學會).
김진우, 2011 「문헌을 통한 해미읍성(海美邑城) 고찰 : 성곽과 성곽부대시설을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24.

성주사지

2조 안규상

소개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산, 성주사가 있었던 자리이다. 성주사는 신라 말의 9산 선문 중에 하나인 성주산파의 중심 사찰이었다. 1960년대 이곳에서 수합된 기와 조각으로부터 이 절이 백제 법왕 때 창건된 오합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백제 법왕 때 창건된 후 계속 이어져 오다가 신라 문성왕 때 낭혜화상에 의해 중창되었고 ‘성주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한 때 크게 번창했으나 임진왜란 때 불에 탄 이후 중건되지 못하여 지금처럼 터만 남게 되었다.

오합사(烏舍寺)

백제 때 창건된 오합사는 ‘삼국사기’에는 오함사(烏舍寺)로 기록이 되어있는데, 이는 습, 습 이 두 글자가 한자의 동음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³⁷⁾ 오합사가 위치한 보령 지역은 사비에 도움을 두고 있는 백제에게는 중요한 요충지였다. 그렇기에 법왕은 이곳에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들의 원혼을 달래는 호국 사찰로서 오합사를 창건한 것이다.³⁸⁾ 삼국사기에 따르면 의자왕 15년에 이 절에 적마가 나타나 백제의 멸망을 암시했다고 한다.

“여름 5월, 붉은 색의 말이 북악 오함사(烏舍寺)에 들어가, 불당을 울면서 돌아다니다가 며칠 후에 죽었다.”³⁹⁾

37) 구본태, 1994, 「保寧 聖住寺址에 對한 考察」,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9쪽을 참고함.

38) 위의 논문 36쪽을 참고함.

39) 조옥임, 2012, 「원문과 함께 읽는 삼국사기Ⅱ」, 한국인문고전연구소, 411쪽

그 후 오합사가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은 김인문의 귀국 문제로 인한 것이었다. 신라는 당나라가 인문에게 봉지로 주었던 웅천주지 역을 그의 식읍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인문이 죽자 왕실은 그를 위하여 오합사에 승려를 머물게 하였고, 오합사는 귀족원찰이 되었다. 신라 문성왕 대에 이르러 오합사는 새로운 변화를 맞는다. 무열왕계 후손인 김현창의 난으로 인해 거의 폐사가 되어 방치가 되어있던 오합사는 당에서 귀국한 낭혜화상에 의해 중창되어 다시금 번창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백제 유민을 비롯하여 지방세력을 통제하려는 왕실과 자신을 중심으로 무열왕계의 연합을 추구한 김양의 정치적 의도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이후 오합사는 문성왕으로부터 이름을 하사받아 '성주사'가 되었고 신라 말 대표적인 선종 사원인 9산 선문 중 하나가 되었다. 이로써 호국사찰이 귀족원찰을 거쳐 선종사원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낭혜화상

법명은 무염이며, 호는 무량, 시호가 낭혜이다. 범칭의 아들로 속성은 김씨이며, 무열왕의 8대손이다. 9세 때 해동신동으로 불렸고, 14세 때 출가하여



규장각 고지도(1872) 감포현에 표시된 성주사터

법성선사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그 후 부석사의 석등 대덕에게 화엄을 배웠는데, 법성선사와 석등 대덕이 당나라 유학을 권고하니 이에 따라 당나라로 건너가 공부하였다. 이후 중국의 여러 곳을 다니며 보살행을 실천함으로써 그는 동방의 대보살이라 칭송받게 되었고, 입당한지 23년 만에 귀국하였다. 이후 김양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합사를 성주산문의 본산으로 삼아 40년 동안 교화하였다. 888년 89세의 나이로 입적하였다.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

성주산문의 개조인 낭혜화상의 탑비로 진성여왕 4년인 89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비문은 최치원이 지었고, 그의 사촌동생인 최인연이 글씨를 썼다. 내용은 비문을 짓게 된 경위와 낭혜화상의 행적 및 공덕을 기록하고 있으며, 저자인 최치원의 주관을 잘 반영하고 있어 낭혜화상뿐만 아니라 최치원에 대한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된다. 이 비문은 낭혜화상이 국왕에게 한 정치적 조언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대부분 유교적 정치이념에 입각한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라 신라 말 골품제 제도에 대한 6두품 지식인들의 반발을 엿볼 수 있다.

비석의 귀부 및 이수(耳首)는 화강암으로, 비신은 흑대리석으로 되어 있다. 귀두는 괴수형으로 세밀히 조각되어 있으며 등에는 귀갑무늬가 있고, 비좌 4면에는 곽(郭) 내에 구름무늬가 조각된 안상(眼象)을 두고 밑에는 큼직한 구름무늬가 있다. 비신은 사각의 모를 죽였고, 이수는 양련(羊鍊)을 새기고 4면에 운룡(雲龍)을 조각하였다. 앞면에 제액(題額)이 있으나 문자는 마멸되었다. 이 비석은 현존하는 신라의 비석 중 최대의 거작으로 아름다운 조각수법은 신라 석비의

40) 꽃부리가 위로 향한 연꽃.

41) 비신의 상단부나 이수에 비의 명칭을 새긴 부분.

대표작품이라 할 만하다. 1962년에 국보 제 8호로 지정되었다.

성주사지 내의 석탑들

성주사지의 안에는 4개나 되는 석탑들이 있다. 그 중 금당지 정면에 있는 오층석탑은 잔존현황이나 양식 등을 고려할 때, 고려로 넘어가는 신라 말의 지방적 형식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63년에 보물 제 19호로 지정되었다. 나머지 3개의 탑은 삼층석탑으로 나란히 서있다. 오층석탑과 같은 양식으로 지어졌지만 묘탑비의 출토와 가람배치에서 불필요한 형태로 보아 가람탑이 아니라 부도탑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강하다. 화엄산성주사사적에서는 세 탑이 각각 정광, 약사, 가섭, 세 여래의 사리탑이라고 말하고 있다.

참고문헌

구본태, 1994, 「保寧 聖住寺址에 對한 考察」,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옥임, 2012, 「원문과 함께 읽는 삼국사기Ⅱ」, 한국인문고전연구소.

무량사

2조 유석원, 김현정

위치와 역사

무량사는 충남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만수산에 위치한 절이다. 무량사는 홍산현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옛 문헌에서 ‘홍산 무량사’로 불렸으나 지금은 외산면이 부여군으로 통합 편입되어 ‘외산 무량사’가 되었다. 무량사는 만수

산이 동·서·북 방향을 감싸고 있으며 아늑하고 넓은 평지에 자리했다.

무량사는 셀 수 없다는 뜻으로, 목숨을 셀 수 없고 지혜를 셀 수 없는 극락정토를 지향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무량사에 전해오는 사지에 의하면 이 절은 신라시대 범일국사(810~889)가 창건하였고 신라 말의 고승 무염선사(801~888)가 중수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초창 당시 세워진 건축물은 남아 있지 않으며 그 후 여러 차례의 중수가 있었다고 전한다. 고려 때 중창되어 크게 융성했으며 조선 임진왜란 때 불에 탄 건물들을 인조(1632~1649) 때에 대중창한 후 1872년 원열화상에 의해 중창되었다. 사지에 의하면 초창과 중창기의 사찰 규모는 대웅전, 중층 극락전, 천불전, 웅진전, 명부전, 제석문, 천왕문, 금강문, 해탈문, 오층석탑, 석등, 요사가 30여 동, 부속 암자가 12암자가 있었을 만큼 대가람이었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임진왜란 때 모두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한다. 조선 중기에는 이몽학의 난, 정유재란 때 피해를 입어 절의 유물들 중 석조물을 제외한 대부분이 소실되었다. 또한 조선시대 중기에 진묵대사(1562~1633)가 무량수불에 점안하였고 만수산 기슭에서 나는 나무열매로 술을 빚어 곡차라 하며 많이 마신 것도 유명하다.

천왕문을 들어서면 전각들이 비교적 평탄한 대지에 배치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여유로운 배치(그림 참조)는 산자락에서도 평탄한 지형을 선호하는 백제계 사찰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다. 무량사 경내에는 좌측에 요사채, 우측에 범종각이 있다. 그 뒤로는 명부전과 10세기 경에 만든 것으로 석등의 선이나 비레가 아름다운 무량사 석등(보물 제233호)과 5층석탑(보물 제185호)이 있다. 석등과 오층석탑은 진리의 불을 밝혀 중생의 어두운 마음에 광명을 주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가피가 만천하에 골고루 비치길 바라는 뜻을 담고 있다. 석탑은 창건 당시부터 있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완만한 지붕돌이 목조건물처럼 살짝 반전을 이루어 경쾌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 때문에 부여

의 장하리 3층석탑, 전북 정읍시 영원면의 은선리 3층석탑과 같이 고려시대에 조성된 백제계의 석탑으로 평가받고 있다. 석등과 오층석탑 뒤에는 극락전이 자리하고 있다.

무량사의 대표적인 전각인 극락전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명부전과 도솔암, 태조암이 있다. 특히 태조암은 태조 이성계가 공부하였던 암자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한다. 극락전 서쪽에는 우화궁과 영산전, 영정각, 천불전이 있다. 극락전 뒤편 계곡에는 산신각이 자리하고 있다. 산신각에는 생육신의 한 사람인 매월당 김시습 영정(충남유형문화재 제 64호)을 모셔놓았다. 또한 무량사에는 미륵불 괘불탱(보물 제 1265호), 김시습부도(충남유형문화재 제25호), 당간지주가 있다.

당간지주

무량사 일주문을 지나 들어오는 이들을 반기는 것은 무량사 당간지주이다. 일반적으로 당간지주는 일주문 밖, 즉 사찰의 가장 입구 쪽에서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무량사 당간지주는 일주문을 지난 지점에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사찰에서는 의식이나 행사가 있을 때마다 당⁴²⁾이라는 깃발을 달아둔다. 이 깃발을 걸어두는 기다란 장대를 당간(幢竿)이라 하며 당간의 양쪽에서 이를 지탱하는 두 개의 돌기둥을 당간지주라고 한다. 두 돌기둥의 끝은 안쪽에서 바깥쪽을 향해 둥글게 내려가는 형태로 테두리선을 제외한 장식이 없는 소박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는 통일신라시대에 굳어진 제작방식을 따라 고려 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무량사 당간지주는 현재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57호로 지정되어 있다

42) 불보살(佛菩薩)의 위신과 공덕을 표시하는 장엄용 불구(佛具) 가운데 하나.

오층석탑과 석등

당간지주를 지나 천왕문을 통해 들어가면 무량사 경내가 한눈에 펼쳐진다. 그 한 가운데서있는 것이 바로 각각 보물 제 185호와 제 233호인 무량사 오층석탑과 석등이다. 무량사 오층석탑은 약 7.5m정도의 높이로 2층 기단 위에 세워진 5층 석탑이다. 이 석탑은 백제와 통일신라의 석탑 양식을 갖춘 고려시대 초기 석탑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1층 탑신은 너비에 비하여 높이가 낮아 안정감을 주고 2층 이상부터는 점점 그 높이가 낮아지며 우아한 체감비율과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이 탑은 1971년에 해체·보수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5층 탑신 내부 사리장치와 그 안에서 청동함이 발견되었다. 청동함 속에는 수정병, 다라니경, 자단목, 방분향 등의 불구가 들어있었다. 또한 3층 탑신에서는 금동불좌상이 발견되었으며 1층 탑신에서는 금동아미타여래상, 지장보살상, 관음보살상의 삼존상이 남쪽을 향하여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오층석탑 정면에 자리한 석등은 해체·보수 작업 중 지하에 매몰되어 있던 사각형의 지대석이 발견되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상·하대석에는 연꽃조각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통일신라 전성기의 연꽃무늬와는 차이가 있어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인 10세기 경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극락전과 소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극락전은 무량사의 대웅전 격인 전각으로 소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이 봉안되어 있다. 극락전은 밖에서 보면 2층 구조이지만 내부는 하나로 통하여 있는 특이한 구조로,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2층 불전이다. 이와 비슷한 구조물은 5층 목탑 형식인 법주사 팔상전이나 3층 전각인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각황전, 마곡사 대웅보전 등이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안으로 들어서면 1층부터 천장까지가 뚫려 있는 통층(通層)구조라는 것이다. 그 중에

서도 무량사 극락전은 조선중기의 양식적 특징을 잘 나타낸 불교건축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무량사약지에 의하면 극락전은 1679년에 대규모 보수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1931년, 붕괴의 위험이 있어 대대적으로 보강공사를 시행하였다.

극락전 안에는 아미타여래삼존좌상이 모셔져 있는데 이는 흙으로 빚은 아미타불, 관음보살, 대세지보살로 구성된 아미타삼존불 형식의 불상으로 주존 불인 아미타불의 높이는 약 5.5m에 달한다. 흙으로 빚은 소조불로는 동양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며 17세기에 유행한 대형소조불상 중 대표적인 작품이다. 또한 복장 발원문이 발견되어 조성연대와 작가를 알 수 있어 조선후기 조각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무량사와 김시습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인 『금오신화』를 비롯해 여러 책들을 지은 김시습(1435~1493)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한번 배우면 곧 익힌다.’하여 이름도 시습(時習)으로 지어졌다. 그러던 김시습은 스물한 살 되던 해,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하자 머리를 깎은 후 방랑길에 들어선다. 그는 이 나라 구석구석을 정처 없이 떠돌아 다녔는데, 마지막으로 무량사에 찾아들었다. 그는 이곳에서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고는 “네 모습이 지극히 약하며 네 말은 분별이 없으니 마땅히 구렁 속에 버릴지어다”라고 자신을 평가하였다고 한다. 김시습은 1493년(성종24), 그의 나이 59세에 무량사에서 입적하였다. 죽을 때 화장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으므로 그의 시신은 절 옆에 안치해 두었다. 3년 후 장사를 지내려고 관을 열자, 김시습의 안색은 생시와 다름이 없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의 유해를 불교식으로 다비를 하였는데, 이때 사리 1과가 나와 부도를 세웠다.

매월당 김시습 영정

『매월당집』에 의하면 김시습은 생전에 자화상 두 점을 그렸다고 한다. 매월당 김시습의 영정은 그가 손수 그린 자화상이라지만 실제 김시습 본인이 그린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김시습의 생전에 제작되었으리라 추측되는 이 초상화는 가슴까지 내려오는 반신상이다. 그는 야인의 옷차림에 패랭이 모양의 모자를 쓰고 있다. 바탕은 명주로 되어 있다. 얼굴과 의복은 옅은 살색과 그보다 짙은 갈색을 대비시켜 조화를 이루었다. 수염은 회색 바탕에 검은 선으로 그려, 당시 초상화의 특징을 반영한다. 이 초상화는 원본 그대로 남아 있어 귀중한 작품이다.

매월당 김시습 부도

무진암 옆 부도 밭의 9기의 부도 중 하나가 매월당의 부도라고 전해진다. 조선시대의 양식으로 조각이 우수하고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높이는 284cm로 이중기단 위에 세워진 팔각원당형 부도로 서로 크기가 다른 팔각의 이중 지대석 위에 세워져 있다. 하대석에는 여덟 잎의 복련이 장식되었으며 그 위 중대석에는 구름에 둘러싸인 두 마리 용이 여의주를 다투고 있는 형상이 새겨져 있다. 상대석에는 여덟 잎의 양련이 새겨져 있다. 또한 그 위에는 아무런 조식이 없는 탑신에 지붕의 합각이 뚜렷하여 8귀가 크게 반전된 옥개석을 올렸다.

참고문헌

강봉진, 1968, 『부여 무량사 극락전 실측보고』, 대학건축학회, 건축 제12권 제3호
 신정일, 2004, 『다시쓰는 택리지1』, 휴머니스트
 우리사찰답사회, 2005, 『충청도로 떠나는 사찰기행』, 문예마당

국립부여박물관

2조 이재성, 정예광

소개

국립부여박물관은 1929년 (재)부여고적보존회에서 출발하여 1975년 국립부여박물관으로 승격되었고, 1993년 현재의 박물관으로 이전 개관하였다. 이곳에는 국보 3점과 보물 5점을 비롯해 1000여점의 유물을 전시중이다. 제1전시실은 고대의 생활과 문화라는 주제로 청동기시대부터 사비백제 이전까지의 충남지역의 역사와 생활모습에 대해 전시하였고, 제2전시실은 백제의 역사문화와 사비시대의 생활문화에 대해, 제3전시실은 백제의 미소로 전달되는 파스함이라는 주제로 백제의 불상을 중심으로 전시되어있다. 그 외 야외전시장에는 석조와 비석, 입상이 있고, 9월 27일부터 백제금동대향로 발굴20주년 기념전 ‘하늘에 올리는 염원-백제금동대향로’ 특별전시전이 시작된다.

백제금동대향로 - 국보 제287호

1993년 12월 12일 백제 능산리 절터의 제3건물지에서 발견되었으며 1996년 5월 30일 국보로 공식 지정되었다. 높이 64cm에 무게는 11.8kg이나 나가는 백제시대 최고의 걸작 중 하나이다. 능산리 고분군 주차장 건설 사업을 위한 사전 탐색과정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향로는 원래 고대 동양의 인도,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냄새의 제거, 종교의식, 그리고 구도자의 수양정진을 위

하여 향을 피웠던 도구로 중국에서는 훈로라고도 한다.⁴³⁾ 백제금동대향로는 용 조각 위에 산을 표현하고 꼭대기에 봉황을 세워 외형적으로 신선사상의 지향처인 삼신산⁴⁴⁾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중국의 박산향로와 형태가 비슷하나 그 크기가 중국박산향로에 비해 훨씬 클 뿐만 아니라 용과 봉황이 두드러지게 묘사되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백제금동대향로가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만든 작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로는 1971년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동탁은잔에 새겨진 문양이 산악도-유운문-연꽃과 용으로 이루어진 백제대향로의 구성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과 백제대향로의 산악도에 장식된 수렵도가 같은 시기의 중국 남북조 왕조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다는 점, 그리고 백제대향로의 공간구분방식이 고구려 고분벽화의 공간 구획방식과 비슷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금동대향로는 우리 선조들의 삼신산 중 가장 오랫동안 친근하게 불린 봉래산의 이름을 붙여 백제금동용봉봉래산향로로 불리기도 한다. 금동대향로의 외형적 구성은 ‘연화화생’이라는 불교관을 잘 드러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화화생’이란 연꽃이 만물을 화생, 즉 상서로운 조화로서 탄생시킨다는 불교적 생성관으로 모든 존재의 탄생관을 설명하는 사상이다. 금동대향로의 몸체에서 드러나는 연꽃모양과 몸체 위쪽의 불꽃과 함께 봉래산으로 솟아 오르는 모양을 묘사함으로써 ‘연화화생’의 사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연화화생’을 표현한 백제의 문화재가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동탁은잔이나 부여 외리에서 출토된 산수문전, 산수봉황문전 등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백제에서 ‘연화화생’에 의한 조형원리는 널리 통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43) 국립 청주박물관, 1996, 『백제 금동대향로와 창왕명사리감』, 11p

44) 중국 전설에 나오는 상상의 세 신산 봉래산, 방장산, 영주산을 가리킴. 우리나라에서는 금강산, 지리산, 한라산을 각각의 세 신산에 빗대어 일컬었음.

금동대향로는 봉래산이라는 신선 세계를 표현한 것 이외에 아래에는 수중동물, 즉 음(陰)을 대표하는 용을 묘사하였고 꼭대기에는 양(陽)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봉황을 등장시켜 음양의 체계를 활용하였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백제금동대향로는 그 형태는 중국향로의 형식을 따랐으나 그 크기와 조형성, 회화구도에서는 중국의 그것을 능가하는 독창성과 예술성을 발휘하고 있다. 이를 통해 6세기 말 ~ 7세기 초 백제의 예술 공예품의 수준과 백제인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 훌륭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사택지적비 - 충남유형문화재 101호

1948년 부여군 관북리의 도로변에서 발견되어 현재 국립부여박물관에 소장되어있다. 사택지적비는 화강암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높이 102cm, 폭 38cm, 두께 29cm로 4행 14자 총 56자가 남아있다. 문장은 중국의 사륙변려체로 쓰여 있고 서체는 북위서체와 구양순체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북위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사택지적비는 비의 형식을 갖춘 유일한 백제의 금석문으로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택지적비는 사택지적이 정계에서 밀려난 후에 마음의 안정을 찾아 불법에 귀의하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판독된 비문의 내용이다.

甲寅年正月九日奈祇城砂宅智積(갑인년 정월구일 나지성 사택지적)
 갑인년 정월 구일 내기성의 사택지적은
 懷身日之易往慨體月之難還(강신일지이왕 개체월지난환)
 내 몸의 세월(日月)이 쉽게 가고 돌아오기는 어려움을 한탄한다
 穿金以建珍堂鑿玉以立寶塔(천금이건진당 착옥이립보탑)
 금을 꿰어 진귀한 집을 짓고 옥을 깎아 진귀한 탑을 만들었으니
 巍巍慈容吐神光以送雲(외외자용 토신광이송운)

높고 크며 자애로운 모습은 신비로운 빛을 토하여 구름을 보내고
 巍巍悲猊⁴⁵⁾舍聖明以(아아비모함성명이)
 높고 크며 자비로운 모습은 성스러운 빛을 머금어 ...

한편 비문의 주인공 사택지적의 성 사택은 백제의 8대 성 가운데 하나이며, 일본서기 황극천황 임인년 2월조와 7월조에 백제의 사인 대좌평 지적이 라는 인물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의자왕 시대에 대좌평에 올랐던 높은 귀족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백제창왕명사리감(百濟昌王銘舍利龕) - 국보 제288호

백제창왕명사리감은 능산리 절터의 중앙부에 위치한 목탑터의 심초⁴⁶⁾에서 출토되었다. 사리감은 사리가 들어있는 용기를 넣은 사리함을 봉안하는 작은 감실이다. 사리는 불가에서는 진리의 상징임과 함께 지혜의 완성이며 깨달음의 구체적인 증거이다. 이러한 사리는 부처와 함께 승배의 대상이며 따라서 용기를 비롯한 장엄구에 넣어져 공양 대상인 탑이나 심초석에 봉안하게 된다. 사리감이 출토된 목탑지의 기단규모는 동서 11.73m, 남북 11.79m이며 그 중 심부에 심초석이 깊이 114cm 안팎으로 묻혀있었다. 사리감은 심초석의 가장 자리에서 약 45도 정도 뉘어진 채 발견되었다.

출토된 사리감은 높이 74cm, 가로와 세로 각각 50cm이며 화강암재로 만들었다. 전체적인 형태는 밑면이 비교적 납작하고 윗면이 둥근 아치형이며 사리기를 안치하는 감실의 형태도 역시 아치형이다. 감실은 높이 45cm, 너비

45) 비문은 '猊'자인데, '猊'으로 판독하는 설과 '貌' 판독하는 설이 있다. 이렇듯 판독이 상이한 것은 '猊'이 '猊'과 통하는 글자인 동시에, 東魏, 隋代의 금석문에서는 '貌'를 이렇게도 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느 판독이 옳은 지는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46) 탑의 가운데에 세우는 기둥의 기초

25.3cm이고 깊이는 25.5cm이며 아치형의 둘레에 4cm 깊이로 파내 턱을 두었는데 이곳은 내부에 사리기를 안치하고 감실을 여닫을 수 있는 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감실의 좌우 양쪽 면에는 각각 10자씩 총 20자의 명문이 음각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百濟昌王十三季大歲在 丁亥妹兄公主供養舍利

삼국사기에 의하면 위 내용 중 백제 창왕은 위덕왕으로 성왕의 아들이며 서기 554년 성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따라서 이 사리감은 성왕의 딸인, 창왕의 누이에 의해 567년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것은 능산리 절터가 왕실과 밀접한 관계가 놓여 있음을 암시해주는 내용이기도 하다. 특히 명문을 통하여 능산리 절터의 조성연대가 밝혀져 중요시되고 있으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기록의 정확성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제시되어있으며 나아가 백제시대 사회상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당유인원기공(唐劉仁願紀功碑) - 보물 제21호

663년 문무왕 3년 때 건립된 당유인원기공비는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으며 비 높이가 3.35m이고, 두께가 31cm이며, 귀부는 없고 비신과 이수만 남아있는 상태로 위에 있는 이수는 114cm의 높이와 133cm의 너비다. 비문은 유인원의 가문과 생애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고 여섯 마리의 용이 좌우 양쪽에서 세 마리씩 몸을 휘감고 중앙에 있는 주옥을 다투고 있는 모양이다. 이것은 당나라 전기의 수법을 상징하는 것으로 매우 화려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여석조 - 보물 제194호

원래는 부소산성 아래, 옛 박물관 동쪽에 있었다. 지름 1.42m, 높이 1.57m로 1석(石)으로 조성되어, 역시 1석의 대좌(臺座) 위에 놓여 있다. 모퉁

돌은 원형으로, 상·중·하대(下臺)의 뚜렷한 형식을 갖추었다. 석조에는 연꽃 무늬가 없고, 이 석조가 있던 장소가 백제의 궁궐지로 전해지는 점으로 보아, 사찰 관계의 유물이 아닌 왕궁의 소유물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대석과 석조 표면에 나타난 우아한 곡선미는, 온유한 백제인들의 치석(治石)수법을 잘 나타낸다.

석조 표면에는 ‘大唐平百濟國碑銘云云…’의 마멸이 심한 명문이 있는데, 정림사지 석탑에 새겨진 것도 동일한 내용이다.

참고문헌

서정록, 2001, 『백제금동대향로 - 고대 동북아의 정신세계를 찾아서』
국립청주박물관, 1996, 『백제금동대향로와 창왕명사리감』

부소산성

3조 송명훈

백제 성왕 16년(538) 사비로 천도하면서 쌓은 백제 도성의 배후산성으로 추정된다. 『삼국사기』의 「백제본기」에는 사비성, 소부리성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백마강 남쪽 부소산을 감싸고 쌓은 산성이기에 부소산성이라고 부른다. 한 성에서 웅진으로 백제의 천도과정은 고구려의 침략에 의해 1개월 만에 쫓겨나듯 이루어진 것과 달리 사비로의 천도는 도읍으로서 적합한 입지를 갖춘 백제의 재도약을 위한 시도였다. 북면으로는 백마강이 흘러 천연의 해자 역할을 하였고, 주위에는 비교적 넓은 평야지대가 자리한 비옥한 땅이었다.

부소산성은 백제의 유적이지만 백제멸망 이후에도 보강되어 복합적 축성 기술로 축조되어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비로 천도하며 축조했을 당시는 토루 외곽선을 기준으로 하여 포곡형(包谷形)으로 2,495m가 축조 되었고 이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통일신라시기 대대적인 보완을 하여 테뫼식 축성기법으로 테뫼식 산성 토루가 1,576m 초축, 보완되었다. 고려말이나 조선초경에 군창터 유적 서쪽의 남북을 축으로 196m에 달하는 토루를 축조했다. 이때 이전 시기까지 축조되었던 포곡형, 테뫼형 토성들도 보완공사를 했다고 한다. 각 시대마다 축조와 보완이 이루어져 이를 통해 성곽발달사를 연구하는데 유용한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부소산성 내에는 백제시대 군량을 저장해 두던 군창지 및 백제 때 건물터와 영일루·사비루·고란사·낙화암 등이 남아있다. 사비백제 시대의 도성답게 유사시 외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평상시에는 부소산성 주변 백마강과 부소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이용하여 왕과 귀족이 풍류를 즐길 수 있도록 부여 시가지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누각이나 정자가 지어져 있다. 부소산성 주변에는 부여나성이 있다. 부여나성은 백제 수도였던 부여를 도성과 연결하여 수도를 보호하기 위한 외성으로 부소산성에서 동서로 뻗어있다.

부소산성이 백제 멸망 이후 문헌에서 찾아보기 어렵게 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속에서 잊혀져 있다가 1915년 일제강점기 당시 부여 보통학교 학생인 임춘봉이 치 뿌리를 캐다가 탄화된 쌀을 발견하면서 부소산성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조사, 발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부소산 폐사지

절의 이름과 언제 누가 지었는지, 언제 절이 폐허가 되었는지 기록이나 연

혁이 전혀 밝혀지지 않는 백제의 절터이다. 학자들이 추측하건데 백제 왕궁의 배산과 가까이 있어 백제왕실의 원찰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이름 모를 수수께끼의 절터는 절터에서 출토된 기와문양으로 백제 사비시대 7세기경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부소산 폐사지 만의 특이한 점 중 하나는 입지이다. 대개 사비시대 백제의 절터가 평지에 있거나 약한 경사지에 자리잡고 있는 것과 달리 부소산의 절터는 산의 능선을 따라 건물을 배치하는 지형조건이고 좌우로는 능선이나 산 자락이 없는 시야가 터진 지형조건이다. 지형조건 면에서 동시대의 다른 백제의 절터들에 비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금당후면에 강당이 없다는 점이다. 사찰에 강당이 없는 이유를 추정해보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지형조건이 협소하여 일반적으로 사찰에서 가장 규모가 큰 강당을 배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견과 왕궁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왕실의 원찰로 건립했다는 의견이다. 강당에서 치르는 강학을 치르지 않고 예불기능에만 충실하기 위해 일부로 강당을 짓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고구려에는 주로 일탑삼금당(一塔三金堂)이라 하여 탑을 중심으로 금당 세 채가 둘러싸고 있는 절 배치형식이 많은 반면, 백제에서는 주로 일탑일금당(一塔一金堂)이라 하여 탑과 금당이 하나씩 한 줄로 서게 배치한 형식으로 주로 절을 건축했다. 미륵사지나 능산리사지 등 백제의 사찰유적지 같이 부소산 폐사지도 일탑일금당 형식으로 탑과 금당이 배치되어있다.

부소산 폐사지는 금당에서 목탑까지, 목탑의 기단크기, 목탑에서 중문, 중문에서 중문 전면 축대까지 등간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사전에 계획되어 건립된 것임을 짐작케 한다.

정림사지

3조 강성훈

사적 제 301호 정림사지는 부여에 남겨져 있다. 정림사라는 이름은 고려 시대에 재건축될 때 사용된 평와에 적힌 ‘태평팔년무진정림사대장당초(太平八年戊辰定林寺大藏堂草)’이라는 문장명이 발견되면서 알려진 이름으로, 백제 시대에도 이렇게 불렸는지는 알 수 없다. 정림사는 부여도성의 정중앙. 왕궁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 건설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복원된 정림사지를 정면에서 보면, 탑과 복원된 강당이 일직선상에 놓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백제의 가람배치 양식으로 중문, 석탑, 금당, 강당이 일직선으로 배치되어있고, 그 양 옆을 회랑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이다. 각 건축물의 크기는 중문이 정면 3칸, 측면 1칸이며 금당은 정면 7칸 측면 5칸, 강당도 금당과 마찬가지로 정면 7칸이지만 측면은 그보다 좁은 3칸이다. 건축물들의 옆을 감싸고 있는 회랑은 특이하게 사각형이 아닌 사다리꼴의 모양으로 북쪽으로 갈수록 넓어진다.⁴⁷⁾

정림사는 과거 백제의 멸망과 함께 탑만을 남기고 소실되었고, 기록에는 1주일간 불에 탔다고 한다. 이후 고려 때 중건되었지만 현재는 이 역시 남아있지 않다. 현재 강당은 1993년 복원되었으며, 회랑 등 주요 건축물의 기단부도 복원된 상태이다.⁴⁸⁾

정림사지 오층석탑

47) 趙焘哲, 1997, 위의 논문, 184쪽.

48) 1400년 전 백제의 혼 담긴 부여 정림사 복원된다, 『뉴스1』, 2012.06.11 16:37:16, <http://news1.kr/articles/698759>, 2012.09.13.

정림사지의 중앙에는 국보 제 9호로 지정된 정림사지 오층석탑이 있다. 하나의 기단이 5층의 탑신을 받치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는 이 석탑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 우선 기단의 사면 중간과 모서리에 기둥돌을 끼워져 탑신을 받치고 있다. 탑신의 몸돌은 위로 올라갈수록 크기를 급격히 줄여 경사를 주면서도, 탑신의 사이사이에 위치한 지붕돌을 얇게 만들어 이 경사를 완만하게 보이도록 함으로써 경쾌함을 느낄 수 있게 만들었다. 이러한 경쾌함은 지붕돌의 모서리들이 살짝 올라가있어 더욱 강조된다. 이 지붕돌을 받치고 있는 받침돌이 모서리가 없도록 둥글게 만들어져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탑신부를 자세히 보면 목조건축에서 쓰이는 배흘림양식이 남아있어, 위로 갈수록 좁아져 곡선을 만들고 있다.⁴⁹⁾

이 탑에는 당나라가 백제를 정벌한 이후 새긴 ‘대당평백제국비명(大唐平百濟國碑銘)’이라는 비명이 남아있다. 이 비명에는 백제를 멸망시킨 소정방의 공적이 적혀있기 때문에 과거 이 탑을 당나라가 남기고간 ‘평제탑’이라고 낮추어 부르는 이유가 되었다. 하지만 현재 연구에 의하면 이 비명을 위해 탑을 건립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탑에 최대한 빨리 비명을 새김으로써 자신들의 승전을 보다 빨리 백제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했던 것으로 보이며, 명백히 당나라의 유산이 아닌 백제 고유의 석탑이다.⁵⁰⁾

이 탑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함께 유이하게 남은 백제의 석탑이며 우리나라 석탑의 발전 양상을 잘 보여주기에 큰 의의를 가진다. 미륵사지 석탑이 목탑양식이 석탑양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면, 정림사지 오층석탑은 미륵사지 석탑 이후 목조건축양식을 더욱 세련되고 창의적으로 석탑에 적용

49) 최완수, 2011, 「부여 정림사탑에 새겨진 비명」, 『한국 불상의 원류를 찾아서』, 대원사.

50) 최완수, 2011, 위의 책.

시켜 석탑의 정형을 이루었고 후대 우리나라 석탑들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정림사지 석불좌상

정림사는 고려 현종대인 11세기에 중건되는데, 이 때 강당을 대장전으로 만들고 그 안에 들여놓은 본존불이라고 추정되는 것이 보물 108호 정림사지 석불좌상이다. 이 석조불상은 정림사지 5층석탑과 마주보고 배치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그 자리에 있던 강당을 복원하여 강당 안으로 옮겨져 전시되고 있다. 오랜 세월동안 비바람에 마멸되어 정확한 형태나 세부적인 표현들은 알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왜소한 모습을 하고 있다. 가슴으로 올린 왼손의 표현으로 보아 왼손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싸쥔 비로자나불을 형상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불상이 앉아있는 대좌는 상대·중대·하대로 구성되며, 상대에는 연꽃이 활짝 핀 모양의 양연이 조각되어 있고, 중대의 8각간석에는 안상이 조각되어 있으며, 하대에는 연꽃이 뒤집힌 모양인 복연과 안상이 중첩되어 조각되어 있다.⁵¹⁾ 이 좌상은 11세기 고려 불상 양식을 알 수 있는 단서이자 고려시대의 변성을 보여주는 유물로 가치가 높다.

왕흥사지

3조 이종영

왕흥사지는 부여군 규암면 신리에 있다. 옛 사비성 북쪽에 있는데 백마강

51) 한국예술정보, 2010, 「부여 정림사지(扶餘定林寺址)」, 『한국의 고건축』, 한국 콘텐츠진흥원.

을 사이에 두고 낙화암과 마주보고 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두 사서에 왕흥사의 이름은 모두 다섯 번 등장하는데, 이는 백제의 여러 사원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다. 왕흥사탑의 착주가 세워진 577년으로부터 백제의 존속 연대가 불과 백년도 되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 사비백제에 있어서 왕흥사라는 공간이 갖는 의미가 남달랐음을 유추할 수 있다.

현재의 왕흥사 터는 1934년에 왕흥명 고려 기와가 수습되면서 왕흥사의 터로 추측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대체적인 면모가 드러나게 되었다. 특히 목탑터 심초부에서 사리구가 발굴되었고 그 중 청동으로 된 내함에서 명문이 확인되면서 더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명문에는 “정유년(577년) 2월 15일, 백제왕 창이 죽은 왕자를 위해 착주를 세웠다. 이 사리 두 매를 묻을 때 신묘한 변화가 일어나(사리가) 세 매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어 왕흥사가 577년 위덕왕에 의해 세워졌음이 밝혀졌다. 위덕왕은 성왕의 아들로 대신라전쟁을 주도하였다. 일본에 건너가 쇼토쿠태자의 초상을 그렸다는 아좌태자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기존 삼국사기 기록에는 “법왕 2년(600년) 봄 정월에 왕흥사를 창립하고 승려 30인을 두었다.”고 되어 있고 또 삼국유사에도 “(법왕이) 다음 해 경신(600년)에 30인의 승려를 두고 당시의 도성인 사비에 왕흥사를 창건할 때 겨우 그 터만 닦다가 돌아갔다.”고 되어있어 법왕 때(600년)의 창건으로 알려져 왔는데 사리함 명문이 발견되면서 위덕왕 부여창이 죽은 아들을 위하여 577년에 축조하기 시작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다만 법왕은 왕흥사를 다시 중창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삼국유사 기록에는 “무왕이 즉위하여 아버지(법왕)의 사업을 계승하여 수십 년이 나 완공하였다. 이를 미륵사라고도 한다.”고 되어있고 또 삼국사기에도 “무왕 35년(634년) 봄 2월 왕흥사가 준공되었다.”라고 되어있는데 그 기간을 볼 때 대

단한 규모의 중창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근래의 발굴 결과를 통하여 왕흥사는 일탑일금당의 가람형식으로 밝혀졌다. 목탑터와 금당터와 강당터가 일직선상에 있고 좌우로 회랑 등의 터가 발굴되었다. 목탑은 정면3칸 측면3칸으로 터의 규모로 볼 때 오층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강당지는 동서 46.8m, 남북 19.2m로 거대한 규모이다. 정림사와 군수리사지, 금강사지, 능산리사지, 부소산 폐사지 등 사비 지역의 주요 사원이 대부분 일탑일금당 형식인 것을 볼 때 일탑일금당 형식이 백제의 일반적인 가람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독특한 것은 목탑 아래 입구로 길게 석축이 쌓여 있고 그 끝에서 선착장이 확인된 것이다. 당시 왕흥사 중문 바로 앞까지는 백마강이 흐르고 이 선착장과 긴 석축을 통하여 왕흥사를 드나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삼국유사의 기록에는 “그 절은 산을 등지고 물을 내려다보며 화목이 수려하여 사계절의 아름다운 경치를 갖추었다. 국왕이 늘 배를 타고 강을 건너 절에 들어와서 그 형승의 장려함을 감상하였다.”라고 되어 있어 발굴 결과와 문헌의 서술이 상응함을 볼 수 있다. 이 글 자체로도 왕흥사의 풍광은 아름다웠을 것으로 느껴진다. 강과 바로 접해있어 강에 비친 장려한 목탑과 사원의 모습은 무척 아름다웠을 것이다.

사서에서 왕흥사는 “태종무열왕 7년(660년) 11월 5일 국왕(신라 태종무열왕)이 계탄을 건너 왕흥사 잠성을 공격하여, 7일 만에 승리하였다. 이 전투에서 7백명의 머리를 베었다.”라는 기록과 함께 자취를 감춘다. 하지만 발굴 결과로 왕흥사는 고려와 조선시대까지 보다 소략한 규모이기는 하지만 법등을 밝히는 일을 지속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궁남지와 군수리사지

3조 이종영

궁남지

궁남지 일대는 1930년대에 약 3만여 평에 달하는 저습지였다. 1940년대까지는 백제 시대의 흔적으로 보이는 연못과 섬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석축이 남아있었다고 한다. 삼국사기에는 “무왕 35년(634년) 3월에 궁성 남쪽에 못을 파고 물을 20여리나 끌어들였으며, 네 언덕에 버드나무를 심고, 못속에 섬을 만들어서 방장선상에 비기었다.”는 기록과 “무왕 39년(638년) 3월에 왕이 비빈들과 함께 큰 연못에 배를 띄우고 놀았다.”는 기록이 있어 연못과 석축의 흔적은 주목되었고 궁남지로 비정되었다. 또한 이 일대 사람들이 이 곳을 ‘마래방죽’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백제 무왕이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마를 캐어 생계를 연명하였다는 기록과 함께 주목되어 무왕과 관련된 지역으로 이해되어 왔다.

궁남지가 현재의 모습으로 정비된 것은 1965~1967년 초대 국립부여박물관장인 홍사준에 의해서이다. 정비 과정에서 백제시대 토기편과 기와편이 출토되었다. 이후 1990년대에 들어 지속적인 발굴조사가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의 궁남지로 알려진 일대가 백제 무왕과 관련된, 문헌에서 지칭하는 궁남지인지에 관하여서는 뚜렷한 증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다만 발굴조사 과정에서 백제시대 수전경작지가 발견되는 등 예상 밖의 성과가 있었다.

군수리사지

궁남지 서쪽에 있다. 군수리사지는 일제강점기인 1935~1936년 2차에 걸쳐 백제시대 가람지에 대한 최초의 학술적 발굴조사가 실시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발굴조사를 통하여 중문, 탑, 금당, 강당이 남북일직선상에 배치되고

사방으로 회랑을 갖춘 일탑일금당 가람배치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일탑일금당의 가람배치는 백제 전형의 가람배치로 인정되었다. 또한 백제 건축 기단의 한 특징인 기와를 쌓아 만든 기단이 확인되었고 절터 전역에서 무수한 연화문와당이 발굴되었다.

사원의 규모는 매우 장려하였던 듯하다. 목탑은 정면5칸, 측면5칸의 규모로 확인되었다. 금당의 규모는 동서 27.2m, 남북 18.18m로 정면 9칸인데 이는 미륵사지의 중금당, 동서26.2m, 남북 20.6m, 정면5칸, 측면4칸 규모에 육박하는 거대한 규모이다. 강당 역시도 정면 45m, 측면 18m으로 상당히 큰 규모의 건축지이다.

목탑 심초석 부근에서는 금동미륵보살입상과 납석제여래좌상이 출토되었다. 이 두 불상을 비록 작은 크기이지만 백제의 미의식을 잘 담고 있는 중요한 불상들이다. 또한 목탑지 심초석에서 일제시대 발굴 보고서에 따르면 칠지도가 출토되었다. 길이는 1자 7치라고 한다. 하지만 보고서에도 자세한 내용이 없고 현재 그 소재가 불명이다.

일탑일금당이라고 보는 가람배치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금당지 동쪽에서 와적기단으로 되어 있는 건물지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일탑삼금당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궁남지로 추정되는 연못과의 관계는 매우 유기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군수리사지는 동쪽으로 큰 못을 낀 형태의 사원이 된다. 연못의 동쪽에 서서 사원의 모습을 보면, 해질녘에는 목탑과 금당 등 사원의 장려한 건물들이 햇빛을 입어 금빛으로 장엄하게 보였을 것이다.

능산리 유적

3조 박성현

능산리 고분군

백제 무령왕의 뒤를 이은 성왕은 서기 538년 웅진 남쪽에 드넓은 들을 꺼안은 사비로 수도를 옮긴다. 사비(지금의 부여)는 660년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백제의 마지막 수도로서 기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백제를 다스렸던 왕들과 왕족 그리고 당시의 귀족들의 무덤은 부여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위치했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정확한 위치는 아직까지 불분명하다.⁵²⁾ 다만 학계에서는 능산리 고분군과 주변에 분포한 무덤들이 이에 해당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능산리 고분은 앞뒤 2줄로 3기씩 있고, 뒤쪽 제일 높은 곳에 1기가 더 있어 모두 7기로 이루어져 있다. 1915, 1917년에 일본인에 의해 6기의 고분들이 발견되었고,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1기는 1971년 보수공사 때 발견되어 추가되었다.⁵³⁾

고분의 겉모습은 모두 원형봉토분이고, 내부는 널길이 붙은 굴식돌방무덤(횡혈식 석실분)으로 뚜껑돌 아래는 모두 지하에 만들었다. 굴식돌방무덤은 웅진 말부터 유행했던 백제 후기의 무덤양식으로 입구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입구는 추가장(追加葬) 혹은 합장(合葬)과 같은 다장제(多葬制)와 밀접한

52) 지금까지 고고학적인 발굴조사에서 왕릉으로 밝혀진 무덤은 공주 송산리에서 발굴된 백제 무령왕이 유일하다. 이는 무령왕의 무덤임을 알리는 글자를 새긴 지석이 능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53) 일본인 구로이다, 세끼노가 조사하여 각 고분들을 동하총, 중상총, 서하총 등으로 명명하였다. 동하총(東下塚)이라고 명명한 까닭은 무덤 군(群)의 동쪽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다른 고분들의 명칭 또한 이러한 원리가 적용되었다.

관련이 있다.⁵⁴⁾ 한편, 이들의 천장구조는 형태에 차이가 있는데, 중하총과 같은 터널식이 있는가 하면, 중상총과 같은 고임식의 구조가 있고 나아가 동하총과 같은 수평식도 있다. 학계의 연구에 의하면 백제의 천장구조는 터널식에서 고임식, 수평식으로 발전했다. 따라서 천장구조를 통해 연대를 추정할 수 있으며, 백제 무덤문화의 발전 양상 또한 파악할 수 있다.

능산리 고분군이 왕릉이라면 과연 어떤 왕의 무덤인가? 학계에서는 능산리 고분이 분명 사비백제시대의 왕과 그 가족이 묻혀 있는 성역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근거는 첫째로, 무덤들 곁에서 명복을 비는 원찰(願刹)인 능사(陵寺)가 1993년에 발견되었고, 2년 후인 1995년에는 능사 터에서 백제 위덕왕의 명복을 비는 백제창왕명석조사리감이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중하총은 무덤 천장이 소위 터널식으로 축조되어, 웅진시기의 무령왕릉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중하총은 무덤의 축조양식으로 볼 때,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한 성왕의 무덤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무덤의 천장구조가 터널식에서 고임식으로 발전한 것을 염두 한다면, 천장이 고임식 구조인 동하총은 성왕의 아들인 위덕왕의 무덤일 가능성도 있다. 그 외 무덤들도 왕족 또는 다른 왕의 무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위덕왕의 무덤이라고 추정되는 동하총은 벽면에 있는 사신도로 유명하다. 북벽에는 현무, 남벽에는 주작, 동벽에는 청룡 그리고 서벽은 백호, 천장에는 연꽃과 구름문을 그렸다.⁵⁵⁾ 지금은 보존상태가 나빠 자세한 모습을 볼 수 없다. 동하총의 사신도는 고구려 고분벽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고구

려와의 교류를 통해 도교를 깊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표현한 증거가 된다.

능산리 사지

능산리 고분과 부여나성 사이에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능사(陵寺)는 원래 무덤들 곁에서 명복을 비는 원찰(願刹)의 성격을 띠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는 사(寺)의 터만 남아있다

1985년 능산리 서 고분군 일대 배수로 공사 도중에 여러 점의 연화문 와당이 신고 되어 백제시대 건물일 가능성이 처음 제기되었다. 그 이후 꾸준한 현장조사에서 다수의 연화문 와당과 초석 등이 발견되어 건물유적이 존재한 것으로 확실시 되었다. 그러던 중, 1993년에 이 유적이 사찰의 터임을 확인하였고, 1995년 능산리 절터의 중앙부에 자리한 목탑 자리 아래에서 백제 위덕왕의 명복을 비는 백제창왕명석조사리감이 출토되었다. 이 사리감은 좌·우 양 쪽에 각각 중국 남북조 시대의 서체인 예서(隸書)풍의 글자가 10자씩 새겨져 있는데 이는 백제 역사 연구에 새로운 금석문 자료로서 백제와 중국 남조와의 문화교류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새겨진 명문의 내용은 사리를 봉안한 연대와 공양자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리감을 통해 사찰이 위덕왕 14년인 567년에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명문(銘文)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百濟昌王十三季太歲在 丁亥妹 公主供養舍利

이 사리감은 성왕(聖王)의 아들로 554년 왕위에 오른 창왕(昌王)[위덕왕(威德王)]에 의해 567년 만들어 졌으며, 성왕(聖王)의 따님이자 창왕(昌王)의 여자 형제인 공주가 사리를 공양하였다.

이 밖에도 능산리 사지에서 출토된 가장 대표적인 유물은 백제금동대향로이다. 능사건물지의 서회랑 북단 공방터에서 금동제품, 칠기편, 토기류, 기와

54) 예를 들면, 능산리 고분군의 동하총은 1인용 널받침이 2인용으로 확장된 것으로 보아, 먼저 묻고 난 다음에 죽은 사람을 같이 묻은 부부합장무덤임이 밝혀졌다.

55) 조유전, 2005 「백제 고분발굴이야기」 『주류성』(백제문화개발연구원 역사문고 16), 287쪽

류 등 450점의 유물과 함께 출토되었다. 이 향로는 중국 한나라에서 유행한 박산향로의 영향을 받은 듯 하지만, 중국과 달리 향로에 표현된 산들이 독립적·입체적이며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창의성과 조형성이 뛰어나고 불교와 도교가 혼합된 종교와 사상적 복합성까지 보이고 있어 백제시대의 공예와 미술문화, 종교와 사상, 제조 기술까지도 파악하게 해 주는 귀중한 작품이다.

능사(陵寺)는 왕실에서 발원한 국찰(國刹)로서 능산리 고분의 고인을 위로하는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찰이었다. 그런데 사찰이 없어졌음에도 능산리 고분의 주인이 누구인지 증거 함으로써 백제의 역사학, 고고학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사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계룡산 갑사

6조 조광희, 유진영, 윤창민

갑사 창건 설화

계룡산(鷄龍山)의 서편 기슭인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에 위치한 갑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입적하고 400년 지나 인도를 통일한 아쇼카왕이 부처님의 법을 널리 펼치고자 큰 서원을 세우고 사리보탑에 있던 부처님의 사리를 동서남북을 관장하는 사천왕들로 하여금 마흔여덟 방향에 봉안케 하였다. 이때 북쪽을 관장하던 다문천왕(비사문천왕)이 동방 남섬부주 가운데서도 명산인 계룡산의 자연 석벽에 봉안한 것이 지금의 천진보탑이다. 그 후 고

구려 승려 아도화상(阿道和尚)이 신라최초 사찰인 선산 도리사(桃李寺)를 창건(創建)하시고 고구려로 돌아가기 위해 백제땅 계룡산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때 산중에서 상서로운 빛이 하늘까지 뻗쳐오르는 것을 보고 찾아가 보니 천진보탑이 있었다. 이로써 탑 아래에 배대(拜臺)에서 예배하고 갑사를 창건하였는데, 이때가 420년(백제 구이신왕 원년)이다.

철당간

사찰에 행사가 있을 때 사찰 입구에 당(幢)이라는 깃발을 달아두는데 이 깃발을 달아두는 장대가 당간(幢竿)이고, 장대를 양쪽에서 지탱해 주는 두 돌기둥은 당간지주라고 한다. 갑사(甲寺) 동남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철당간은 유일한 통일신라시대의 당간이다. 네 면에 구름무늬를 새긴 기단(基壇) 위로 철당간을 높게 세우고 양 옆에 당간지주를 세워 지탱하였다. 철당간은 지름 50cm의 철통 28개를 연결하였던 것이나, 고종 35년(1899) 폭풍우에 벼락을 맞아 4절이 부서졌다고 하며 현재는 24절만 남아 있다.

당간을 지탱하는 두 개의 지주는 동·서로 마주 서 있으며 꾸밈이 없는 소박한 모습이다. 기둥머리는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안쪽에 구멍을 뚫어서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있다. 기둥머리의 곡선과 기단부의 단순한 조각이 잘 어우러져 소박하면서도 장중한 느낌을 준다. 또한 통일신라 전기인 문무왕 20년(680)에 세워진 것이라고 하지만 확실한 근거는 없고, 양식상으로 보아 통일신라 중기의 양식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갑사 전각

갑사는 효종 때 중건되어 조선후기 사찰의 일반적인 가람 배치 양식으로 지어졌다. 갑사 내 조선 후기 사찰에는 민간 신앙적 요소가 있으며 대웅전은

안쪽에 위치하고 토속 신이나 고승의 영정을 모시는 곳은 대웅전의 바깥에 자리 잡아 삼단 형식을 보여 준다.

갑사 강당

창건된 것은 만력 42년(광해국 6년, 1614년)이다. 앞면 3칸·옆면 3칸의 규모이며 지붕의 옆선이 사람 인(人)자 모양인 맞배지붕집이다. 가운데 부분이 볼록한 배흘림의 기둥 위에 지붕 처마를 받치면서 장식을 겸하는 공포를 짠데, 공포는 기둥 위와 기둥 사이에도 있는 다포식 건물이다. 단청은 완전히 퇴색되어 무늬의 흔적만 남아 있다. 전체적으로 기교를 부리지 않은 조선시대 후기의 웅장한 건축물이다.

갑사 대웅전

갑사 대웅전은 절의 중심에 있는 법당으로 원래는 현재 대적전이 있는 근처에 있던 것으로 보이며, 다시 지을 때 이곳에 옮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앞면 5칸·옆면 4칸으로 1층이며, 옆면이 사람인(人)자 모양으로 맞배지붕 건물이다. 기둥 위에서 지붕 처마를 받치는 공포가 기둥 위와 기둥 사이에도 있는 다포양식이다. 가운데 3칸은 기둥 간격을 양 끝칸 보다 넓게 잡아 가운데는 공포를 2개씩, 끝 칸에는 1개씩 배치하였다. 내부는 우물천장으로 되어있고, 불단을 만들어 석가여래불상을 모시고 있다. 그 위에는 화려한 단집을 설치하였다. 갑사 대웅전은 조선시대 중기 건축양식을 엿볼 수 있는 건물이다.

갑사 대적전

대적전은 원래의 금당지 옆에 있는 건물로 앞면 3칸·옆면 3칸이며, 지붕은 옆면이 여덟 팔(八)자 모양으로 가장 화려한 팔작지붕이다. 기둥 위에서 지붕

처마를 받치는 공포가 기둥 위와 기둥 사이에도 있는 다포식 건물이다. 가운데 칸은 공포가 2개이며, 양 끝칸은 1개의 공포로 이루어졌다. 내부에는 불단을 설치하고 위에 천장을 한단 올림으로써 단집의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내부 단청이 매우 아름다운 편이다.

갑사 표충원

표충원은 승병장(僧兵將) 휴정(休靜) 서산대사(西山大師), 유정(惟政) 사명대사(四溟大師), 기허당(騎虛堂) 영규대사(靈圭大師)의 영정을 봉안하고 있으며, 영조 14년(1738년)에 임진왜란 당시 왜적을 격퇴한 공을 기리기 위해 세운 전각이다.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자연석 기단 위에 둥근 기둥을 써서 세운 맞배 건물이다. 앞면 3칸에는 쌍여닫이 띠살문을 달았으며 양옆에는 판벽을 설치하였다. 갑사 경내 좌측편으로 조금 언덕진 곳에 자연석 담장으로 둘러져 1973년에 세운 의승장 영규대사사적비와 일곽을 형성하고 있다.

갑사 삼성각

삼성각은 칠성, 산신, 독성의 삼성을 모신 곳이다. 일반적으로 각각의 건물을 따로 지어 삼성을 모시는데, 이곳은 삼성각 안에 같이 모시고 있는 특징이 있다. 대웅전 우측 자연석 기단 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정면 3칸 측면 2칸의 겹처마 맞배지붕이다. 정면에 여닫이문이 있고 공포는 이익공 양식으로 처리했으며, 내부는 우물마루 바닥에 불단을 설치하여 칠성 탕화 좌우로 산신 탕화와 독성 탕화를 봉안하고 있다.

갑사 팔상전

팔상전은 석가모니불과 팔상탱화, 그리고 신중탱화를 모시고 있으며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장식하여 만든 공포가 기둥 위와 기둥 사이에도 있는 다포 양식으로 꾸며 격식을 갖춘 전각이다.

갑사의 유물

갑사 삼신불괘불탱화

길이 12.47m, 폭 9.48m, 조선시대 효종 원년(1650년)에 완성. 괘불이란 절에서 큰 법회나 의식을 행할 때 앞뜰에 걸어놓고 예배를 드리던 대형 불교 그림을 말한다. 이 거대한 괘불탱 제작에는 8명의 화사를 포함하여 무려 111명의 인원이 참여하였다고 한다. 이 탱화는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석가모니불과 노사나불 등 삼신불이 진리를 설법하고 있는 장면을 그린 괘불로서 비로자나삼신불화(毘盧舍那三身佛畫)라고도 한다. 삼신불은 성불 이전의 몸을 뜻하는 생신과 연기법을 깨달은 자로서의 불신, 즉 법신의 이신불 사상이 발달되어 삼신불 사상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전체적으로 상·중·하 3단구도의 군도 형식으로 상단은 천상세계를 상징하



고 중단은 삼신불, 하단은 외호중(外護衆)과 청문보살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같은 삼신불화 구도는 조선조 후기에 걸쳐 크게 유행한 형식이다. 중앙 가운데는 법신불(法身佛)인 비로자나불로서 등 뒤에 화려한 키 모양 광배가 있으며 결가부좌를 하고 가슴앞에서 손을 모아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싼 지권인의 손모양을 하고 있다. 오른쪽에 보이는 보신불(報身佛) 노사나불은 머리에 화려한 보관을 쓰고 두 손을 어깨까지 들어올려 설법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왼쪽에 보이는 석가불은 악귀를 물리친다는 뜻의 손모양인 항마촉지인을 하고 있다. 이 같이 비로자나삼존은 화면의 중단을 빈틈없이 채우며 좌정한 모습을 보인다. 모두 같은 크기로 녹, 홍, 청색이 섞여 사용되었지만, 홍색이 주를 이루어서 상, 하단에 비해 돋보이도록 강조되었으며, 온후한 분위기를 느끼게 해준다. 또 다른 특징은 얼굴에 비해 높이 솟은 육계, 괴상한 귀, 가는 팔뚝에 비해 큰 손, 상체에 비해 굵은 다리 등이 조선조 후기불화에 나타나는 기형적이고 비현실적인 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윗부분에는 상서로운 5색 구름이 떠 있으며, 그 아래로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 8대보살과 제석 범천이 에워싸고 14대나한 금강역사, 벽지불 등이 있다. 좌, 입상 등 변화 있는 모습으로 본존쪽이나 정면을 향하고 있다. 하단에는 중앙에 앉아 설법을 청하는 청문보살 사리불이 있고 좌우에 문수, 보현보살과 사천왕이 호위하고 있다. 발 아래로는 상단과 같이 5색 구름이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여 장엄한 모습을 보인다. 또, 하단 중앙의 공간을 개방하여 조밀해지기 쉬운 구도에 변화를 주었다.

부도

높이 205cm, 고려시대 (통일신라시대의 부도양식을 견비) 본래의 위치는 갑사의 중사자암에 위치했던 것을 현 대적전 앞으로 이전하였다고 전한다.

대석(臺石), 탑신(塔身), 옥개(屋蓋)와 상륜부(上輪部)를 갖춘 팔각원당형(八角圓堂形)으로 상륜부는 오래전에 결실되었다고 전한다. 전체가 8각으로 이루어진 모습이며 3단의 기단(基壇) 위에 탑신(塔身)을 올리고 지붕돌을 얹은 형태이다.

높직한 바닥돌 위에 올려진 기단은 3개의 돌로 나뉘는데 특이하게도 아래층이 넓고 위층으로 갈수록 차츰 줄어든다. 아래받침돌에는 사자·구름·용이 입체적으로 조각되어 있다. 원형에 가까운 가운데받침돌에는 각 귀퉁이마다 꽃 봉우리가 솟아 있으며, 그 사이사이에는 주악천인상(奏樂天人像)이 양각되었다. 윗받침돌에는 32엽의 연꽃 연화문(蓮花紋)을 돌려 새겼다.

탑신 역시 8각으로 각 면에 문과 열쇠를 새겨 놓았고, 그 사이에는 지물을 든 사천왕입상(四天王立像)을 도드라지게 조각하였다. 지붕돌은 팔각의 옥개석은 원추 모양을 하고 있는데, 목조건물의 8각정 지붕형태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데 서까래, 부연, 용마루 등이 세밀하게 조각되어 있다. 상륜부는 후대에 만들어진 보주(寶珠 : 연꽃봉오리모양의 장식)를 올렸다. 섬세하고 화려하지만, 옥개 부분의 너비가 너무 좁고 높게 솟아 균형감이 상실되었고, 하부에 비해 상부 조각 솜씨가 다소 섬약해진 느낌이 든다.

동종

높이 131cm, 입지름 91cm. 조선초기 선조 17년(1584년)에 만들어짐. 국왕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며, 갑사에 봉안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전체적으로 어깨부터 중간까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으며, 중간 지점부터 입 부분까지 직선으로 되어있다. 종 꼭대기에는 음통이 없고, 2마리 용이 고리를 이루고 있다. 종의 어깨에는 여의두입화형(如意頭立花形)으로 꽃무늬를 돌렸고, 바로 밑에는 위 아래로 나누어 위에는 연꽃무늬를, 아래에는 범자(梵字)를 촘촘히

새겼다. 그 아래 4곳에는 사각형모양의 유곽을 두었는데 밖에는 당초문(唐草紋)을 배치하였고 그 안에는 연화문(蓮花紋)을 9개 두었고 그 속에 돌기된 유두가 있다.

유곽 밑에는 종을 치는 부분인 구름무늬위에 연화문의 원형 당좌가 있다. 당좌와 당좌 사이에는 구름위에 석장(錫杖)을 잡고 있는 장신의 지장보살이 서 있다. 범종 보살상으로 지장보살상이 표현된 것은 이 종의 거의 유일한 예이다. 종 입구 부분에는 돌기된 2개의 띠를 만들고 그 안에 활짝 핀 연꽃과 측면으로 표현된 연꽃(보상화)을 돌려 동종의 장엄미를 돋보이게 하였다.

이 종의 연곽과 보살 입상 사이의 여백 면에는 ‘시유만력11년 7월에...’로 시작하는 명문이 양각되어 있다. 그 내용은 왜란이 일어났을 때 종들을 모아 무기를 만들었는데, 갑사는 국왕의 성수를 비는 곳이어서 갑신년에 새로이 대종을 만들었다는 이력이다. 시대적 상황이나 조성 배경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금석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곽의 좌우 하단부에는 장방형의 구획 안에 분야별 시주의 내용과 시주자 명단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한편 이 종은 일제시대 때 헌납이라는 명목으로 공출해 갔다가, 광복 후 반출대기중이던 것을 찾아 갑사로 옮겨온 것으로 민족과 수난을 같이 한 동종(銅鐘)이다

선조 2년간 월인석보 판목

세조 5년(1459년). 석보는 석가모니불의 연보 즉 그의 일대기라는 뜻이다. 이 판목은 『월인석보』(月印釋譜)를 새겨 책으로 찍어내던 판각으로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것 중 유일한 판목이다. 이는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을 본문으로 하고 『석보상절』(釋譜詳節)을 설명으로 하여 석가모니의 일대기와 공덕을 칭송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불교대장경이다. 훈민정음 이후 제일 먼저

나온 책으로 당신의 글자와 말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국어학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월인석보』는 본래 57매 233장으로 모두 24권이었다고 하는데, 갑사에는 현재 21권 46매가 전해지고 있으며, 보물로 지정된 것이 31판이고 비지정이 15판이다. 이 판목



은 선조 2년(1569) 충청도 한산에 사는 백개만(白介萬)이 시주하여 활자를 새기고, 충남 논산 불명산 쌍계사에 보관하였다가 현재 갑사에 소장되어 있다. 계수나무에 돌을새김으로 새겼고, 판목의 오른쪽 아래에 시주자의 이름과 새긴 이의 이름이 있다.

참고문헌

유철상, 2010, 『사찰여행 42』, 상상출판.

대한불교진흥원 외, 2006, 『한국의 사찰 하』, 대한불교진흥원.

박남수, 심대섭, 최응천, 1999, 『갑사와 동학사』, 대원사.

김선태, 1990, 「충남지방의 괘불조사 : 마곡사, 갑사, 신원괘불을 중심으로」, 국립문화재 연구소.

석장리 유적

5조 이재원, 최지아

석장리 유적의 발굴과정과 연구

석장리 유적을 처음 찾은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라 미국인 대학원생들이었다. 앨버트 모어(Albert Mohr)와 그의 아내 샘플(L.L. Sample)은 한국에 와서 한국의 선사시대 유적을 조사하다가 석장리의 옛 쌓임층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곳의 무너진 층에서 뎀석기를 찾았다. 그 후 석장리의 발굴⁵⁶⁾은 10년 동안 이루어졌다. 1990년에 석장리 유적지를 보존지역으로 정했고, 유적지 범위 확인을 위한 제 11차 발굴을 하였으며, 1992년에는 석장리에 대해서 덜 밝혀진 여러 문제를 밝히기 위해 12차 발굴을 하였다.⁵⁷⁾ 이 때 부서져서 없어진 줄 알았던 중석기 문화층과 후기 구석기시대층의 집터를 더 찾았다. 집터는 더 있을 것으로 헤아려지고, 방사성 탄소연대로서 가장 오래된 50,270년 전의 연대를 중기 구석기층의 위쪽에서 새로 찾게 되었다.

석장리의 발굴과 연구는 여러 분야에 걸쳐져 이루어졌다.⁵⁸⁾ 사람의 생활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석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당시의 사람들은 자연으로 주어진 돌을 가공하였고 이때의 가공은 그들이 이룩한 문화의 내용, 단계, 성격에 의해서 규정지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석장리를 연구할 때도 가장 먼저 석기의 연구에 힘을 기울였다. 석기의 떼임새, 생김새, 모습 등을 주의 깊게 살피고, 발견된 자리, 쓰임새와 사람의 행동과의 관계들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석기를 사냥, 부엌, 일반 연장 등으로 분류하게 되었

56) 석장리 발굴은 1964-1972, 1974, 1990, 1992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57) 한국선사문화연구소, 1994, 『석장리 선사유적 : 11차-12차 발굴보고서』, 동아출판사

58) 1994, 『석장리 선사유적』, 동아출판사

고 더 나아가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석기를 가늠하여 보기도 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석장리 유적이 발굴된 만큼 석기의 이름도 우리의 낱말로 이름을 붙였다.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을지 모르지만 학자들은 석기의 쓰임새와 생김새에 의해 불렀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그들은 발굴된 석기를 찍개, 긁개, 밀개, 뚜르개, 찌르개, 주먹도끼, 주먹괘이 등으로 이름 지어 불렀고 이러한 이름 덕에 발굴 작업을 도왔던 마을 분들도 석기를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 석장리 유적을 발굴하면서 학자들은 석기 외에도 옛사람이 살았던 땅바닥의 자취를 연구하고자 했으며 특히 사람의 몸체와 관계된 것⁵⁹⁾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또한 쌓임층을 이루는 돌, 모래, 땔, 찰흙 등을 통해 그 때의 자연환경을 알고자 하기도 했다.⁶⁰⁾

석장리 유적과 한국의 구석기 문화

앞서 모어 부부가 석장리에서 찾은 뿔석기는 구석기 또는 토기 이전의 문화가 발견될 가능성을 내보였고, 고고학자들은 더 깊은 학술 조사 연구를 위해 발굴의 필요성을 느꼈다. 당시(1960년대) 구석기 문화는 일본이나 한국에는 없다는 일본 학자들의 생각이 퍼져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거쳐 발굴 허가 신청을 받게 되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학생을 비롯해 여러 교수들은 석장리 구석기 문화 발굴단을 꾸며 1964년 11월 11일부터 발굴에 들어갔다.

제4기 지질학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등 시대의 환경, 쌓임층의 연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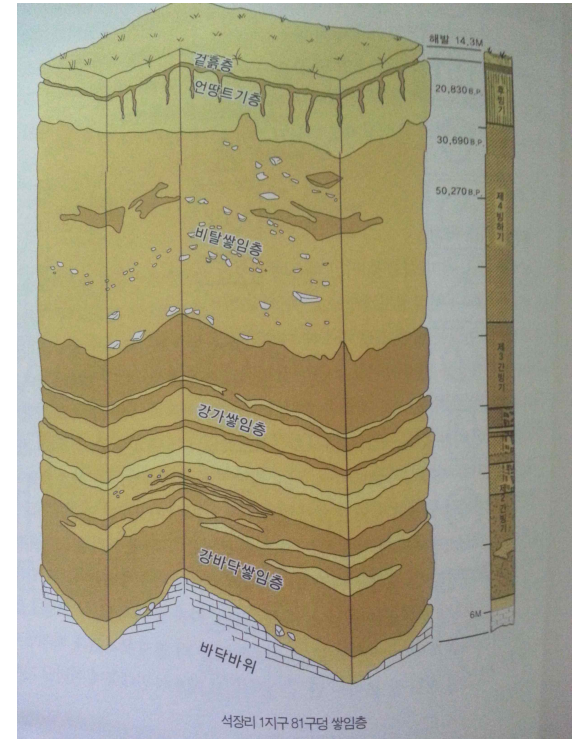
59) 석장리의 후기 구석기시대의 집터에서 사람의 머리털을 찾아낸 것은 발굴에 있어서 큰 성과였다. 이 머리털을 전자현미경으로 가늠한 결과, 동아시아 갈래의 사람의 것으로 밝혀졌다.

60) 세찬 물, 서서히 흐르는 물, 늪지 등의 환경에서 쌓인 층, 비탈쌓임층, 강가쌓임층, 강바닥쌓임층 등의 조건을 따져 쌓임층의 특성을 밝히고, 옛사람의 삶의 관계를 찾아내고자 했다.

을 밝히는 데 바탕이 되는 학문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까지 이것을 전공한 학자들이 매우 드물었다. 그렇기 때문에 석장리의 구석기 문화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많은 예비 실험을 거치고 석장리 발굴층에서 찾은 숯조각들을 이용하여 석장리의 쌓임층이 1970년 한국원자력연구소 5번째 측정으로 30,690년 전임을 알게 되었다. 또한 절대연대를 찾아내기 위해 방사선 탄소에 의한 측정방법

을 이용했던 것도 석장리가 구석기 문화를 보여줄 수 있다는 가정에 힘을 주었다. 당시만 해도 이 방법은 미국에서나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양경린 박사를 포함한 여러 한국 학자들이 수차례 미국을 설득했기에 가능했던 방법이었다.⁶¹⁾

석장리의 쌓임층에 있던 석기는 단순히 여러 층위의 절대연대를 뚜렷하게



61) 석장리박물관, 2009, 『파른 손보기, 우리 역사의 새 장을 열다 : 파른 손보기 기념관 개관기념』, 67쪽

밝힐 수 있는 증거뿐만이 아니다. 석장리에서 발굴된 석기 외 자갈돌에 새겨진 것과 석기를 쓰다가 생겨난 자국, 그리고 돌에 새김질, 쪼음질을 한 것은 당시 살아 있는 것을 나타내려는 시도였거나 구석기 사람들의 예술의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이기도 하다. 특히 그들은 석기나 격지에 금을 긋거나 새겨 물고기의 눈, 비늘, 아가미를 주로 나타내었다. 이것은 석장리에 살았던 구석기인이 물고기의 눈과 머리를 형상화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학자들은 석기의 격지를 하나씩 맞춰 나감으로써 처음 형성된 석기의 모습으로 복원할 방법을 찾기도 했다. 이것은 석기를 만드는 과정과 기술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 연구를 통해 구석기인은 돌연장을 만들면서 과학의 원리를 터득하게 되었고 망치의 크기와 돌의 성질 관계 등을 나름 연구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오늘날의 근대 과학의 뿌리가 되었음을 알려주기도 한다.⁶²⁾

석장리 유적의 중요성

석장리 유적은 우리 겨레의 역사를 구석기시대부터 중석기시대까지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우리의 역사가 단군시대, 청동기시대쯤부터 비롯된 것으로 생각해 왔지만 그보다 앞서는 문화가 있었다는 귀한 사실을 알려준 곳이다. 석장리의 연구는 처음으로 구석기시대에 존재하고 있던 우리 뿌리를 밝혀 한국의 역사시대를 새롭게 규명하고 이어주는 작업이다. 이 연구를 통해 석장리 옛 사람들의 삶을 밝히는 일을 넘어서 자연이 어떻게 달라지고 그에 따라 삶이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알아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⁶³⁾ 또한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말과 그림, 더 나아가 영화 등으로 표현함으로써 옛 삶을 되

살려내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석장리 유적이 한국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다. 대규모적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석장리 발굴은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일본의 잘못된 구석기 발굴을 바로잡고 이런 일본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던 한국인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엄청난 계기가 되었다. 일본에서는 100년 가까이 구석기를 부정하였다. 일본 역사에 ‘천황’보다 앞서는 역사는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일본 사회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1950년대 이후 일본은 조선으로부터 문화를 받은 것을 괴로워하며 일본 자체에서 중국이나 조선보다 이른 문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다. 동북대학에서 60만 년 전의 유적을 찾아냈다고 주장하며 일본 역사 교과서에 이 내용을 실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 일본의 구석기 유적지를 거짓으로 만들어 발굴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⁶⁴⁾ 이러한 일본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의 생각으로 석장리에 대한 발굴 허가가 두 차례나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되었었다. 발굴을 마친 다음에도 불신의 반응을 보이는 학자가 있었고 국제학회에서 발표된 후에도 우리나라 학계 일부에서는 이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현재, 석장리 유적은 국사 교과서에도 실려 있듯이 한국에 구석기 문화가 존재한 사실을 최초로 확인한 유적으로 평가받는다.

석장리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이와주쿠 유적 유물

일본의 이와주쿠 유적은 1949년 군마현 이와주쿠에서 발견되었다. 기존 고고학자들 사이에서는 일본에는 구석기 시대가 없다는 것이 정설이었지만, 이와주쿠에서 타제석기가 발견되면서 일본에서도 구석기 시대에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구석기인들은 아직 정착생활을 한 것이

62) 위의 책, 68-73쪽

63) 손보기, 『석장리 유적과 한국의 구석기 문화』, 2009, 학연문화사, 27쪽

64) 앞의 책, 60쪽-61쪽

아니었기 때문에 이와주쿠 지역에 살았던 인류를 지금의 일본인들의 조상으로 연결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일본 구석기 연구의 최초 계기가 된 이와주쿠 유적의 출토 유물과 자료가 한국 최초로 공주시에 전시된다. 공주 석장리 박물관에서는 일본의 이와주쿠 박물관, 일본 메이지 대학 박물관과 공동으로 2013년 7월 15일부터 2014년 2월 2일까지 ‘일본 구석기의 시작, 이와주쿠’라는 제목의 기획전시를 진행하며, 일본의 중요문화재인 구석기 유물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이와주쿠의 발견과 의의, 문화재로 지정, 발굴이야기, 일본의 구석기이야기 등 4개의 주제로 나뉘며 유물 가운데는 1949년 1차 발굴조사에서 최초 발굴된 일본 구석기 국부마제석기 2점이 포함돼 있다. 또한 첫 조사에서 발굴된 이와주쿠 구석기유물들은 현재 일본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돼 국보급으로 다뤄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 29점이 이번 전시에 포함될 예정이다.

참고문헌

석장리박물관, 2009, 『파른 손보기, 우리 역사의 새 장을 열다 : 파른 손보기 기념관 개관기념』
손보기, 『석장리 유적과 한국의 구석기 문화』, 2009, 학연문화사
한국선사문화연구소, 1994, 『석장리 선사유적 : 11차-12차 발굴보고서』, 동아출판사
1994, 『석장리 선사유적』, 동아출판사

국립공주박물관

4조 이도현

국립공주박물관의 역사와 현황

국립 공주 박물관의 시초를 살펴보면 일제 시대로 거슬러 올라 가야 한다.⁶⁵⁾ 1934년 공주고적보존회(公州古蹟保存會)가 발족되어 해당 지역의 유물 수집과 고적보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보존회에서 수집된 유물들을 바탕으로 옛 충청감영의 관아인 선화당(宣化堂)에서 1940년 공주사적현창회(公州史蹟顯彰會)가 운영하는 공주읍박물관이 개관되었다.⁶⁶⁾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세계의 고고학사에 길이 남을 무령왕릉이 발굴되기 전이라 사실상 구색만 갖춘 상태였다. 그 후 1946년에 국립박물관 공주분관으로 개편되고 1971년 무령왕릉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보물들이 쏟아져 나오자 이를 수용하기 위해 1972년 12월 30일에 인접한 중학동에 현대식 건물로 설계한 새로운 공주박물관을 건립했다. 새 박물관은 무령왕릉에서 발굴된 수많은 출토유물들을 전시에 내놓으며 1973년 5월 1일에 개관식을 가졌다.⁶⁷⁾ 세월이 흐름에 따라 건물시설이 노후되고 발굴문화재의 갯수가 급격히 늘어나 기존의 시설환경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려워지자 2004년 현 위치인 공주시 웅진동에 새로운 박물관을 건립하게 됐다.⁶⁸⁾

이로써 전보다 훨씬 더 쾌적하고 수준 높은 문화체험공간을 확보하게 된 국립공주박물관은 웅진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25대

65) 윤민용, 2012, 『여행길에 만난 국립 박물관』, 풀빛, 120쪽.

66) 서울역사박물관, 2003, 『도시박물관의 현황과 과제』, 84쪽.

67) 윤민용, 앞의 책, 121쪽.

68) 국립공주박물관, 2004, 『국립공주박물관』, 2쪽.

왕인 무령왕릉과 그 시대의 유물을 주(主)로 하여 2개의 상시전시실을 운영한다. 1층의 무령왕릉실에는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2561점의 유물 중 국보 14건 19점, 보물 44 등을 포함하여 중요유물 약 1000여점이 전시되어 있다.⁶⁹⁾ 편의상 왕과 왕비의 공간을 따로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보다 차분한 감상을 할 수 있다. 또한 생생하고 다차원적인 체험을 위해 무령왕릉의 구조를 정교하게 재현해놓았다. 2층은 1500년전 공주를 중심으로 화려하게 꽃피웠던 웅진백제의 문화를 보여주기 위해 웅진백제, 불교미술실로 구성되어 운영중이다.

웅진백제실은 웅진백제의 여명기인 마한·한성백제, 웅진백제, 국제도시 웅진(대외교류) 등의 테마로 구분하여 전시하고 있다. 이곳을 통해 마한·한성백제시기 공주지역 고유의 문화와 중국의 남조(한자로 남조, 420~589년에 화남에 한족이 세운 송, 제, 양, 진의 네 나라)문화가 융합되어 어떤 양상으로 웅진백제 문화가 전개됐는지를 알 수 있다. 같은 층에 위치한 불교미술실과 야외조각실에서는 웅진백제의 세련된 불교문화와 이 문화가 어떻게 통일신라 이후까지 이어지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이 밖에 마련된 특별전시실, 사회교육시설 및 기타 편의시설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화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⁷⁰⁾

유물을 통해 본 백제의 대외교류

남조와의 교류

백제는 근초고왕 27·28년(372·3)부터 중국과 정식으로 교류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발굴되고 있는 백제 유물 중에서 서진(西晉)으로부터 수입된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있어서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맺기 전에 이미 상호간

69) 서울역사박물관, 앞의 책, 84쪽.

70) 위의 책, 3쪽.

문물교류가 있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이후 백제의 주된 교류 상대는 중국 남조였다. 이를 뒷받침 하듯 백제지역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주로 중국 남조와 관련된 것으로 그 예로는 청자 사이호(四耳壺), 반구병(盤口瓶), 회유전문도기(灰釉錢文陶器), 청자양형기(靑磁羊形器), 계수호(鷄首壺), 청동다리미, 초두, 금동 허리띠 등이 있다. 이 중 중국 서진·동진대부터 남조대에 걸쳐 많이 사용된 계수호(鷄首壺)는 닭머리 모양의 주구(注口)가 인상적인 천계형주자(天鷄形注子)로서 백제 중앙에서 위세품으로 사여했다고 한다.⁷¹⁾

이처럼 남조에서 들어온 물품들은 중앙이나 지방 상류층의 위세품으로 사용됐다.⁷²⁾ 실제로 무령왕릉에서 남조에서 수입된 청자와 흑자가 발굴되면서 위의 추측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⁷³⁾ 그리고 중국제 유물이 지방에서도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백제가 주변세력에 대한 복속의 대가로 남조 문물을 그들에게 사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남조관련 유물들을 통해 우리는 당시 백제와 중국 간 교류뿐만 아니라 백제 내부의 중앙·지방간 관계까지 엿볼 수 있는 것이다.⁷⁴⁾

신라와의 교류

백제는 광개토왕과 장수왕의 남하 정책으로 수세에 몰리게 되자 신라와 나제동맹(433년)을 맺어 고구려를 견제하고자 했다.⁷⁵⁾ 이렇듯 한성 말기부터 조성된 신라와의 화친 분위기는 웅진천도 이후 결혼동맹 등으로 한 층 더 고조됐다.⁷⁶⁾ 고구려의 강력한 남하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백제는 신라와의 보다

71) 위의 책, 149~150쪽

72) 위의 책, 149쪽

73)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8, 『유적·유물로 본 백제(Ⅰ)』,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328쪽

74) 국립공주박물관, 앞의 책, 149쪽

75)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3, 『古代 東亞細亞와 百濟』, 서경, 184쪽

굳건한 결속력이 필요로 했고 이를 위해 동성왕은 493년 신라에 사신을 보내 혼인을 청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건을 뒷받침 해주는 유물이 공주 송산리 4호분에서 출토된 은제 허리띠장식이다. 인동당초문과 세잎 무늬가 투조된 방형의 판 아래에 하트모양의 장식이 돼 있는 이 허리띠는 신라 금관총의 것과 완전히 동일함으로 신라에서 수입한 것이거나 신라 장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무령왕릉에서는 남자 손목시계와 같은 장식을 여럿 연결한 듯한 드리개장식을 한 허리띠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 역시 신라의 것과 유사하다.⁷⁷⁾

서역과의 교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 중에는 당대 백제와 어울리지 않는 이국적인 모습의 금박유리옥(金箔琉璃玉)이 있다. 금박구슬은 말 그대로 유리 구슬에 금박을 입힌 것으로 하나의 날개로 된 형태와 여러 개가 연접한 형태로 나뉜다. 이 유물은 흑해연안(黑海沿岸)으로부터 이란, 인도,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에서 출토될 정도로 광범위한 분포를 자랑한다. 주로 흑해연안에서 제작된 후 비단길을 통해 교역되었다고 하며 주로 4~6세기대의 백제 무덤에서 부장된 위세품으로 발견된다. 금박유리옥은 서역과의 교류를 짐작하게 하는 자료로 각광받고 있다.⁷⁸⁾

불상을 통해 본 백제 불교

삼국시대 다른 국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존하는 백제의 불상은 6세

기 이후의 상들이다. 이 와중에 백제의 불상은 고구려나 신라의 불상에 비해 오랜 기간 동안 다채롭고 높은 수준의 불교예술품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7세기 이후 도교에 치우쳤던 고구려나 불교 수용 자체가 늦었던 신라와는 다르게 백제는 중국의 남북조시대 이후 수·당의 불교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국운이 다하는 때까지 불교국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4~6세기에 걸친 불교수용 초기의 불상들은 당시 중국 남·북조인 남제와 양, 그리고 북위와 동위 불상의 영향을 받았고 불교 전성기(7세기)의 불상들은 북제, 북주대를 거쳐 통일왕조인 수·당의 영향을 받았다. 고로 각 시기마다 유행했던 불상의 형식과 양식이 상이하므로 다양한 형태의 불상을 볼 수 있다.⁷⁹⁾

이렇듯 중국 불교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백제 불상 중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2층 ‘충청남도의 고대 문화실’ 끝에 진열된 계유명 천불비상(癸酉銘 天佛碑像)이다. 불비상이란 불상과 비석을 합쳐 놓은 형태를 말한다. 천불비상은 과거부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천 명의 부처가 출현해 중생을 구제한다는 천불(千佛)신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으로서 지붕돌과 몸돌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비석(碑石)의 모양은 중국 남북조(南北朝)시대부터 당(唐)나라까지 유행했던 형식이다. 신라 문무왕 13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작품의 비석에는 “계유년(679) 4월 15일에 백제 유민(百濟 遊民)인 신도(信徒) 250인이 국왕대신(國王大臣), 7세 부모(七世父母), 법계 중생(法界衆生)을 위해 이 불상을 만들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백제 유민들의 망국의 한과 백제 부활의 염원을 엿볼 수 있게 한다.⁸⁰⁾

백제불상들은 하나같이 백제 나름의 특성을 풍부히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76) 국립공주박물관, 앞의 책, 159쪽

77)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앞의 책, 319쪽

78) 국립공주박물관, 앞의 책, 158쪽.

79)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8, 『유적·유물로 본 백제(Ⅱ)』,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301쪽.

80) 윤민용, 앞의 책, 130쪽.

연구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예술이 시대정신의 반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백제인들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부처의 모습이 예술조각품인 불상에 그대로 반영됐을 것이다. 백제인들은 부처를 초월적인 신으로 추앙하지 않고 그들의 삶 속에서 더불어 호흡하는 존재로 받아들인 듯하다. 부처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불상에 표현된 온화하고 인간적인 미소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흔히 불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미소는 고졸한 미소(Archaic Smile)이라 하여 얼굴 전체가 아닌 양 입가만을 살짝 눌러 표현한 형태를 말한다. 그리스, 인도, 중국에서 발견된 불상들은 하나 같이 고졸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반면에 백제 불상의 얼굴 표정은 중국처럼 정형화돼 있지 않고 제각기 다르다. 쉽게 말해 매우 인간적이고 친근하다. 순진무구한 미소와 뜬 듯 감은 듯 가녀린 눈매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데 이는 동양의 불상을 통틀어서 매우 이례적인 얼굴표현이다.⁸¹⁾

7세기로 들어서면서 삼국시대 불상은 그전까지 내면의 정신세계를 강조하여 엄격한 틀 안에서 정면 위주로만 표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움직임의 강조함과 동시에 앞뒤·좌우 등 다면적 표현기법에 신경을 쓰는 등 외형미를 추구하기 시작한다. 또한 ‘아름다워야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동양정신에 입각하여 불상이라는 관념상 완전한 인격체를 아름다움을 기본으로 하여 조각하였다. 따라서 백제지역을 중심으로 늘씬하고 표면질감이 매끄러운 아름다운 보살상들이 크게 유행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예가 공주 의당면 송정리의 한 절터에서 출토된 금동관음보살입상(金銅觀音菩薩立像)이다.⁸²⁾ 늘씬한 신체로 바탕으로 미소를 머금고 통통한 얼굴을 하고 있는 이 불상은 살짝 구부러 움직임을 표현한 왼쪽 무릎과 시원스럽게 흘러내려 교차하는 천의자락 등의

표현적 특징을 잘 보여주며 전과 다르게 율동성을 강조한 외형미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⁸³⁾

수촌리 고분군

4조 정래원

수촌리 유적 개요⁸⁴⁾

공주 수촌리 유적은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산 2-1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지도1> 수촌리 고분군은 금강 북안 평야지대의 북쪽 산기슭에 위치했다. 수촌리(水村里)는 과거 홍수가 날 경우 수촌리 고분 앞 정안뜰까지 수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⁸⁵⁾ 수촌리는 공주 공산성 북쪽 약 5km 지점에 위치한다.

공주 수촌리 유적은 의당농공단지 조성 예정부지에 대한 문화유적 발굴조사에서 확인되었다. 2003년 5월 12일부터 6월 6일까지 I, II, III지역으로 나누어 시굴조사 하였으나 I 지역에서 유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어 같은 해 9월 29일부터 12월 29일까지 발굴조사 할 때는 시굴조사 당시 II지역을 I 지역으로, III지역을 II지역으로 변경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지난 2010년 3

83) 국립공주박물관, 앞의 책, 162쪽.

84)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공주 수촌리유적』, 1, 3장, 2011,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공주 수촌리유적 개략보고서」를 요약 기재했음.

85) 조유전·이기환, 2010, 『고고학자 조유전과 이기환의 한국사 기행』, BM책문, 26쪽.

81) 이남석, 2007, 『百濟 文化의 理解』, 서경문화사, 218쪽.

82) 위의 책, 222쪽.

월 3일~12월 4일 행해진 주변지역 시굴조사 결과 확인된 고분군 주변 유적을 2011년 6월 30일~2011년 12월 26일 추가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⁸⁶⁾

조사 결과 I지점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2기, 초기철기시대 토광묘(널무덤) 1기, 적석목관묘(돌무지나무널무덤) 1기, 백제시대 주거지 1기, 수혈유구 3기, 토광묘 6기, 백제~통일신라시대 석곽묘(돌널무덤) 11기, 고려~조선시대 토광묘 13기 등이 확인되었고, II지점에서는 백제시대 토광묘 2기, 석곽묘 2기, 석실분(돌방무덤) 2기 등이 확인되었다. 특이점으로는 금동관모(모자), 금동식리(신발), 금제이식(귀걸이), 금동관대(관 받침대), 중국제 흑유도기, 중국제 청자, 환두대도, 등자 및 재갈 등의 주요 유물이 출토되었다. III지역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1기, 수혈유구 6기, 원삼국시대 수혈유구 10기, 백제시기 토광묘 1기와 석곽묘 2기, 석실분 1기, 수혈유구 1기, 시대미상의 석곽묘 1기, 수혈유구 2기가 추가로 발굴되었다.

수촌리 유적의 유구와 유물

I 지역

유구(遺構)

수촌리 I지역에서는 청동기시대, 초기 철기시대, 백제시대, 통일신라시대, 조선시대에 이르는 유구들이 발견되었다. 이 중 초기 철기시대에 해당 하는 고분에서 세형동검이 출토되었다.⁸⁷⁾ 초기 철기시대의 유구는 구릉과 충적평지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한반도 중서부지역 세형동검 출토 유적의 입지에 위치하였고, 토광묘와 적석목곽묘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 지역의 토광묘와

적석목관묘도 대전 탄방동유적, 완주 갈동유적, 논산 원북리유적, 익산 신동리유적 등과 구조 및 형태가 비슷하다.

유물

원형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의 토기류, 세형동검, 검파두식(칼자루 끝 장식), 동착, 동모(銅鉞), 동부(銅斧), 동사(銅絲)의 청동기류, 판상철기, 철부, 철사의 철기류, 장신구류가 출토되었다. 분묘에서 출토된 세형동검과 공반유물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로 I지역 유적의 시기와 그 주인의 지위를 추론할 수 있다. 최초 발굴 당시 '청동기 세트'가 발굴되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당시 발굴자들을 흥분에 빠지게 했다.⁸⁸⁾

II 지역

유구

이 지역의 유구 중 백제시대의 분묘군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발굴 결과 확인된 묘제는 토광묘, 석곽묘, 석실분이다. 백제고분의 편년안(編年案, 연대순 사건)을 고려했을 때, 토광묘→횡구식 석곽묘→횡혈식 석실분의 순서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특이한 점으로는 분묘의 조성 형태가 한 지점을 중심으로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이 것을 가족 집단묘의 조성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⁸⁹⁾ 유구별 정리는 <그림>을 참조하기 바란다.

유물

88) 조유전·이기환, 2010, 『고고학자 조유전과 이기환의 한국사 기행』, BM책문, 25쪽.

89) 이남석, 2006, 「수촌리 고분군과 백제의 웅진천도」 『역사와 역사교육』 제 11호, 128쪽.

86) 이 지역은 이 글에서 편의상 III지역으로 호칭하겠다.

87)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공주 수촌리유적』, 339쪽.

Ⅱ지역에서는 중요 유물이 상당수 발굴되었고, 이는 ‘무령왕릉 이후 최대 발굴’⁹⁰⁾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였다. 크게 토기류, 자기류, 금동제류, 무기류, 공구류, 마구류 175점에 기타 다량의 못과 꺾쇠 등이 나왔다.

Ⅲ 지역

유구

Ⅲ지역은 Ⅱ지역의 끄트머리와 맞닿아 있다. 이 지역의 유구들은 청동기시대, 초기 철기시대, 원삼국시대, 백제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조선시대의 것들이 확인되었다. 이 중 백제시대의 분묘는 토광묘, 석곽묘, 석실묘가 확인되었으며 Ⅱ지역과 연달아 있기 때문에 이 분묘는 7호분, 8호분, 9호분, 10호분으로 불린다.

유물

Ⅲ지역의 백제시대 분묘에서도 위세품이 다량 출토되어 분묘 주인의 사회적 지위를 추측할 수 있는 실마리를 다수 제공했다. 7호분 수혈식 석곽묘에서는 환두대도, 토기류, 약간의 철기류를 발굴하였고, 8호분 수혈식 석곽묘는 \목걸이의 형태를 하고있는 옥과 곡옥, 금동식리, 도자, 토기류, 등자가 출토되어 피장자의 사회적 지위가 대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9호분은 토광묘로 토기류, 철검, 도자, 철부가 소량 부장되어있었다. 10호분은 토기류, 환두대도, 살포가 출토되었다.

수촌리유적에서 볼 수 있는 고분군 조영·재지세력 검토

90) 2003. 12. 04, “무령왕릉이후 최대 '공주 수촌리 백제고분' 발굴현장을 가다”, 동아일보

Ⅰ 지역⁹¹⁾

I 지역의 초기철기시대 분묘 유물 중 세형동검에 근거해서 분묘 주인의 역사적 실체를 추측해 볼 수 있다. I 지역의 세형동검은 토광묘, 적석목관묘에서 한 점씩 출토되었다. 이창호는 2010년에 「公州 水村里遺跡 出土 細形銅劍에 대한 一考察」에서 토광묘의 세형동검은 발전 1기, 적석목관묘의 세형동검은 발전 2기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반도의 세형 동검문화는 현재 만주 지역의 동검문화가 해로를 통해 한반도에 유입되었다고 하는 설이 유력한데, 발전 1기는 유입된 청동문화가 확산되며 새로운 청동유물이 등장하고, 세형동검문화가 점차 토착문화와 접촉이 이뤄지는 단계다. 기원전 3세기~기원전 2세기 초에 걸쳐있다. 발전 2기는 지역별로 철기문화를 받아들였는지에 따라 세형동검문화의 성격이 구분되어 발전하는 단계고 기원전 2세기 초~말에 걸쳐있다.

이창호에 따르면, 수촌리 유적의 토광묘에서 나온 발전 1기 세형동검은 유견동부(銅斧)와 동사와 함께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기원전 2세기 초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적석목관묘에서 나온 발전 2기 세형동검도 같은 이유로 기원전 2세기 초의 것으로 판단된다. 발전 2기의 세형동검의 성분분석 결과 이 세형동검은 기존의 다른 세형동검들과 성분비가 다르다. 구리의 함량이 줄어들고 코발트 및 철의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기존 청동기의 원료 중 핵심 재료인 납이 한반도 전체, 중국 남·북부에서 가져온 것들이었는데 수촌리 청동기는 납이 모두 한반도 남부에서 나온 것 들이다. 이를 통해 수촌리 적석목관묘의 조성기의 세형동검문화는 토착세력에게 흡수되어 자체적으로 분화발전해나갔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수촌리의 이런 세형동검문화는 다른 지역에 비

91) 이창호, 2010, 「공주 수촌리유적 세형동검에 대한 일고찰」, 역사와 담론 56집, 호서사학회의 논문을 요약 소개하겠음.

지점	유구명	출토 유물	시기	비고
수촌리 1지점	청동기 집터 - 철기 날무덤(조상)	한국형 세형동검, 청동적창, 청동도끼, 청동활은창, 청동관, 칼자루끝장식, 덧띠토기 등	BC4 ~ BC1세기	청동기시대 수장급 무덤(수촌리 2지점의 조상으로 추정)
	1호 토광목곽묘(중조할아버지)	금동관모, 금동신발, 환두대도, 금동허리띠, 중국계 유개청자 사이호, 등자, 재갈, 삼포, 철모 등	AD360 ~ 390년	마한(해베리국)의 후예, 마한 전통요채 남음, 벽제의 지방귀족으로 판단됨 가문의 후예
수촌리 2지점	2호 토광목곽묘(중조할머니)	금제 귀고리, 목걸이(구슬, 관옥, 국옥), 광구호 등		중조할머니 묘
	3호 황구식석곽묘(할아버지)	금동신발, 환두대도, 토갑창, 재갈, 교구, 광구장검호, 등자(호등)	AD400 ~ 410년	할아버지 묘, 부인 묘는 찾지 못함.
	4호 황철식석실분(아버지)	금동관모, 금동신발, 금동허리띠, 중국계 흑유도개계수로 등), 청자잔, 유리구슬, 등자, 삼포, 재갈, 관옥(1) 등	AD420 ~ 440년	아버지 묘, 최상급 무덤, 백제 왕후 작위 수여 가능성 있음.
	5호 황철식석실분(어머니)	금제귀고리, 관옥(2), 등자, 재갈, 유개 삼족토기, 광구호 등		4호 묘와 무부묘 4호 출토 관옥과 꼭 맞는 관옥 출토, 무부의 정 확인한 무절(符節) 반영.

조유전·이기환, 2010, 『고고학자 조유전과 이기환의 한국사 기행』, BM책문, 40쪽.

해 빨리 발전된 형태다.

요약하면 수촌리유적 I 구역 토광묘를 조성한 집단이 세형동검문화를 받아들였으며 적석목관묘를 사용하던 집단이 그 문화를 재지화 했다는 것이다.

또한 수촌리유적 I 지역을 남긴 집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빨리 세형동검문화를 받아들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빨리 흡수하고 재지화했다고 볼 수 있다.

II 지역

위에서 밝혔듯, III지역은 II지역과 맞닿아 있고 또한 백제시기 분묘의 연속성이 있으므로 편의상 II지역과 III지역을 함께 묶어서 분석하겠다. 수창리유적의 백제시기 분묘에서는 많은 위세품이 발굴되었다. 이 지역에서 확인된 위세품은 크게 금동품, 환두대도, 중국계 도자기류, 장신구류, 기타 품목으로 나눌 수 있다.

금동품의 경우 금동과모, 금동식리, 금동과대가 출토되었다. 이 중 금동과대는 최고위급의 위세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제까지 백제시기의 금동과대로는 몽촌토성, 무녕왕릉, 능안골고분군, 부여 가곡리, 나주 복암리 출토 과대가 있다고 한다.⁹²⁾ 금동과대는 왕을 비롯한 최고위귀족이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환두대도의 경우도 많이 출토되었는데, 1, 3, 4, 10호분에서 출토되었다. 특히 1호분의 환두대도는 손잡이에 은장식이 되어 사용자의 생전 위상이 높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위세품으로서 환두대도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는 왕실의 하사 혹은 분여라는 견해이고 둘째는 동맹과 신임의 징표라는 견해다.⁹³⁾

92) 국립부여박물관 2005, 『백제인과 복식』, 120~133쪽 강종원, 2005, 「수촌리 백제고분군 조영세력 검토」 『백제연구』42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45쪽에서재인용

93) 위 논문 46쪽에서 인용

중국제 도자기의 경우 1호분에서 청자사이호 1점, 4호분에서 흑유계수호·양이부병·흑갈유호·청자잔 각 1점씩 모두 5점이 발견되었다. 이중 1호분 출토 도자기의 경우 유사한 것이 석촌동과 익산 익점리에서 출토되었다. 또한 흑유계수호는 천안 용원리고분군에서 출토되었다. 이 두 도자기는 당대 최고의 위세품 중 하나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당시의 중국과의 교류나 무역활동을 고려할 때, 중국산 도자기는 중앙정부가 재지세력에게 하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⁹⁴⁾

장신구로는 귀걸이, 목걸이, 머리장식이 있다. 강종원의 연구에 따르면 수촌리 백제고분 중 1, 3, 4호분의 장신구는 A, B, C, D중 가장 높은 A단계에서도 최상위급이다. 또한 4, 5호분에서 발견된 편옥은 맞추어보았을 때 꼭 맞는다. 즉, 이들의 관계가 부절을 활용할만한 관계로 부부관계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 중요한 출토품으로 살포와 마구가 있다. 살포는 논두렁을 트는데 쓰는 농구로 경제권을 상징하는 물건이라 할 수 있다. 수촌리유적의 1, 4, 5, 10호분에서 발견되었고, 타 지역 유적에서는 금산 수당리고분에서 2개가 확인되었다. 마구는 1, 2, 3, 4, 5, 7호분에서 발굴됐다. 이를 통해 피장자가 승마에 익숙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고대사회에서 기마에 능숙하다는 것은 군사적 능력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마구의 사용자는 전문 전투 계급이라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즉 마구를 군사력, 군사권의 상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마구와 살포가 다수 발견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피장자들이 경제력, 군사력을 지닌 그 지역의 유력자였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정리하면, 최고급의 위세품과 경제력과 군사력을 상징하는 유물이 몇 대에 걸친 분묘에서 확인되었다. 당시에 이 정도의 유물을 부장할만한 세력을 지닐

만한 세력은 귀족 중 가장 높은 지위의 大姓八族이고, 이 중 한 성씨인 백씨가 수촌리고분군의 Ⅱ·Ⅲ지역 주인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또한, 강종원은 「수촌리 백제고분군 조영세력 검토」에서 1,2호 토광묘를 토대로 백씨로 추정되는 귀족세력이 마한의 문화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세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종원은 이를 바탕으로 수촌리고분군의 조영세력은 마한 소국 중 감해비리국(監奚卑離國)이 백제에 편입되어 지방관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 세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선리 유적

4조 고언정

장선리 유적 개요

공주 장선리 유적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상·하행선 휴게소부지를 조사하기 위한 문화재조사의 일환으로 2000년 9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의 일정으로 계획 진행되었다. 행정구역상 충남 공주시 탄천면 장선리 151-6번지 일대로 하행선 휴게소부지에 해당되며 면적은 약 17,000㎡이다. 유적은 크게 청동기시대, 원삼국시대 유적으로 구분된다. 청동기시대 유구로는 송국리형 원형주거지 4기, 저장공 35기, 석관묘 1기, 옹관묘 1기가 조사되었다. 그리고 원삼국시대의 지하식혈거주지 39기, 수혈주거지 5기, 저장공 25기, 횡혈묘 1기가 각각 조사되었다.⁹⁵⁾

95) 김창호, 2001년 「공주 장선리 유적발굴 성과에 대한 몇가지 검토」 『영남고

94) 위 논문 47쪽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모두 구릉 위 평탄한 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조는 타원형 구덩이와 그 주변에 기둥 구멍이 배치되어 있다. 이 주거지들은 송국리형 주거지의 형태로 시기적으로 송국리형 주거지의 중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청동기시대에서 초기철기시대로 이어지는 과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삼국시대 유구로는 다양한 생활유적이 확인되었는데, 특히 토실 유구는 새롭게 확인된 유구이다.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대개 생활용 토기로 이곳이 생활유적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 유적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조사된 유적으로 문화사적·고고학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삼국시대 초기 주거문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청동기시대 유구와 철기시대 유구가 중첩되어 있어 이 지역에서의 주민 및 생활상의 역사적 변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하다.⁹⁶⁾

처음 이 유적을 발굴했을 당시 조사단은 발굴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10월 중순까지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백제 주거지를 다시 확인했지만 그저 구덩이 유구라는 점 외에는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굴 도중 39기의 구덩이 유구가 『삼국지』 「위지」 「한전」 마한조 등에 나온 ‘토실’이라는 기록과 일치하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그리하여 정체불명이었던 구덩이 유구는 마한의 토실유적으로 비정되었고 이듬해인 2001년 9월 “공주시 장선리 토실유적”(현재는 “공주 장선리 유적”)이라는 이름을 얻으며 사적 제 433호로 지정되었다.⁹⁷⁾

장선리 유적의 모습

고학』 28(영남고고학회), 110~111쪽.

96) 충남발전연구원, 2003년 『공주장선리토실유적』, 푸른 사상

97) 조유전·이기환, 2010년 『한국사기행』, 책문, 16~21쪽.

청동기시대⁹⁸⁾

집자리는 평면 원형의 송국리형(松菊里型)으로 바닥 중앙에 타원형구덩이와 그 내부 양끝에 기둥구멍이 있는 것(1·2호)과, 그 주변에 4개의 기둥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3·4호)으로 구분된다. 크기는 1호 560×60cm, 3호 650×35cm이다.

원형구덩이는 대체로 구릉의 선상부에 입지하며, 집자리와 일정 거리를 두고 있는 것도 있지만 집자리 3·4호를 파괴하고 설치된 것도 있다. 내부는 바닥에 목탄이나 토기 등의 유물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깎돌이 깔려있는 것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는 곡물 저장구덩이 같은 용도로 판단되나, 소형의 송국리식토기(松菊里式土器)가 출토된 것으로 보아 토기 저장구덩이로도 추정해 볼 수 있다.

돌널무덤은 집자리와 저장구덩이 등의 생활유구가 자리한 곳으로부터 서쪽으로 90m 거리를 두고 구릉정상부, 독널무덤은 돌널무덤으로부터 60m 거리에 위치한다. 돌널무덤은 크기 50×20×20cm인 소형으로 판돌형석재를 이용하여 장벽은 3매, 단벽은 1매로 축조하고 바닥은 판돌과 토기편을 반으로 나누어 깔았다. 독널무덤은 구연부가 결실되었으나 바닥 중앙에 지름 2.2cm의 구멍이 뚫려 있는 송국리식토기를 세워 안치하였다.

유물은 집자리와 저장구덩이에서는 전형적인 송국리형 외반구연토기, 바리모양토기, 사발모양토기, 붉은간토기가 있고, 석기는 숨배있는간돌화살촉, 간돌검자루편, 삼각형돌칼, 돌도끼, 숫돌, 흙으로 만든 가락바퀴 등이 출토되었다. 무덤유구에서는 모두 출토유물이 없다.

원삼국시대⁹⁹⁾

98) 편집부, 2002년 『한국고고학사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장선리 유적 중 가장 특징적인 토실유구는 마한의 거주지에 대한 문헌상의 기록과 일치하여 마한의 유구라고 추정되고 있다. 토실은 지하에 만들어진 굴과 같은 형태이며 적어도 1m이상 두께의 천정부를 만들고 있고, 1개 혹은 여러 개의 방이 서로 연결된 구조이다. 토실 1기의 평면적 크기는 비록 작으나 세트를 이루고 있는 주실·부실 등을 모두 합하면 비교적 넓은 면적이다. 이 유구는 그 동안의 조사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주거로 추정되는데, 중요시설 및 구조가 지표면상이 아닌 지하에 만들어져있다는 특징이 있다.

수혈거주지는 모두 5기가 조사되었는데 그 형태 및 규모를 알 수 있는 유구는 1기뿐이며, 나머지는 경사면 하단부가 유실되어 정확한 형태를 추정하기 어렵다. 유구는 능선의 전상부와 남향사면 상단부 및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규모는 비교적 작은 편이며, 밀집되거나 정형성을 지닌 분포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 경사면 상단부의 벽체와 좌·우 벽체 일부만 남아있고, 하단부는 유실된 상태이다.

청동기시대 원형의 저장공을 제외한 원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저장공은 대부분 능선의 정상부에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토실유구와 근접해있다. 총 19기가 확인되었는데, 평균면적은 3.35㎡이다. 저장공은 지표면을 수직으로 파내려가 직육면체를 이루고 있으며, 평면 형태는 장방형이다. 유구의 깊이는 표토층의 유실로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으나 가장 깊은 것은 1.6m까지 확인되었으며, 중복된 유구는 없다.

토실유구, 수혈거주지, 저장공 이외에 요지 및 부뚜막시설로 추정되는 유구도 조사되었다. 요지로 추정되는 유구는 1기가 확인되었는데, 대부분이 훼손되어 구조나 형태는 알 수 없지만 벽선 일부가 남아있고 요 내부에 재와 소토덩어리가 뒤섞여 채워진 상태로 노출되었다.

출토유물은 토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토기류는 크게 적갈색 연질 타날문토기류와 회백색 연질 타날문토기류로 구분되며 기종은 옹·호를 비롯하여 발·완·대접·시루·자배기 등 다양하게 출토되었다. 기형은 대형 토기로 장란형 옹과 평저옹, 자배기와 원저호 및 평저호 등이 주류를 이루며, 소형의 토리로는 심발형토기·천발형토기·반·완·대접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른 유적과 비교¹⁰⁰⁾

우리나라에서 조사된 선사시대 주거지의 대부분이 수혈주거지이며 그 가운데 청동기 시대에서 초기철기에 속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주거지는 기본적으로 수혈주거지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나 시기별 또는 지역별로 수혈의 평면형태, 화덕의 위치, 저장공·출입시설, 초석의 발생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원삼국시대 집자리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거지의 평면 형태를 보면, 중부지역에서 나타나는 주거 형태는 크게 (장)방형을 비롯한 몸자형과凸자형으로 나뉜다. 남부지역 주거지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를 살펴보면 영산강 유역은 대부분 방형이나 장방형의 형태이며, 영광·함평지역은 주로 방형계, 보성강 유역에서는 말각방형과 말각장방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주거지의 평면형태 차이는 지역적인 차이와 함께 시기적인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주거지의 특징으로 수혈또는 반수혈이라는 점과 기둥 구멍은 주거지 내부와 외부에서 발견되거나 혹은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 부대

99) 이훈·강종원, 2001 「공주 장선리 토실유구에 대한 시론」 『한국상고사학보』 34(한국상고사학회) 112~115쪽.

100) 이훈·강종원, 위의 책 주로 참고

시설로는 화덕과 저장공이 있고 내부에 溝가 있다는 점 등이 있다.

중서부지역 삼국시대 초기 주거지에 대한 조사는 1994년 장산리유적에서 비롯되었다. 장산리유적에서 발굴된 수혈주거지는 장방형으로 모두 8기이며, 원삼국 단일 시기의 것으로 방사성탄소연대측정에 의하면 A.D. 1세기~A.D.4세기 중반에 해당된다. 유적이 형성된 곳은 해발 150m 내외의 살록이 남쪽으로 급경사를 이루고 내려오다 저지대와 만나는 부분에서 경사도가 완만해지는 해발 80~100m 내외의 산록 사면 하단부 구릉에 위치한다. 이 주거지들은 구릉 정상부가 아닌 경사도가 심한 구릉사면에 위치하는 것이 입지상의 특징이며, 유구의 특징으로는 수혈 내부 사방 모서리에 직경 40cm, 깊이 60cm 내외의 대형 기둥구멍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곳에서 저장시설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주거지 형태는 예계의 몸자형 또는凸자형으로 출입구 시설을 가지고 있으나 한계는 출입구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한다. 장산리 주거지는 가용 평면적으로 보았을 때 핵가족이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지속적으로 노동투자가 요구되는 보다 집약적인 농경방식인 논농사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전지역에서 조사된 거주지의 경우에는 평면형태가 대부분 타원형이며, 터널형 화덕을 갖추었다는 특징이 있다. 원삼국시대 주거지의 평면적은 물질문화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전 시기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남한의 거의 전 지역에서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초기 철기시대 주거지의 평면적을 계산한 연구에 의하면 당시 주거지의 일반적인 평면크기는 10~20㎡정도가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유적에 획일적으로 해당되지는 않는다.

초기 철기시대 주거지 105기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105기 주거지 가운데 수혈 깊이가 10~50cm 사이가 가장 많으며 대개 30cm 내외가 보편적이

어서, 전시대에 비해 깊이가 낮았다. 이런 사실로 보아 이 시기 수혈은 전시대에 비해 차차 지상식으로 변화하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유적에 따라서는 수혈의 깊이가 전 시기에 비해 깊은 경우도 다수 조사되고 있다. 대곡리 원삼국시대 집자리의 경우 집자리 바닥면이 레벨이 전 시기 집자리 바닥면 보다 낮는데 수혈이 깊어지는 이러한 현상은 하나의 특징으로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공주 장선리 유적의 경우도 해당된다. 즉, 마한시대의 유구가 청동기시대 주거지를 파괴하고 형성되면서 훨씬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혈의 깊이도 시기별 또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혈의 깊이는 당시의 기후조건 및 건축기술의 발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지역별 또는 시기별 차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 시기 주거지의 가장 특징적인 변화 가운데 하나로 방의 기능분화를 들 수 있다. 즉, 칸막이의 출현으로 방의 기능이 취침 및 거실, 취사, 저장 등의 기능으로 분화되어 공간이용이 다양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점은 장선리 토실유적에서 보이는 장방형수혈 및 토실의 크기·수와 관련하여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이상의 검토한 바에 의하면, 마한시대의 주거는 일반적으로 수혈주거 형태를 띠었지만, 다만 시기별 또는 지역별로 평면형태, 수혈의 깊이 내부구조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공주 장선리에서 조사된 토실 유구의 경우 그 형태를 비롯해 구조 전체가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원삼국시대 주거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결론

구덩이 유구라는 것 이외에 특징적인 것을 살펴볼 수 없었다는 점을 미루

어 볼 때 청동기시기의 유구는 다른 지역과 그다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장선리 유적의 토실유구는 점점 지상화되어 가던 다른 유적의 주거형태와는 달리 유독 지하식 수혈이었다는 독특한 특징이 있었다. 이 유구가 같은 마한지역의 다른 유적과도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당시의 기후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어 일정기간 사용되었던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2~3세기경의 한랭한 기후 변화는 주거지 내부의 열을 높이거나 열 손실을 막기 위해 수혈을 깊게 파는 것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또한 당시 마한 사회의 긴장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주거 형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금치고개

4조 배수현

개요

백제의 두 번째 도읍지 공주는 오랜 세월이 흐른 뒤 10만 동학농민운동의 최후의 격전지가 된 곳이다. 백제인의 미소로부터 잠시 고개를 돌려서 1894년 동학농민군의 한을 생각해 봄이 바람직하다.

우금고개는 사실 야트막한 언덕에 불과하다. 지명은 우금(牛金)고개와 우금(牛禁)고개로 모두 불린다. 우금(牛禁)고개는 이 고개에 도둑이 많아서 날이 저물면 소 몰고 가는 것을 막았다는 데서 유래하며, 우금(牛金)고개는 이 고개에서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전한다. 우금치는 공주시

금학동과 주미동 사이에 있다. 이 고개의 북쪽 금학동에는 성황당 등의 마을이 있고, 남쪽 주미동에는 음달, 양달 등의 마을이 있다. 1894년 갑오년 농민봉기 당시의 공주는 충청도 감영이 소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략상 공주를 확보하는 것은 향후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지역이었다.¹⁰¹⁾



1872년 지방도-공주목지도

지금의 공주교육대학 뒤 봉황산 마루에 있던 관(官)-일(日) 혼성 부대가 농민군의 포위 공격에 쫓기어 무기 버리고 성내(城內) 도망간 이야기

그러나 무슨 소용이라
역사도 울고
산천초목 울었다

공주 우금티
황토흙 속 유독 아카시아가
많은 고개였어,
어느 여름

101) 국토지리정보원, 2010, 『한국지명유래집: 충청편』, 국토해양부

땀 흘리며 빠르게 올라가는
이 고개는 매미 소리뿐이었지

신동엽 『금강』

동학농민운동의 쟁점

임술민란 이후 지속된 크고 작은 전통시대 민란의 최고봉을 장식했던 동학농민운동은 그 규모와 격렬성뿐 아니라 한국 근현대사의 각종 개혁에 미친 영향 때문에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으로 자리잡았으며 여러 가지 쟁점들이 한국사학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첫 번째 쟁점은 동학농민운동의 혁명성 여부이다. 먼저 동학농민운동의 ‘혁명성’이 주목된 역사를 살펴 보면, 해방전에는 역사학을 식민 통치의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동학난’ 혹은 ‘동비의 난’으로 불렸고, 민족주의 사학자 박은식에 이르러 동학농민운동의 민중성, 혁명성, 개혁성을 주목하였다.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이 ‘농민혁명’ 적인 성격을 이미지화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는데, 이후에 민주화 열기 속에서 민중운동의 뿌리를 찾기 위한 일환으로 농민혁명 연구가 활발하였다. 다시 말하면, 동학농민운동의 ‘혁명성’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확립해 나가면서 병행되었던 활발한 연구과정 속에서 그 논의가 진전된 것이다. 102)

‘혁명’의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갑오농민전쟁이 혁명적이었느냐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 심화된 사회, 경제적 모순에 대해서는 분명 높은 혁명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나, 기존 군주제를 타도하고 조선 왕조의 근본적

변혁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전봉준은 유교적인 민본주의에 입각한 도덕적인 요순 시대와 같은 정의로운 사회의 회복이 목적이었다. 근대 사상에서는 평등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개인을 정치의 주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가 근대성을 결정한다. ‘동학혁명’론자들은 동학, 천도교 사상의 보국안민, 인내천, 후천개벽 등 혁명적 사상에 기반하였기 때문에 혁명적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동학’ 사상 자체는 객관적으로는 반체제적이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체제 순응적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동학의 창시자 최제우는 그 교리에서 ‘천령의 강림에 의해 인간은 신성이 되고 군자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조선 왕조를 부정하는 듯했으나 실제로는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군자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전통 유교 사상의 우민관을 계승하였다.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전쟁 이전의 동학교도들이 중심이 된 교조신원운동이나 보은 집회 등의 지도자 중에는 엽관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포함되었고, 대다수가 방백수령의 탐학을 시정해달라는 현세 이익적 관심에서 민란에 참여하였다. 다시 말하면, 일개 신도였던 전봉준에 이르러 백성을 위해 목숨을 바치려고 하는 정신을 가진 지도자에 의한 농민전쟁이 비로소 시작되었으므로, 종교 ‘동학’ 사상이 가진 혁명성은 미미하며, 전봉준과 김개남은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간 동학의 이단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군의 과감성을 이끌어내고 포접제를 통해 수만명의 집결을 이루어낸 신앙적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103)

세도 정치기 내부적으로는 수령-이, 향 지배체제 아래 요호 부민들의 수탈과 함께 삼정이 지극히 문란하여 도결제, 호포법 등 근대적인 조세 징수 제도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중전체에게 서서히 가중부담 되었다. 더군다나

102) 이진영, 2002 「동학농민혁명의 인식의 변화와 과제」 『동학농민혁명의 동아시아사적 의미』, 서경

103) 조경달, 2008 『이단의 민중반란-동학과 갑오농민전쟁 그리고 조선 민중의 내셔널리즘』, 역사비평사

문화 개방으로 미국의 수출로 인해 농촌 경제는 파탄이 났으며 빈농의 궁핍화가 갑오농민전쟁 수년전부터 극심해져서 더 이상 농민들은 참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누적된 조선의 사회, 경제적 모순을 농민이 스스로를 변혁의 주체로 자각하고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혁명적이다.

동학혁명군 위령탑

우금치 고개에는 동학혁명군 위령탑이 있다. 1973년 11월 박정희가 세운 것으로, 이러한 비문이 새겨져 있다.

“...그러나 님들이 가신지 80년 5.16 혁명이래의 신생조국이 새삼 동학혁명군의 순국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면서 빛나는 시월유신의 한뫼를 보내게 된 만큼 우리 모두가 피어린 이 언덕에 잠든 그님들의 넋을 달래기 위하여 이탑을 세우노니 오가는 천만대의 후손들이여! 그 위대한 혁명정신을 영원 무궁토록 이어받아 힘차게 선양하리라.”

10월 유신을 단행한 박정희 군사정권은 순수하게 농민혁명에 대한 의의를 역사적으로 재고찰하려는 것이 아니라 농민혁명의 이미지를 동원하여 영구집권을 도모하고자 이 탑을 건립하였다.¹⁰⁴⁾ 동학농민전쟁 100년이 지난 1994년에 우금치는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동학농민운동의 동아시아사적 의미

1894년을 기준으로 조선을 둘러싸고 이전에는 청과 일본이, 그 이후에는 러시아와 일본이 침탈 경쟁을 벌이는 양상을 보였다. 동학농민전쟁은 갑오개혁과 청일전쟁의 기폭제가 되고, 현대사에서 각종 개혁의 전초 역할을 했기

104) 이진영, 2002 앞의 책, 서경

때문에 한국근현대사에 빠질 수 없는 사건이었고, 동아시아 3국의 역사에도 중요하다. 조선은 근대민족국가로 나아가는 데에 여타 식민국가들과 같이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지주전호제로 대변되는 봉건제적 질서의 타파와 외부적으로 외세의 침략에 대한 저항이었다. 동학농민운동은 대체로 일본에 대한 저항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반청, 반일, 반서양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¹⁰⁵⁾ 한국의 근대사는 중국적 화이질서가 무너지고 일본의 만국공법적, 제국주의적 질서로 편입되는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1894년 이전에는 청과 일본의 조선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했다. 조일수호조규의 ‘자주국’ 조항은 일본이 청과 조선의 조공관계를 끝내려는 의도가 있는 조항이었으며, 임오군란에서 맺어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청의 조선 속방화 정책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불평등조약이었다. 결국 1894년 동학농민전쟁으로 발발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일본은 청에 대한 우위를 확고히 할 수 있게 되었고, 식민지로의 길에 가까이 갔던 것이다.¹⁰⁶⁾

공산성

5조 신일섭

연혁

공산성(公山城)은 당대에는 웅진성(熊進城)이라 불리었으며, 수도인 웅진을

105) 김정기, 2002 「청의 조선 속방화 정책과 동학농민전쟁」 『동학혁명의 동아시아사적 의미』, 서경

106) 김기혁, 2010 『근대 한중일 관계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방어하는 기능을 하였다. 이 성의 축성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특성의 단위유적으로 웅진성이 거론되는 것은 『三國史記』百濟本記 聖王 4년(526)조에 “四年 冬十月 修葺熊津城 立沙井柵”라는 기사가 유일한데다가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도 잦은 중수와 개축을 거쳐 사용되어왔기 때문에 현존하는 성곽에서 축성당시의 모습을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동성왕(재위:479~501) 시기에 축성활동이 활발하였다는 삼국사기 기사¹⁰⁷⁾를 고려해보면 동성왕 재위시기인 5세기 말에 성이 축성되었으리라 추정된다.

백제가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성왕 16년)한 이후에도 공산성은 이궁(離宮)으로서 기능하였다. 무왕 31년에 무왕은 반년 남짓한 기간을 웅진성에서 보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존재한다.¹⁰⁸⁾ 또한 의자왕이 웅진성에서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 또한 천도 후에도 이궁으로서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였음을 보여준다.

고려시대에는 공산성에 대한 기록이나 유적이 희소한 편이다. 단지 임류각지(臨流閣址)의 상단에 있던 건물지(建物趾)가 불사와 관련된 고려시대의 것으로 알려졌을 뿐이다. 하지만 고려시대에 이르러 이 지역의 이름이 웅진에서 공주로 바뀐 것을 생각해보면 고려시대에 웅진성이 공산성으로 이름이 바뀐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지방행정의 거점지에 위치한 산성으로서 지방행정의 거성으로 역할을 다시 부여받게 된다. 특히 전란이 잦았던 조선중기에 역할이 증대되었다. 그에 따라 잦은 증개축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중군영지(中軍營趾)와 관련된 시설이 마련되었다.

107) 『三國史記』百濟本紀 동성왕 8년, 12년, 20년

108) 『三國史記』百濟本紀 무왕 31년 기사

구조와 부수시설

먼저 성벽을 살펴보면 현존하는 성곽은 전체길이 2,660m중 석성이 1,770m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부분만이 토성이다. 석성과 토성 모두 조선시대에 수축된 것이지만 공산성 동쪽 구역의 내.외성으로 구분된 것 중 외성부분에서 약간의 석축흔적이 백제시대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수시설로는 여장, 치성, 고대, 수구가 있다. 먼저 여장은 성벽 윗부분에 설치되어 엄폐물의 역할을 하고 사혈을 통하여 외부의 적을 쏘는 시설이다. 현재 공산성에서는 여장 시설을 살펴볼 수는 없지만 『여지도서』등의 기록에서 여장의 시설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공산성에도 본래 여장시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치성(雉城)은 성벽 바깥으로 덧붙여서 쌓은 벽으로 적의 접근을 차단하고 적을 관측하는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 공산성의 치성은 진남루(남문)로부터 동쪽 90m 지점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설치 지역은 지형상 돌출 부분이면서 남문쪽이 정확하게 관측되는 지형으로 치성을 설치하기에 최적의 지형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는 포대나 초소로 사용하기 위해 성곽이 꺾이는 지점이나 돌출지점에 인위적으로 지대를 높게 만든 것이다. 공산성에서는 5개소가 확인된다. 수구는 말 그대로 물이 빠지는 출수구로 공산성에서는 모두 8곳에서 수구가 발견되었다.

공산성 내의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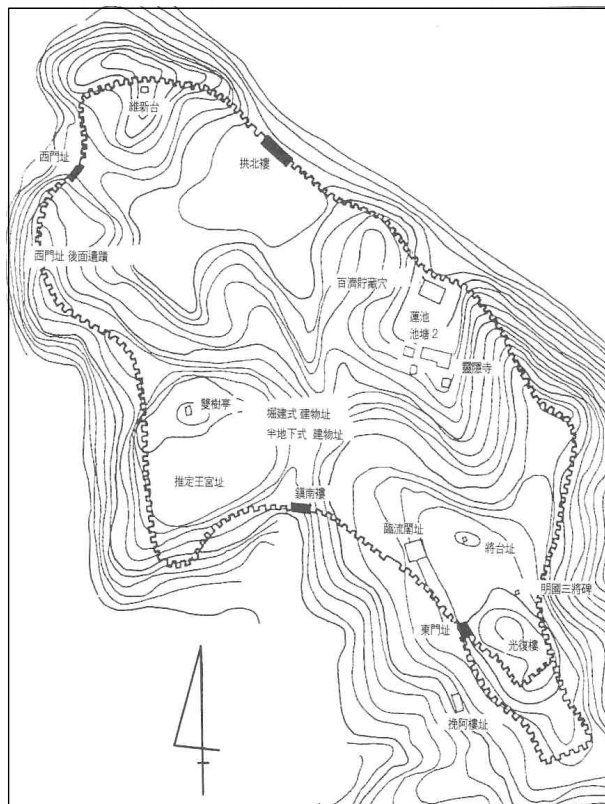
먼저 추정왕궁지(推定王宮址)는 공산성 내 서쪽의 표고 85m 정상부에 위치하며 면적은 대략 6,800평방미터이다. 발굴결과 왕궁지에서는 건물지와 용

수를 저장하기 위한 연못, 목곽고 및 저장구덩이 등이 발견되었으며 여기서 나온 유물들이 백제시대의 것으로 확인되어 이곳이 왕궁지일 가능성을 높여 주었다.

다음으로 임류각지(臨流閣址)는 공산성의 산정에 위치한 광복루(光復樓) 서쪽으로 약 150m정도 떨어진 산의 중턱 서향 사면에 위치한다. 임류각은 동성왕 22년(493)에 축조된 것으로 삼국사기에 기록이 남아있다.

만아루지(挽阿樓址)는 공산성의 동문지를 나와 약 20m정도 내려오는 지점에 위치하며 누각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 위치에서 백제의 와당편과 토기가 출토되어 이 건물 이 백제시대부터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쌍수정은 진남루 부근의 서쪽 고지대에 위치한 정각으로 인조가 공산성 파천시 머물렀던 장소이다. 쌍수정의 동쪽으로는 50m 부근에는 쌍수산성 사



적비문을 찾을 수 있다. 이 비석은 이괄의 반란과 인조의 남천에 관한 내력과 국왕의 파천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송시열의 기문이 첨가되어 있다.

명국삼장비(明國三將碑)는 산정의 광복루 북쪽의 사면에 위치하며 공주에 주둔하였던 명나라의 3장수의 업적을 기린 송덕비이다.

연지는 산성의 입지조건에 따른 수원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못을 조성한 것으로 성 내의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최근의 문제

최근 공산성이 붕괴조짐을 보이고 있다. 성곽 일부가 붕괴되고 석축이 유실되면서 배부름 현상과 폭 꺼짐 현상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붕괴 현상들은 90%이상 강변 쪽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시내 쪽의 성곽들은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올해 8월 초부터 발생되기 시작했으며, 지난 9월 9일에는 변영섭 문화재청장이 직접 실사하여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확인한 바 있다.

붕괴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4대강 사업이 유력하다. 4대강 사업이 진행 중이었던 지난 2010년에 이미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공산성이 일부 붕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미 있었으며 그 당시 우려한 준설작업으로 인한 수위상승과 수량증가, 그로인한 지반붕괴가 3년 후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현재 강변 쪽 성곽들 곳곳에 배부름 현상이 나타나 성곽사이에 틈이 벌어졌으며 지난 9.15일에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성곽 한쪽이 완전히 무너지기까지 했다. 또한 성곽주변에는 몇몇 웅덩이들이 발견되는데 이는 지반이 침하하여 땅이 폭 꺼졌기 때문이다. 만하루와 연지 역시 석축이 무너지고 틈이 벌어지면서 배부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공산성의 붕괴문제는 현재 공주.부여 일대를 역사문화지구로 묶어 세계문

화유산에 등재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시 되고 있다. 공산성은 9개 지구로 구성된 공주.부여 역사문화지구의 한 지구에 해당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존 상태로는 내년 1월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조사단 실사에서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문화유산 등재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문화재를 대하는 자세의 문제이다. 4대강 사업의 자체의 정당성은 차치하더라도 문화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규모 공사를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4대강의 추진자들은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이남석, 1999, 『公山城地塘』, 공주대학교박물관.
 이현숙, 2012, 「공주 공산성의 백제 역사문화환경」 『한국대학박물관협회 학술대회』, 한국대학박물관협회.
 김선미, 2010, 「향토사 자료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안 : 공주 공산성 유적 및 관련 역사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여석민, 2008, 「공주 공산성내 건물지 검토」, 공주대학교 사학과 대학원.
 경향신문 디지털뉴스팀, 「공주 공산성, 결국 성벽 붕괴...4대강 때문?」 『경향신문』, 2013.09.15
 김종술, 「1500년 된 산성... "4대강 사업으로 1년만에 망가져"」 『오마이뉴스』, 2013.08.27

송산리 고분군과 무령왕릉

5조 권오희, 안영선

시대 배경

475년 고구려 장수왕의 침공으로 백제의 한성이 함락되고 개로왕은 아차산 아래에서 붙잡혀 죽는다. 당시 왕자였던 문주는 신라에 구원병을 요청하고 돌아오던 중 한성의 함락 소식을 듣고 이에 급히 도읍을 웅진으로 옮기게 된다. 한성에 도읍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이룩했던 국가 역량이 고구려의 남진으로 인해 일거에 쇠락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급박한 천도였기 때문에 웅진 자체가 도읍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흐트러진 민심과 지방 세력의 발호, 이로 인한 왕권 실추와 같은 정치적 요동도 상당했기 때문에 백제의 국가적 앞날은 결코 순탄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 후 신라와 혼인 동맹을 맺고 국가체제정비에 나선 동성왕과 담로제를 정비하고 대중국 통교를 활발히 전개한 무령왕의 재위 시기 동안 혼란스런 정국을 수습하고 성공적인 왕권 강화와 국력 신장을 이뤄내면서 백제는 다시금 명실상부한 고대국가의 면모를 회복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성왕 재위 16년인 538년 도읍을 사비로 옮기면서 다시 한 번 대외적 발전을 도모한다.

이렇듯 63년 동안 지속된 웅진시대는 백제 전체 역사에 비한다면 비교적 짧은 기간이지만 국가 존망의 여부가 달린 매우 중요한 시대였다. 다행히 웅진 천도라는 최대의 국가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백제는 그 정체성을 지속시킬 수 있었는데 이러한 일면을 묘제환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송산리 고분군

공주 송산리 고분군은 웅진백제 시대의 고분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대부분의 고분이 이미 도굴되거나 파괴되어 개별 무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함에 따라 그 각각이 누구의 무덤인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1971년 무령왕릉이 발굴되면서 이 지역이 웅진백제의 왕릉지구였음은 보다 분명해지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행해진 조사 자료에 의하면 모두 약 20여기 이상의 백제 고분이 송산리 고분군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¹⁰⁹⁾ 현재 복원되어 있는 것은 모두 7기(1~6호분과 무령왕릉)이다. 이 중 1~5호분은 한성시대 후기의 묘제인 횡혈식석실분(橫穴式石室墳)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묘제환경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달리 6호분과 무령왕릉은 전축분(塼築墳)이라는 새로운 묘제를 띠고 있는 것이 눈에 띄는데 이는 백제 고유의 묘제가 아니며 중국 남조와 교류를 통해 새롭게 도입된 것이다. 때문에 이 전축분은 웅진 도읍기에 도읍지역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특징을 보인다.

1~5호분

1~5호분으로 분류된 횡혈식석실분의 경우 입지나 고분의 형태상 무령왕릉과 6호 전축분보다 이른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모두 자연할석(천석이나 산석과 같은 자연돌을 적당한 크기로 깎아 돌, 막돌)으로 축조되었으며 널길은 널방의 동쪽 벽에 축조되어 있고, 벽면은 백회를 발라 미장되었다. 천장은 모두 돔 형식의 궁륭상(穹窿狀)으로 되어 있다. 바닥은 냇자갈을 깔아서 관대(무덤 안에 관을 얹어놓던 평상이나 낮은 대)로 이용하고 있는데, 5호분만은 벽돌로 관대를 만들었다. 1호분에서는 출토된 유물이 존재하지 않으나 2~5호분에서는 백제토기와 철제대도, 쇠못, 은제판, 각종 장신구 등의 유물 약간이 수습되었다.

109) 정상기, 2012, 「일제강점기 공주 송산리 고분의 조사」, 『중앙고고연구』 10권, 253쪽.

6호분

무령왕릉 자리의 지맥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6호분은 공주 유일의 벽화고분으로서 송산리 벽화분으로도 불리는데 백제 영역에서 최초로 발견된 벽돌무덤이며 벽에 그림이 그려진 최초의 벽화 무덤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¹¹⁰⁾ 벽돌에 새겨진 오수전(五銖錢)의 문양과 축조 방법으로 보아 6호 전축분이 무령왕릉보다 다소 앞선 6세기 초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널길의 형태가 이중의 구조를 보여 무령왕릉보다 복잡한 형식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기술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6호분이 무령왕릉보다 발전된 면을 보이고 있다.¹¹¹⁾

전체적 구조는 터널형 널방 앞에 짧은 터널형의 널길이 있는 형태인데 이는 중국 남조의 무덤 양식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한 축조 재료나 활모양의 천정의 구조에서도 남조의 영향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천장부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쌓는 공적법을 통해 만들어 졌는데 이를 통해 당시의 우수한 축조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널방의 7개의 등자리나 네 벽면에 그려져 있는 사신도, 일월도와 같은 벽화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무령왕릉(武寧王陵)

5조 안영선

무령왕은 어떤 사람인가?

무령왕은 백제 25대 왕으로, 백제 개로왕 8년(462년)에 태어났다. 『삼국사

110) 조유전, 2005, 『백제고분 발굴 이야기』, 주류성, 212쪽.

111) 위의 책, 221쪽.

기』의 기록에 의하면 백제 24대 왕인 동성왕의 둘째 아들이지만, 『일본서기』에는 개로왕의 아우인 곤지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다.¹¹²⁾

이름은 사마(斯麻)¹¹³⁾ 혹은 융(隆)¹¹⁴⁾이라 하는데 왜에서는 사마라는 이름으로 통했으며, 출토된 비석의 내용을 감안하면 무령왕이라는 명칭보다 ‘사마왕’이라는 명칭이 더 잘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령왕은 501년, 40세라는 비교적 늦은 나이로 왕위에 오른다. 당시의 백제는 귀족들의 반란 및 권력다툼으로 인해 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그는 늦은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권 회복 및 대외 정책에 상당히 효과적인 수완을 발휘한다. 당시의 백제는 한강 유역 상실로 인한 농업생산지 확보를 위해 가야 지역으로 진출하였으며, 고구려에게 빼앗긴 영토를 수복하기 위해 공격을 감행하는 등 옛 백제의 영토 대부분을 수복하고 강한 군사력을 소유하였다. 무령왕은 대외적으로도 중국 남조의 양나라와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선진 문화를 수용하는 등 백제의 독자적인 문화 발전에도 많은 공헌을 하였다.¹¹⁵⁾

무령왕은 23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선정을 펼치고 523년, 62세의 나이

112) 『일본서기』의 기록에 의하면 무령왕의 친부는 개로왕이다. 개로왕의 아우인 곤지는 왜나라로 건너가면서 만삭이었던 개로왕의 부인과 동행하는데, 항해도 중 풍랑을 만나 급히 상륙한 섬에서 무령왕이 태어났다고 전해진다. 무령왕의 이름이 ‘사마’인 이유는 일본어로 섬을 ‘시마(しま)’라고 표기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기록을 토대로 하면 『삼국사기』의 기록과는 달리 무령왕은 동성왕과 이복 형제인 셈이 되는데, 현재는 이 가설이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113) 무령왕릉 발굴시 출토된 지석에는 사마(斯麻)로 표기되어 있으나 『삼국사기』에는 사마(斯摩)로 기술되어 있다.

114) 『삼국사기』의 기록에는 여융(餘隆)이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여(餘)’는 백제 왕실의 성씨인 부여(扶餘)를 줄여 ‘여(餘)’라고 칭했던 것으로 보이며, 융(隆)이라는 이름은 중국과의 외교관계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15) 엄기표, 2004, 『백제사에 던지는 15가지 질문-정말 거기에 백제가 있었을까』, 고래실, 242~243쪽.

로 유명을 달리하였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그는 성군으로 평가받을 만한 업적을 남긴 위대한 왕이었으며, 중국 역사서인 『양서』에서도 “갱위강국(更位強國)”이라는 표현이 기록된 것을 보면 당시 무령왕의 치세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해볼 수 있겠다. 무령왕의 이러한 선정은 다음 왕인 성왕 대에 이르러 백제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밑바탕이 된다.

발굴

무령왕릉은 1971년 7월 5일, 송산리 6호 고분의 보수작업 과정에서 우연히 발굴되었다. 당시 송산리 6호분은 습기로 인해 내부가 상당히 훼손된 상태였고, 이를 위해 배수시설을 보수하던 도중 우연히 인부의 삽 끝에 걸린 벽돌에서 시작하여 발굴에 이르게 된 것이다.

무령왕릉의 발굴이 일대 사건이라 불릴 만한 이유를 꼽아보자면 크게 세 가지를 거론할 수 있겠다. 첫째, 무령왕릉은 매장한 뒤 발굴되기까지 약 1,500년 간 그 어떤 외부의 침입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고분들이 도굴 이후에나 발굴된 것을 감안하면 획기적인 일이었다. 둘째,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부장품 유물은 모두 108종 2,906점에 이르며, 이 중 국보가 17개나 되었다. 이 유물들은 나무, 돌, 금속, 도자기 등 다양한 소재들로 이루어져 있어 당시 백제 문화의 수준을 고스란히 알게 해 주었다. 셋째, 『삼국사기』의 무령왕대에 기술된 내용이 출토된 지석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백제 역사의 연구에 신빙성을 높였다. 특히 출토된 금속공예품이나 중국도자기, 관의 재질 등으로 말미암아 당시 백제의 기술력과 국제 외교 관계를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내부 구조 및 부장 유물품들의 특징

무령왕릉은 벽돌을 구워서 만든 터널형태의 전축분(塼築墳)으로 무덤

내부는 크게 연도(羨道)와 묘실(墓室)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외부는 석회혼합토를 이용하여 봉분(封墳)을 높고 웅장하게 구축했던 것으로 보인다. 봉분의 경우는 퇴적과정으로 인해 대부분이 유실되어 현재로서는 축조 당시의 정확한 모습과 규모를 확인하기 어렵다.¹¹⁶⁾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외부 규모는 직경 약 20m 정도에 높이는 묘실 바닥을 기준으로 7.7m 정도다.

내부 구조는 입구에 해당하는 연도부가 길이 2.9m, 너비 1.04m, 바닥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1.45m이며, 천장의 모습은 반원형의 터널 형태를 이루고 있다. 묘실의 구조도 기본적으로 축조방법이 연도와 동일하지만, 전체적인 규모에 있어서는 몇몇 특징들이 눈에 띈다. 현실의 규모는 길이 4.2m, 폭 2.7m에 바닥부터 천장까지 높이가 3.1m로 연도보다 규모가 훨씬 크다. 관이 놓이는 부분에는 회가 두껍게 덧칠되어 있는데, 이는 관을 안치하기 위한 관대의 역할을 대행했던 것으로 보인다.¹¹⁷⁾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왕의 목관 내부 길이는 232cm, 왕비의 목관 내부 길이는 226cm로 당시 왕과 왕비의 키를 짐작해볼 수 있다.¹¹⁸⁾ 특히 관모, 귀걸이, 허리띠, 팔찌, 신발 등 장신구가 다량으로 출토되었으며, 이 장신구들은 대부분 금이나 은으로 만든 화려한 형태이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재질별로 살펴보면 목재, 금속류, 도자기류 및 석조유물로 분류할 수 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을 몇 가지 짚어보면, 가장 먼저 관에 쓰인 나무의 재질을 꼽을 수 있겠다. 무령왕의 관에 쓰인 나무는 금송(金松)¹¹⁹⁾이며, 함께 출토된 소목편(小木片)들도 일본산의 삼나무로 판명

116) 국립공주박물관, 2001, 『백제 사마왕-무령왕릉 발굴, 그 후 30년의 발자취』, 통천문화사, 146쪽.

117) 위의 책, 146쪽.

118) 앞의 책, 247쪽.

119) 삼나무와 같은 낙우송과의 나무로 학명은 *Sciadopitys verticillata*. 일본

되었다. 이는 당시 백제와 일본의 교류관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 다음으로 눈여겨 볼 유물은 부장품으로 출토된 금속 유물들이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순수 금제품들은 전부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열처리가 되어있다. 금은 연성과 전성이 매우 좋아 가공 후의 경화현상으로 인해 쉽게 파손되는 경향이 있다. 유물들의 미세조직을 분석해본 결과 재결정 발생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백제 장인들이 금에 대해 상당 수준의 지식과 세공능력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유리장식품이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는 유리장식품의 수량이 상당히 많으며, 그 모양이나 색 역시 매우 다양하다. 과학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대부분의 유리제품에는 나트륨 성분이 10~18%가량 함유되어 있어 소다유리¹²⁰⁾임을 알 수 있었으며, 유리의 색조 표현을 위한 성분도 제각각이어서 당시의 유리가공기술이 어느 정도였는지 추정 가능하게 해준다.

몇 가지 의문들

무령왕릉은 1971년에 우연히 발견되기 이전까지 무령왕이 안치되어 봉인된 이후 외부의 침입이 전혀 없던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굴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각종 부장품들이 제각각의 방향으로 흩어져있고, 관이 부식

큐슈(九州)지방에서만 자생하며 일본에서는 ‘코우야마키 こうやまき’라고 부른다. 학명을 풀이해보면 ‘소나무를 닮은 우산 모양 나무’라는 뜻이 된다. 땅속이나 물속에서도 잘 썩지 않을 정도로 내구성이 좋고, 다른 낙우송과의 나무들과는 달리 껍질의 색이 붉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120) 소다, 규사, 석회를 주성분으로 하는 유리의 일종. 고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로마 시대 등의 유리 제품도 대부분 동일한 소재가 사용되었다. 현재는 판유리, 병, 일반식기, 전구 및 공예용 제품 등에 사용된다.

하여 주저 앉았으며, 항아리가 넘어지고 석수의 다리가 부러져 있는 등 내부가 엉망이었다. 혹 매장 이후 지진이라도 일어났던 것일까?

이에 대한 의문은 무령왕릉의 묘지석을 통해 풀 수 있다. 지석의 기록에 의하면 무령왕은 사후에 바로 매장된 것이 아니었다. 이른바 ‘빈장’이라 하여 약 2년 이상을 가매장한 상태로 있었던 것¹²¹⁾인데, 현재는 1996년에 발견된 정지산 유적이 유력한 후보지인 상태이다. 따라서 무령왕의 관은 사후에 적어도 두 번의 장거리 이동을 겪었을 것이고, 관 안에 들어간 부장품들의 위치가 흐트러진 것은 일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관의 재질로 쓰인 금송도 특이한 부분 중 하나다. 일본에서만 자생하는 금송을 가져와 왕의 관재로 쓸 정도라면, 백제는 일본과 정식으로 국교를 통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당시의 일본 내에서도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사용한 금송이 바다를 건너 먼 백제까지 오게 된 배경으로는 일본의 야마토정권(大和政權)¹²²⁾과 백제 사이의 외교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야마토 시대는 중국과 한반도로부터 유민들이 유입되던 시기였다. 특히 백제는 4세기 말에 한자와 유교를, 6세기 중엽에 불교를 전파하면서 야마토 정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음이 분명하다. 일본의 금송은 문물교류의 일환으로, 혹은 선진기술과 문화의 제공에 대한 보답으로 백제로 넘어왔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과 같이 해상 교통이 편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무령왕의 사

후에 금송이 수입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일본의 금송은 이미 가공된 상태로 백제로 넘어왔을 것이고, 무령왕이 죽기 이전부터 목관의 제작에 들어갔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백제에는 금송을 비롯한 수입 문물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체계가 마련되어 있었을 거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무령왕릉의 현재

현재 무령왕릉은 내부 구조만을 박물관에 재현해 놓은 상태로, 원 봉분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상태다. 학계에서는 무령왕릉 내부가 강수에 취약하여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벽돌의 깨짐이나 변위 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맨 처음 발견 당시에도 발굴 작업이 하루 만에 급속도로 이루어져 지금에 와서는 문혀버린 진실이 많은 가운데, 그 이후에도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았음은 안타까운 사실이다.

비록 무령왕릉을 비롯한 과거의 유적지, 유물들이 발굴되어 우리의 역사를 보다 충실하게 채워주는 것이 과연 무작정 환영받을만한 일일까? 옛 선조들의 역사를 연구하고 진실을 탐구하는 일은 적극적으로 지속해야 하겠지만, 과연 그 이후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발견하고 복원해 낸 역사를 어떻게 보존하여 물려줘야 할 것인지,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참고문헌

엄기표, 2004, 『백제사에 던지는 15가지 질문-정말 거기에 백제가 있었을까』, 고래실.
국립공주박물관, 2001, 『백제 사마왕-무령왕릉 발굴, 그 후 30년의 발자취』, 통천문화사.

121) 흔히 유교 문화의 하나로 거론되는 ‘3년상’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겠으나, 실제로 3년상은 고구려의 장례 풍습으로 조선시대에 유교가 자리 잡기 이전부터 이미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장례 관습이라고 봐야 한다.

122) 약 3세기 말, 여왕인 히미코가 통치하는 야마타이 국을 중심으로 30여개의 연합국을 거쳐 4세기 초 정립된 일본 최초의 통일 정권. 645년 다이카개신(大化改新)이 일어나기 이전까지 약 300여 년 동안 지속되었다.

서만철, 1999, 「무령왕릉의 보존을 위한 지반공학적 고찰」, 공주대학교 .
양기석, 2009, 「백제문화의 우수성과 국제성」, 충북대학교.
조유전, 2005, 『백제고분 발굴 이야기』, 주류성.
이남석, 2004, 『백제의 무덤 이야기』, 주류성.
강판권, 2010, 『역사와 문화로 읽는 나무사전』, 글항아리.